

R 909 | 2020. 10. |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Characteristics and Growth Factors of Start-ups
in Rural Areas

정도채 김용렬 서형주 김정승 정유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09 | 2020. 10. |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Characteristics and Growth Factors of Start-ups
in Rural Areas

정도채 김용렬 서형주 김정승 정유리



연구 담당

정도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용렬 | 선임연구위원 | 제6장 집필

서형주 | 연구원 | 제4~5장, 부록 집필

김정승 | 연구원 | 제3장 집필

정유리 | 연구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09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I S B N | 979-11-6149-428-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촌은 다양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공간이다. 최근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산업 성장 사례들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 중심의 농촌 산업 구조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드는 중심에는 바로 창업이 있다.

최근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창업이 농촌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 활성화 수단으로 이러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입지상의 불리함이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지원 주체 등 전반적인 창업 생태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창업 경영체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현황과 성장 요인을 진단하고, 경영체 및 전문가들의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농촌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농촌 창업의 확산과 창업 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당국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수집에 협조 해주신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농촌에서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창업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창업을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창업을 확산하는 지원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농촌 창업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농촌에서 나타나는 창업 경영체들의 창업 이후 성장 과정과 유형별 생멸 실태, 성장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은 주로 농업·농촌 관련 지역 자원에 기반한 특정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열악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열악한 입지 조건 등 도시 지역과 구분되는 창업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여, 경영체들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각 경영체들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최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창업 생태계는 ‘창업 주체와 창업 지원 기관 및 투자자 간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며(관계부처 합동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자, 지원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혁신 주체, 엔젤투자자·금융기관 등의 관련 주체 간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창업·성장·쇠퇴·재생의 창업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환경’을 의미한다(이대기 2014). 농촌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들이 창업 생태계 구축 관점

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촌 창업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의 창업 이후 성장 과정을 조사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생존 및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유형별 성장 경로와 성과 창출 요인에 기반한 농촌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전략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분석, 계량 분석,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과 성장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업체 총조사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농촌 창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기업 DB를 활용하여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창업 경영체 현황, 생명 실태, 성장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기업 DB 자료를 기반으로 계량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멸 및 성장 요인을 도출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생산활동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창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창업 경영체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창업 지원 기관의 담당자와 농촌 산업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 농촌에 위치한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이 도시에 있는 창업 경영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에는 창업주의 경험과 역량, 경영체의 혁신 역량, 경영 규모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창업 후 3년 사이에 폐업률이 증가하는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농촌의 저렴한 입지 비용과 개인적 선호로 인해 농촌에서 창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후 거래관계,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혁신 네트워크가 지역에 착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 창업 활동의 증가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지원 금융, 공공 부문의 역량, 시장과의 접근성 등에서 농촌 창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농촌 창업 지원 기관 및 전문가 면담조사에서도 농촌 창업 환경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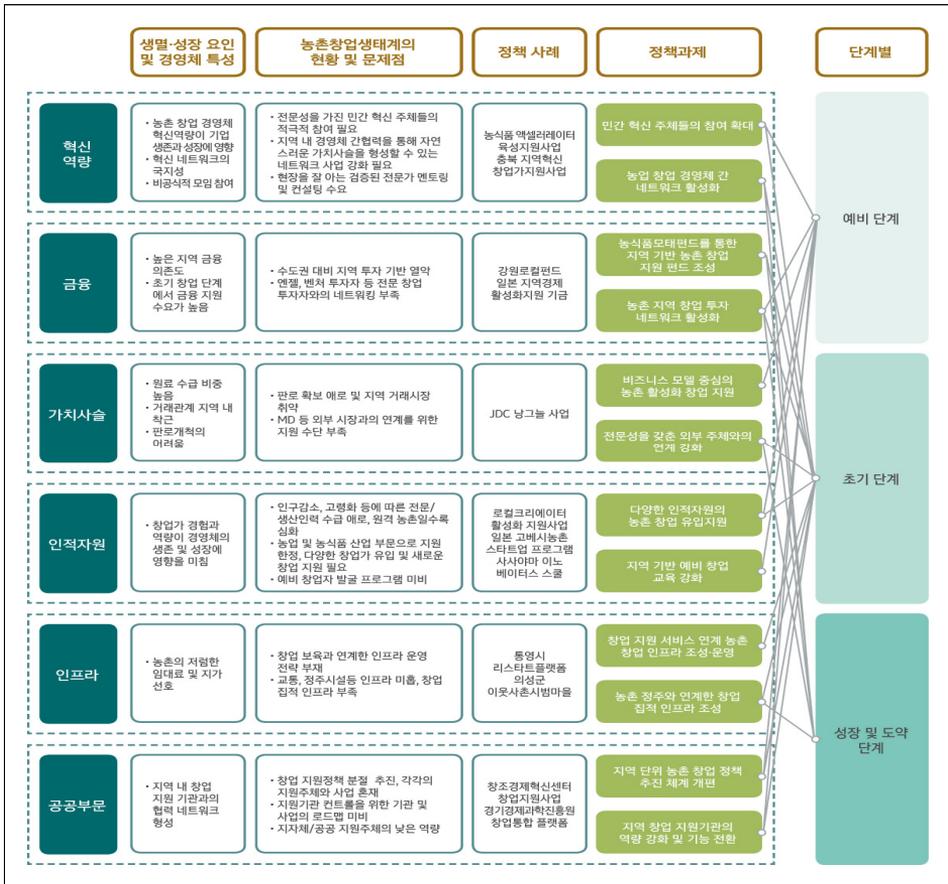
정책 제언

- 이와 같은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생존·성장 요인과 생산활동 특성, 정책 수요 그리고 최근 타 부문 창업 정책 동향을 고려한 농촌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 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 창업 정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넷째, 농촌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인지하고 지역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농촌 창업 정책이 추진되는 지역의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정책 개선 방향에 따라 농촌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체계, 창업 금융, 시장 및 가치사슬, 창업가 및 인력 양성, 창업 인프라, 공공 지원 주체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 및 생태계 특성에 따른 정책과제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Growth Factors of Start-ups in Rural Areas

Background and Purpose

- Recently, start-up policies have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start-up ecosystem in common. The start-up eco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in which start-up management, institutions supporting start-ups, and investors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continuously vitalize start-ups. The start-up ecosystem includes various environment and principal elements in the region where start-ups appear,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finance, human resources and entrepreneurship, and affects the survival and growth of start-up firm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olicies or projects supporting rural start-ups and draw up improvement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n ecosystem for start-ups.

-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t-starting growth process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and performance of the start-ups in rural areas. We propose strategies and policy improvement tasks to promote rural start-ups based on the growth path and performance by firm type.

Research Methodology

- We conducted statistical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s,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overall changes in rural start-ups were examined through raw data from the census of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survival or closure,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entities started in rural areas were identified by utilizing the corporate database held by Korea Enterprise Data Co., Ltd. Survival and growth factor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based on corporate DB data. We surveyed 200 fir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ctivities and the demand for policie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major companies to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wth path of rural start-ups. We interviewed persons in charge of major start-up support agencies and experts related to rural industries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Key Findings

- The survival rate of start-ups in rural areas is higher than that in cities. The founders' experience and capabilities, the innovation capacity, and management size affect the survival and growth of rural start-ups. There is also firms' closing rate increas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starting point, which is called "the Valley of Death," while the firms move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to the growth stage.
-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tart-ups, the proportion of

established firms in rural areas is high due to low rent and personal preference. It is confirmed that trading relations,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innovation networks concentrate in the region after establishment.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expect the effect of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through the increase in rural start-up activities. However, founders point out the poor environment for start-ups in rural areas as a problem in supporting finance, public sector capacity, and accessibility to the market. In interviews with rural start-up support agencies and expert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rural environment for start-ups is insufficient.

Policy Suggestions

- The following are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policies to support start-ups in rural areas taking into account survival and growth factors,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ctivities, policy demands, and recent trends in other sectors' start-up poli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competent start-ups and strengthen support for promising start-ups. Second, customized support is needed for each stage of growth after initial starting. Third, players in the private sector with capacity and expertise should be nurtured and incorporate into rural start-up polic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oor environment for start-ups in rural areas and support connection with resources outside the region. Finally,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the region where actual rural start-up policies are promoted should be overhauled.

- Following th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we propose policy tasks about innovation system, start-up financing, market and value chain, entrepreneurship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public support agencies, which constitute the rural start-up ecosystem.

Researchers: Chung Dochai, Kim Yonglyoul, Seo Hyeongju, Kim Jeongseung, Chung Yuri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0.

E-mail address: dcchu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7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창업 생태계 특성과 농촌 창업 생태계	15
1. 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과 창업 생태계	17
2. 농촌 창업 활동 조사·분석 틀	23
제3장 농촌 창업 활동 현황과 특징	25
1. 농촌 창업 현황	27
2. 농촌 창업 경영체 생멸 현황 및 생존 요인	33
3. 농촌 창업 경영체 성장 현황 및 요인	53
4. 요약 및 시사점	62
제4장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과 사례	65
1.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산활동 특성	67
2. 농촌 창업 유형별 사례 및 시사점	93
제5장 농촌 창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109
1. 농촌 창업 지원 정책 현황 및 과제	111
2. 국내외 농촌 창업 정책 사례 및 시사점	137

제6장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149
1. 농촌 창업 정책 개선 방향	151
2. 농촌 창업 정책 부문별 개선 과제	155
부록	
1. 설문조사지	171
2. 생존 분석 설명 변수 선정	183
참고문헌	191

표 차례

제1장

〈표 1-1〉 선행연구의 농촌 창업 활동 특성	8
〈표 1-2〉 선행연구의 농촌 창업 유형별 특징	10

제2장

〈표 2-1〉 창업 생태계 평가지표별 측정요소	19
---------------------------------	----

제3장

〈표 3-1〉 2010~2018년 지역별 창업 및 기창업 업체 수와 고용 인원수 변화	28
〈표 3-2〉 농촌 창업 기업 산업별 분포(2010년 이후)	32
〈표 3-3〉 주요 업종별 창업 경영체 입지 지역 및 기업 유형	33
〈표 3-4〉 농촌 창업 경영체 산업 부문별 생존율	34
〈표 3-5〉 제조업 부문별 휴폐업률(세분류 기준)	35
〈표 3-6〉 산업별 전국과 농촌 창업 경영체 휴폐업률 비교	38
〈표 3-7〉 창업 경영체 유형별 창업 연도별 생존율	38
〈표 3-8〉 2010년, 2015년 농촌 창업 법인의 산업별 비중	39
〈표 3-9〉 2010년, 2015년 농촌 창업 법인의 산업별 생존율	39
〈표 3-10〉 생존 및 휴폐업 법인 경영체 창업주 종사 시간 비교	42
〈표 3-11〉 생존 분석에 요인으로 고려된 변수(1차)	47
〈표 3-12〉 생존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48
〈표 3-13〉 생존 요인 분석 변수 기초 통계량	49
〈표 3-14〉 생존 요인 분석 결과	52
〈표 3-15〉 농촌 창업 경영체 산업 부문별 성장률	53
〈표 3-16〉 농촌 창업 경영체 지역별 성장률	54
〈표 3-17〉 시·도별 고성장 창업 경영체 비중	55
〈표 3-18〉 고성장 경영체 성장 특성	57
〈표 3-19〉 성장 요인 분석 변수 기초 통계량	59
〈표 3-20〉 성장 요인 분석 결과	61

제4장

〈표 4-1〉 농촌 창업 경영체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68
〈표 4-2〉 농촌 창업 기업 유형별 창업 동기	71
〈표 4-3〉 대표자의 창업 전 평균 경력	72
〈표 4-4〉 창업 이후 지역(시·군) 내 활동 비중 증가	77
〈표 4-5〉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80
〈표 4-6〉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경영체 형태, 업종, 창업 형태별)	84
〈표 4-7〉 유형별 농촌 창업 경영체의 지역 불리함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수요 (복수응답)	89
〈표 4-8〉 성장 단계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개선 과제(복수응답)	91
〈표 4-9〉 농촌 창업 경영체의 농촌 창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92
〈표 4-10〉 창업가의 농촌 이주 특성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94
〈표 4-11〉 창업가의 창업 행태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98
〈표 4-12〉 창업의 주목적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101
〈표 4-13〉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방식에 따른 창업 유형 특성 및 사례	104

제5장

〈표 5-1〉 부처별 2019~2020년도 창업예산	112
〈표 5-2〉 지원유형별 예산규모(2020년)	112
〈표 5-3〉 농촌 창업 지원 중앙부처 및 주요 기관	113
〈표 5-4〉 농촌 창업 지원 센터	114
〈표 5-5〉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정책	116
〈표 5-6〉 농촌산업 창업 지원 정책	117
〈표 5-7〉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	120
〈표 5-8〉 농촌 창업 지원 기관 및 창업 경영체 면담조사 목록	125
〈표 5-9〉 예비 창업가 발굴 및 인력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128
〈표 5-10〉 창업 경영체 대상 판로 개척 사업 평가 개선 방안	130
〈표 5-11〉 창업 경영체 혁신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132

〈표 5-12〉 농촌 창업 금융 지원 개선 방안	133
〈표 5-13〉 농촌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134
〈표 5-14〉 예비 창업가 발굴 및 인력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136
〈표 5-15〉 성장 단계별 창업 생태계 요소별 농촌 창업 정책 문제점	137
〈표 5-16〉 농촌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시사점	147

제6장

〈표 6-1〉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및 운영 방식 변화	169
--------------------------------------	-----

부록

〈부표 2-1〉 단일 변수 모형 유의성 검정 결과	189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14
-------------------------	----

제2장

〈그림 2-1〉 농촌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23
〈그림 2-2〉 연구의 조사·분석틀	24

제3장

〈그림 3-1〉 농식품산업 창업 현황	29
〈그림 3-2〉 농업법인 창업 현황	29
〈그림 3-3〉 6차산업 창업 경영체 현황(2009~2016년)	30
〈그림 3-4〉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현황	31
〈그림 3-5〉 경영체 형태별 입지 지역	32
〈그림 3-6〉 농촌과 전국의 창업 경영체 생존율	36
〈그림 3-7〉 창업 후 경과 기간별 농촌과 전국 창업 경영체 폐업률	37
〈그림 3-8〉 창업주별 입지 지역과 기업 형태	40
〈그림 3-9〉 창업주별 창업 초기 매출액	41
〈그림 3-10〉 창업주별 경영체 생존율	41
〈그림 3-11〉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간별 생존 확률	50
〈그림 3-12〉 창업 법인의 평균 매출액 비교	54
〈그림 3-13〉 고성장 경영체 생존율	56
〈그림 3-14〉 창업 경영체의 연평균 매출액(일반, 고성장 경영체)	56

제4장

〈그림 4-1〉 창업가의 이전 직장	69
〈그림 4-2〉 청년 창업가의 창업 전 직장	70
〈그림 4-3〉 일반 창업 기업의 창업 동기	71

〈그림 4-4〉 농촌 창업 기업 입지 요인 비교(복수응답)	73
〈그림 4-5〉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창업한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 어려움(복수응답) ..	74
〈그림 4-6〉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76
〈그림 4-7〉 농촌 창업 경영체의 창업 단계별 애로 사항(복수응답)	78
〈그림 4-8〉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금 조달 방법(복수응답)	78
〈그림 4-9〉 기업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내외부 시장 여건(복수응답)	80
〈그림 4-10〉 제품혁신 기여 기관(복수응답)	81
〈그림 4-11〉 성장 단계별 제품혁신 기여 기관 및 위치(복수응답)	82
〈그림 4-12〉 성장 단계별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84
〈그림 4-13〉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특성	85
〈그림 4-14〉 기업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시·군) 여건(복수응답)	86
〈그림 4-15〉 읍·면 입지 기업별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복수응답)	87
〈그림 4-16〉 읍·면 입지 기업별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극복을 자원 활용의 지역 범위 ..	88
〈그림 4-17〉 농촌 창업 경영체의 지역 불리함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수요 (복수응답)	89
〈그림 4-18〉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개선 과제(복수응답)	90
〈그림 4-19〉 경남 남해군 돌창고프로젝트 성장 요인	96
〈그림 4-20〉 전남 여수시 아라움 성장 요인	99
〈그림 4-21〉 충북 청주시 알알이거둬터 성장 요인	103
〈그림 4-22〉 제주 해녀의 부업 성장 요인	106

제5장

〈그림 5-1〉 농식품 벤처 및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창업 지원 정책	119
〈그림 5-2〉 농촌 지역 활성화 관련 창업 지원 정책	123
〈그림 5-3〉 REVIC의 지역 펀드 운영 방식	143

제6장

〈그림 6-1〉 농촌 창업 경영체 및 생태계 특성에 따른 정책 과제	154
---	-----

부록

〈부도 2-1〉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좌측)와 이노비즈 인증 유무(우측)의 생존 곡선 ···	184
〈부도 2-2〉 벤처 인증 유무(좌측)와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우측)의 생존 곡선 ·····	184
〈부도 2-3〉 산업 부문별 생존 곡선 ···	185
〈부도 2-4〉 창업 연도별 생존 곡선 ···	187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창업은 산업 전반의 혁신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용되지 못한 자원을 활성화하여 산업 고도화 및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Fritsch & Mueller 2004; 조성철 외 2018 재인용). 여러 선진국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를 국가 산업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양현봉 외 2009). 우리나라도 국가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 비전인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창업 여건 개선을 통한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창업 여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혁신성이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6차 산업기초실태조사 결과 연평균 600여 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매년 창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식품분야의 벤처기업은 2013년 1,203개에서 2017년 1,932개로 증가하여 매년 200여 개의 업체가 새롭게 창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이러한 농촌의 창업 활동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구교영 2017; 마상진 외 2017; 정혜진 2016).

지자체에서도 창업을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주민 대상의 농산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통해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들은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인들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및 청년 정책과 연계하여 외부로부터 역량과 아이디어를 갖춘 인력들이 농촌에서 창업하여 정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창업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농촌 창업 주체들의 성장 경로와 생존 및 성과 창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특정 영역의 창업 활동에 대해 다루고는 있으나, 농촌에서 나타나는 창업 경영체들의 창업 이후 성장 과정과 유형별 생멸 실태, 성장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은 주로 농업·농촌 관련 지역 자원에 기반한 특정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열악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선행연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 중 일부는 창업 후 단기간 내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경영체 1년 생존율 89.8%, 1년 내 10.2% 소멸, 농식품부 내부 자료).

이렇듯 열악한 입지 조건 등 도시 지역과 구분되는 불리한 창업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업 경영체들은 일반적으로 창업 이후 제품 상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기는 창업 경영체들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여겨진다. 농촌 창업 경영체 또한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 정책·사업은 다양하지만, 창업 이후 기

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관리하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송정환 외 2016).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여 경영체들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각 경영체들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도시나 주요 산업집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성장 경로와 구분되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와 특성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창업 활동들의 유형을 고려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 창업, 농가의 6차산업 부문 창업 등 경제적 동기에 의해 창업한 경영체의 경우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scale-up)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농촌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농촌 내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한 경영체의 경우에는 창업 동기와 목적 그리고 본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점에서 성장 및 생존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다. 창업 생태계란 ‘창업 주체와 창업 지원 기관 및 투자자 간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며(관계부처 합동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자, 지원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등의 혁신 주체, 엔젤투자자·금융 기관 등의 관련 주체 간 상호 작용에 기반하여 창업·성장·쇠퇴·재생의 창업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환경’을 의미한다(이대기 2014). 창업 정책에서 생태계 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최근 나타나는 창업 활동의 특성 및 기존 산업 정책의 한계와 관련 있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 산업 발전의 단계에 따라 지역과 산업 부문에 미치는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인식된다(Isenberg 2011; 문미성 2019). 이러한 문제인식은 창업이 출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 단순히 시장-기업 간 관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며, 기업 및 다양한 관계 기관 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 창업 생태계 접근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공유 공간과 같은 새

로운 플랫폼이 출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창업 생태계가 강조된다. 이에 농촌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들이 창업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농촌 창업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성장 과정을 조사하여, 생존 및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성장 경로와 성과 창출 요인에 기반한 농촌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나타나는 창업 경영체 유형별 생멸, 성장 특성을 살펴보고 생존 및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농촌 창업 관련 물리적 인프라, 인적 자원, 창업 금융, 지원 정책 및 제도적 여건 등 창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농촌의 창업 여건이 창업 경영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지원 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넷째, 정부, 지자체, 창업 지원 기관, 농업·농촌 혁신 지원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건전한 농촌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촌 창업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농촌 창업 활동의 효과 연구

농촌 창업 관련 기존 연구들은 농식품 벤처, 창업농, 농촌융복합산업 등 각 정책 영역별 창업 경영체들이 창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교영(2017)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 활성화형,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형, 지역 사회 서비스형 등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논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협업의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들의 성장 단계별 특징을 분석한 김정태(2016)는 창업 후 경영체 운영 기간은 경영 활동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습득과 비례하며 성장 단계에 따라 경영체 특성의 작용이 달라짐을 밝히고, 농가경영체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부 지원과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동필 외(2002)는 농업 벤처의 성장 단계를 사업계획, 창업, 성장·발전 단계로 나눠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산업 관련 창업 외에도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창업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수행 외(2017)는 농촌에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 서비스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공유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업 추진과 지역의 가치사슬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창출 비즈니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승용 외(2018)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등이 설립되면서 면이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의 경영체 증가가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밝혔다. 마쓰나가 게이코(2017)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지역의 과제해결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향이 농어촌이나 지방도시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농촌에서 일어나는 창업활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에서 창업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착근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부족한 생활 서비스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직간접 파급효과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2.2. 농촌 창업 기업들의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농업·농촌 창업 관련 연구들은 특정 유형의 창업 경영체들이 창업 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상표 외(2013)는 농촌 창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기업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창업주의 혁신역량으로 대변되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를 증진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농촌 창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회적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Freire-Gibb & Nielsen(2014)은 도시 및 농촌 창업 기업의 성과 창출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농촌에서 창업한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 1-1〉 선행연구의 농촌 창업 활동 특성

	일반적인 창업 특성	농촌 창업 특성
산업 부문	첨단 산업, 신산업 중심, 동일 산업 내 기술 기반 생산 영역 중심	농식품, 농촌 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 서비스 영역
입지 특성	도심, (지식)산업단지, 대학 등 거점 중심	소규모 거점, 개별·분산 입지
창업 성과	매출, 고용, 지적 재산권, 엑시트, IPO 등 개별 경영체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	일반적인 창업 특성 외 +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회·생활 서비스 제공
성과 창출 요인	기업가 정신, 혁신 역량, 경영 역량,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 혁신 역량, 경영 역량, 네트워크 +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협력
지원 수단	창업 경영체 대상 기술·경영 지원	기술·경영 지원 + 입지 제약 요인 극복, 지역사회 연계
정책 부문	(지역) 산업 육성 정책, 혁신 정책	지역 산업 육성 정책 + 지역 개발(귀농·귀촌 등) 정책

자료: 저자 작성.

2.3. 농촌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농촌 관련 창업 지원 정책은 6차산업 및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 및 정책 부족, 농식품 가공 이외의 서비스업 관련 창업 지원 부족, 창업 단계별 효율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였다.

추정완·허철무(2018)는 농업분야 창업을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창업 지원 정책 중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이 취약함을 강조하였다.

박지연 외(2016)에서는 정부부처의 농식품 부문 벤처창업 지원 사업은 홍보 부족, 추진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타 부처 창업 지원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편, 벤처창업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은 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을 위하여 R&D 강화, 벤처창업 지원네트워크 구축(기관별 역할 정립 및 조정), 맞춤형 자금지원시스템 구축, 창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정책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송정환 외(2016)는 6차산업 창업 지원 정책 분석 및 창업 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정책상으로는 창업에 대한 정의 부재, 6차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부족, 창업 기업 사업 추진 기관들의 역할 불명확 및 기능 부족으로 인한 주요 3차산업 창업 지원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표 1-2〉 선행연구의 농촌 창업 유형별 특징

	농식품 벤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지역 활성화
주요 산업 부문	농식품, 바이오, 소재, 화학	식품가공, 관광	사회복지 서비스, 생활 서비스
동종 부문과 비교	영세한 규모, 혁신 역량 낮음	시장과의 접근성 취약, 판로 개척의 어려움	사회 서비스 관련 발달 수준이 낮음
성공 요인	기업가 자질 및 경력, 기술역량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 제품 경쟁력 제고	지역, 관계적 기반 형성
농촌 입지 제약 요인	인력, 기술·지식 접근성	인력, 시장접근성	인력, 지자체의 지원 부족
지역 애로 사항	투자자들의 낮은 관심도	지원 기관 역할 불분명	인적 자원의 부족, 지원기관 미비
기존 지원 정책 한계	정책·사업 인지도 미비, 농업의 특수성 고려 부족	창업 정의 부재 창업 이후 지원 사업 부족 3차산업 창업 지원 미흡	소득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 비중이 높음
정책 수요 및 과제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 기관별 역할 배분 및 네트워크 형성	창업 초기 이후 시장 진입 지원, 지역단위 창업 지원 강화 등	지역단위 통합 지원, 인력 양성

자료: 저자 작성.

2.4.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영농창업·농식품벤처·6차산업 등 농산업 관련 주체 유형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나, 각 부문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 지역에서 창업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상호 관계를 밝히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촌 창업 기업의 성장 특성(네트워크)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 창업 경영체가 성장하는 과정은 입지한 지역의 창업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생태계 내에 착근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농촌 창업 관련 연구에서는 창업한 경영체들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지역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의 창업 환경이 창업 경영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음과 같은 농촌 창업 활동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창업의 양적 확대나 창업 경영체의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농촌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농촌 창업의 특성에 맞는 창업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농촌의 창업 경영체와 창업 환경 간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창업 경영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 창업 환경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대도시,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와 구분되는 농촌 창업 생태계의 특성을 밝히고 그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농식품벤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등 특정 창업 정책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농촌 창업 경영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에 입지한 농업·농촌 관련 창업 경영체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농촌 창업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창업한 경영체의 성장 경로와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업(관광, 체험 등) 관련 창업 기업체들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분석자료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촌에 입지하는 창업 경영체를 분석하였다. 신용정보기관의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촌에서 창업한 기업들을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과 및 생멸 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특정 산업 부문이나 사업 영역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 특성을 바탕으로 농촌 여건에 맞는 창업 단계별 농촌산업정책 전반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벤처 등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과제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정책 과제 및 정책 부문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창업의 법적 정의를 적용하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비롯한 창업 관련 지원 법률에 따르면 창업 기업은 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의미한다(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본 연구에서도 사업 시작 후 7년 이내의 기업을 창업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농촌’의 공간적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을 ‘농촌 창업’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농촌 창업의 생산 활동 범위는 농업·농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창업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김광선 외(2018)의 농촌 산업 분류를 적용하여 농·수·축·임산물, 지역 특산물, 문화·생태 자원 등 농업·농촌 관련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관광·유통 등의 서비스업의 창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원고 위탁 등을 활용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최신 창업 기업의 성장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와 일반적인 창업과 구분되는 농촌 창업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농촌 창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의 사업체 총조사 원시데이터를 수집하여 농촌 창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부문별 농촌 창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체 DB를 활용하였다.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기업 DB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에서 창업한 총 7만 2,323개의 경영체를 구분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 및 생명 실태, 성장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기업 DB 자료를 기반으로 생존 분석과 성장 요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명 및 성장 요인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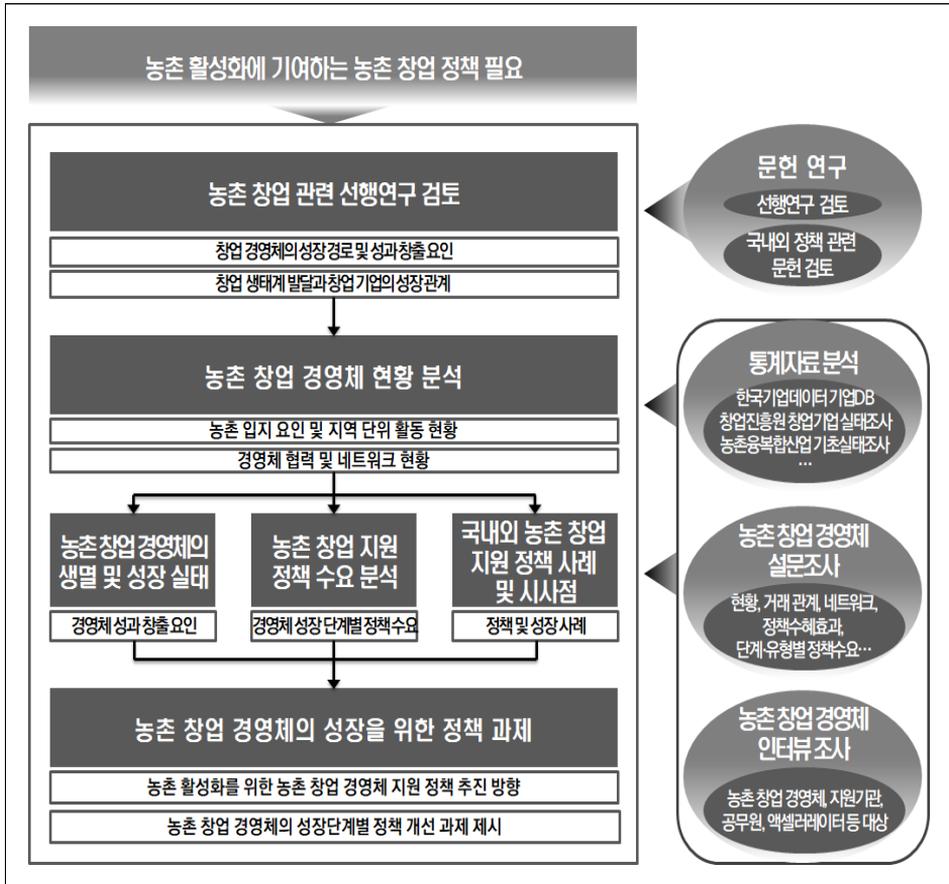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입지 요인과 생산활동의 특성 그리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0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 지역의 유형(읍·면)과 산업 부문(제조업·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경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창업 경영체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창업 지원 기관의 담당자와 농촌 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3. 연구추진 체계

연구추진 체계는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창업 생태계 특성과
농촌 창업 생태계**

창업 생태계 특성과 농촌 창업 생태계

1. 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과 창업 생태계

1.1. 창업 생태계 개념 및 구성요소

창업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창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창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거나, 창업 기업의 성장 요인과 이를 지원하는 창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창업 생태계의 개념하에 창업의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된 바 있다. Moore(1996)는 비즈니스 생태계(ecosystems of business) 개념을 차용하여 스타트업 생태계(ecosystems for start-up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기업·기술이 기존 조직 행태와 거래 방식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생태학의 공진화에 비견하여 분석하였다. Mazzarol(2014)은 창업 생태계를 정부 정책, 규제 등 제도적 환경, 물리적 인프라, 자금조달·금융, 멘토·자문 기관·지원시스템, 촉매제로서의 대학, 교육·훈련, 인적자원·인력, 지역·글로벌 시장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최근 기술발전 및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창업 생태계 구성요소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창업 생태계 연구 경향의 변화도 나타난

다. 특히 메이커스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등 유연한 생산요소와 네트워크 중개자 역할에 주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서진원·최종인 2019; 김선우 외 2015).

이와 같은 창업 생태계 연구들은 창업 지원 정책 및 환경의 평가·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한다. Isenberg(2011)는 창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요소들이 상호 관련 있음을 밝히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요소들의 개선과 더불어 상호 작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OECD(2018)는 기업가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시장 환경, 금융 접근성, 지식의 창조와 확산, 기업가적 역량, 문화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GEM(2019)은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제반 여건 평가를 목적으로 9개의 분야(재무환경, 정부 정책, 정부 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R&D 이전, 상업 및 서비스 하부 구조, 시장 개방성, 물리적 하부 구조, 문화)로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Gauthier et al.(2017)은 창업이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여 성과(기업가치 등), 투자 접근성과 질, 해외 시장 접근성, 인재, 창업 경험의 5가지 지표로 평가하여 도시 창업 생태계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우진 외(2019) 연구에서는 총 7개의 지표(정책, 재무적 환경,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와 22개의 하위 요인, 38개의 세부 요인을 측정 지표로 도출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를 대상으로 창업 환경이 창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1〉 창업 생태계 평가지표별 측정요소

측정 요소	지역 차원							국가 차원					
	이우진 외	Bab- son	CoC	GEDI	Rain forest	6+6	GSMA (ICT)	OECD	Doing Busin- ess	WEF	GEM	DRA	GETR
Policy	○	○	○	○		○	○	○	○	○	○	○	○
Finance	○	○	○	○	○		○	○		○	○	○	○
Infrastructure		○	○				○	○	○	○	○		○
Market	○	○		○	○		○	○			○	○	○
Human Capital	○	○	○	○	○	○	○	○		○	○	○	○
Support/Services /Connections	○	○	○	○		○	○	○		○	○		
Culture	○	○	○	○	○	○	○	○		○	○		○
R&D Innovation		○	○	○	○		○	○			○	○	
Quality of Life		○	○										
Macroeconomic Conditions			○					○					

자료: 이우진 외(2019).

창업이 가지는 지역 활성화 효과에 주목하여, 창업 생태계의 지리적 맥락을 고려한 지역 단위 창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문미성(2019)은 혁신성을 갖춘 창업 기업을 구분하여, 성장이 기대되는 신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Stratup Ecosystem)를 일반 창업 생태계와 구분하였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필연적으로 지리적 개념을 내포하므로 지역 단위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성철 외(2018)는 기술창업 기업의 입지 현황 및 입지 요인을 분석하고 창업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 입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대학, 도심지 등 특정 공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창업 정책 관련 입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재욱 외(2018)는 서울시 소재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이창구·서영욱(2018)은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지역 창업 생태계 관련 연구들은 주로 수도권을 비롯한 기존 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김정홍 외(2014)는 기술 창업 기업이 지역 혁신역량의 원천이자 지역 산업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창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 기술 창업 기업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도관(2017)은 지역 차원에서 통합적 창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삼중나선 모델을 적용하여 부산 지역의 창업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의 체계적 접근과 기술형 창업 지원, 활동 중심의 인재양성, 협업, 창업자의 혁신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김소민·정혜진(2017)은 지역 창업 활동의 쇠퇴지역 내 잠재적 사회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같은 지역 혁신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식 기반형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창업 정책 대상인 기술 기반 창업 외에도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나타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의 창업 생태계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성장 요인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이승규 2007; 선남이·박능후 2011; 이수창 2013; 홍효석 외 2016). 윤지훈 외(2017)는 창업 생태계 관점으로 소셜벤처 기업 생태계 초기 형성과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생태계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창업 생태계 연구와는 달리 소셜벤처의 초기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적, 관계적 기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재환·전혜진(2018)은 소셜벤처 창업 기업들의 성과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물리적 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2019)은 소셜벤처 판별과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적, 혁신성장성을 적용하여 창업 기업을 분석하였다.

1.2. 창업 생태계 관점의 창업 정책 추진 방안

창업 생태계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창업 지원 정책 관련 연구 중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정책 중 유사한 정책의 연계

및 통합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이성봉 2015; 이우진 외 2017; 최성안 2018). 이성봉(2015)은 정부 정책에서 다루는 창업 생태계는 크게 창업 주체들과 창업 지원 기관, 창업 관련 자금 지원 기관, 창업관련 자본시장(벤처기업이 상장된 주식시장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았으며, 국내 창업 지원 정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백화점식 열거주의를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유사 창업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히 창업자의 핵심창업역량 강화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보장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우진 외(2017)는 창업 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및 성장 단계에 민간의 적극적 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각 부처 창업 지원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성안(2018)은 1990년대 말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 제도의 변화와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정책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정책이 수립될 필요성과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들의 연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정책의 큰 방향뿐만 아니라 세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창업 생태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와 만족도 및 지원 정책 간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임길환·정유훈 2014; 박남규 외 2015; 조한나·김명진 2019). 임길환·정유훈(2014)은 벤처·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R&D,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의 창업교육, 자금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이 창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창업 지원 정책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환경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창업 지원 역할과 연계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김종웅·이우형(2017)의 연구에서 중앙정부는 창업 인프라를 포함한 창업 생

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세부 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기반 창업은 초기(스타트업) 단계뿐만 아니라 창업 후 생존을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1.3. 창업 기업 성장 과정과 창업 생태계

창업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은 창업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창업 후 생존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창업 기업의 실제 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밝혀내고 이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기업의 성장 및 기업 생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이명종·주영진(2019)은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 차원을 구분하고,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업활동의 영향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양현봉 외(2009)는 개인적 동기, 경제적 동기, 역량, 자금 등을 변수로 창업 기업의 경영 성과와 고용창출 요인을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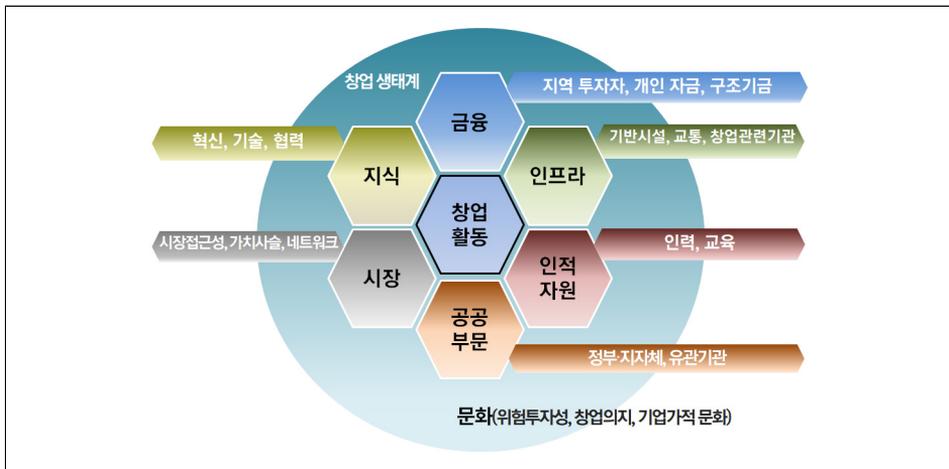
창업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창업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성장 경로와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 단계별로 상이한 기업 활동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한다. 박용린(2013)은 창업 기업을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 및 지원 수단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창업 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자본이 부족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게 되며, 이를 에퀴티 갭(Equity Gap)이라고 명명하였다. 박성호·양동우(2015)는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경영상 애로 사항의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2. 농촌 창업 활동 조사·분석 틀

본 연구는 농촌 창업 활동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최근 창업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창업 생태계 관점을 채택하였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의 효과에 주목하여 창업 경영체의 생존과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농촌의 창업 특성과 농촌 창업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농촌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각 요소들의 발달 정도 관점에서 현재 농촌 창업 환경을 살펴 보았다. 농촌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를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6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창업 보육 시설 등 물리적 공간과 교통·통신 여건을 포함하는 창업 인프라, 창업 관련 지식 및 기술 체계와 관련한 혁신 역량, 창업 경영체들의 가치사슬 형성, 창업 단계에서 경영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창업 금융, 창업가를 비롯한 인력 그리고 정부·지자체 정책과 창업 지원 기관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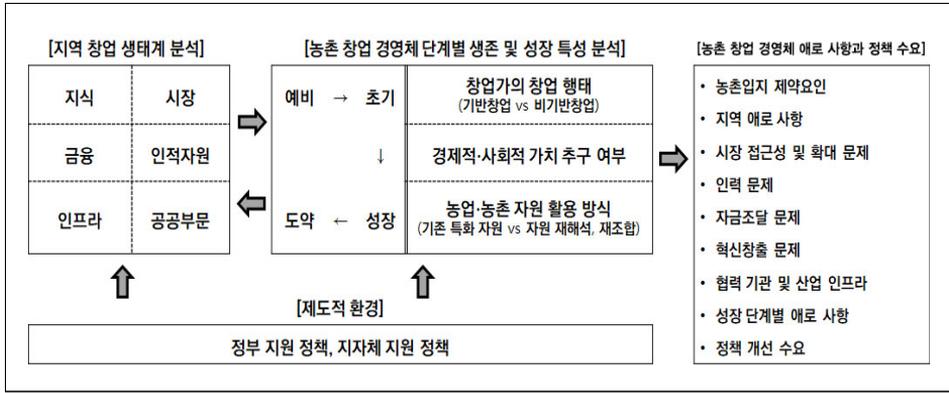
〈그림 2-1〉 농촌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자료: 저자 작성.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농촌에 입지한 창업 경영체의 출현, 성장, 생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농촌 창업 생태계의 상대적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 창업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때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을 창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창업 경영체 대표자와 지원 기관 전문가가 체감하는 농촌 창업 생태계의 상대적 발달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림 2-2〉 연구의 조사·분석틀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농촌 창업 활동 현황과 특징

농촌 창업 활동 현황과 특징

1. 농촌 창업 현황

1.1. 농업·농촌 관련 창업 경영체 변화

농촌의 창업 활동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 사업체총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에서 창업한 사업체 및 고용 인원수를 도시와 비교하였다. 2010년 대비 2015년의 창업 경영체 및 종사자 수 변화율, 2015년 대비 2018년 변화율, 2010년 대비 2018년 변화율로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¹⁾ 농촌 창업 경영체는 ‘읍·면’에 위치한 사업체이고, 도시 창업 경영체는 ‘동’에 위치한 사업체이다.

도시와 농촌의 창업 업체수와 고용 인원수 변화율을 보면, 농촌에서 창업 경영체 수와 고용 인원수 증가율이 도시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비교 기간 모두 농촌이 도시보다 기창업 경영체와 창업 경영체 수, 고용 인원수의 증가율이 크다.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창업 경영체 수가 농촌에서 38.28% 증가하였고 도

1) 변화율은 비교가 되는 연도의 기저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농촌과 도시 창업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절대치보다는 변화율을 이용하였다.

시에서는 11.37% 증가하였으며, 창업 경영체에서 고용한 인원수는 농촌에서 40.82% 증가하였고, 도시에서는 24.48%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창업 경영체와 고용 인원이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 창업한 경영체와 고용 인원이 각 11.92%, 15.11% 감소한 반면, 농촌에서는 각 4.73%, 4.45% 감소하여 도시보다 농촌에서 창업과 이를 통한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2010년 대비 도시에서 창업 업체 수가 1.95% 감소하였는데, 농촌에서는 24.10% 증가하였다. 고용 인원은 농촌에서 25.68% 증가하였는데, 도시에서는 5.37% 증가에 그쳤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2010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창업과 고용 창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도시보다 농촌에서 창업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편린이라고 판단된다.

〈표 3-1〉 2010~2018년 지역별 창업 및 기창업 업체 수와 고용 인원수 변화

단위: %

연도	지역	업체 수			고용 인원수		
		기창업	창업	기업수 계	기창업 업체 고용 인원	창업 업체 고용 인원	고용 인원 계
'10~'15	농촌	22.22	38.28	24.11	33.59	40.82	34.12
	도시	14.45	11.37	13.99	18.54	24.48	19.06
	계	15.87	15.21	15.77	21.12	26.84	21.61
'15~'18	농촌	12.15	-4.73	9.93	10.57	-4.45	9.42
	도시	8.02	-11.92	5.07	7.82	-15.11	0.00
	계	8.82	-10.69	5.99	8.34	-13.41	1.76
'10~'18	농촌	27.05	24.10	26.71	32.30	25.68	31.86
	도시	19.12	-1.95	16.50	21.75	5.37	16.01
	계	20.69	2.82	18.50	23.79	8.96	19.19

주 1) 송미령 외(2020)의 〈표 2-7〉, 〈표 2-8〉을 참조하였음.

2) 창업 기업은 2010, 2015, 2018년에 창업한 기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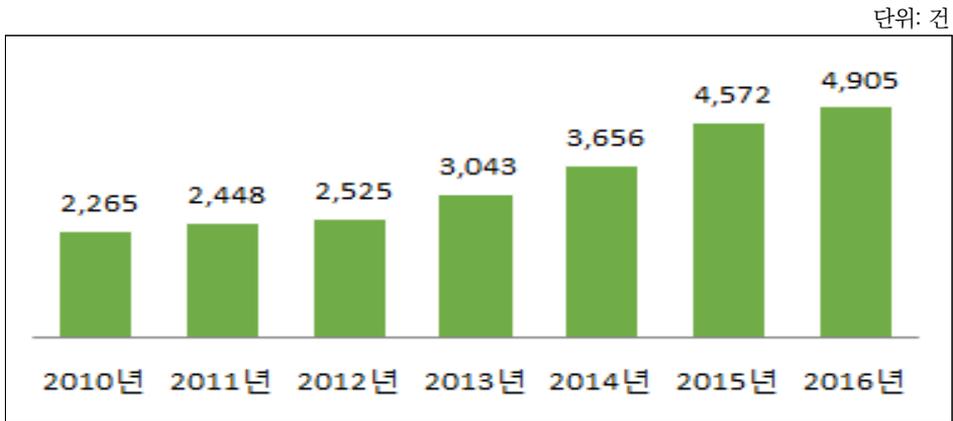
3) 기창업 기업은 조사 연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을 말함. 예를 들어 2010년 기준 2009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임.

4) 변화율은 기준 연도 대비 비율임. 예를 들어 2010~2015년의 고용인수 변화율은 (2015년 고용인수 - 2010년 고용인수)/(2010년 고용인수)임.

자료: 통계청(2010, 2015, 2018). 전국 사업체 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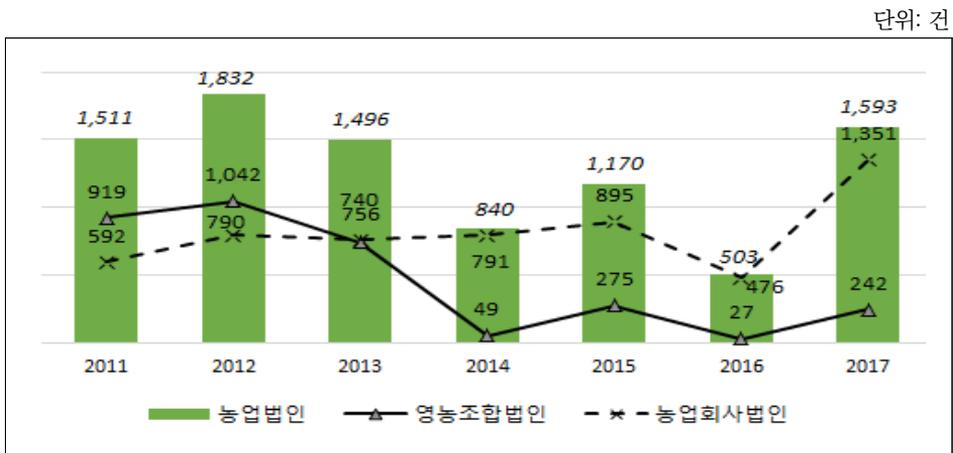
산업별 농촌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을 비롯한 농촌산업 관련 창업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식품산업의 창업은 연평균 약 13.7%의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다.²⁾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의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회사법인은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연평균 14.7%가량 창업하는 경영체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농식품산업 창업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19)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 농업법인 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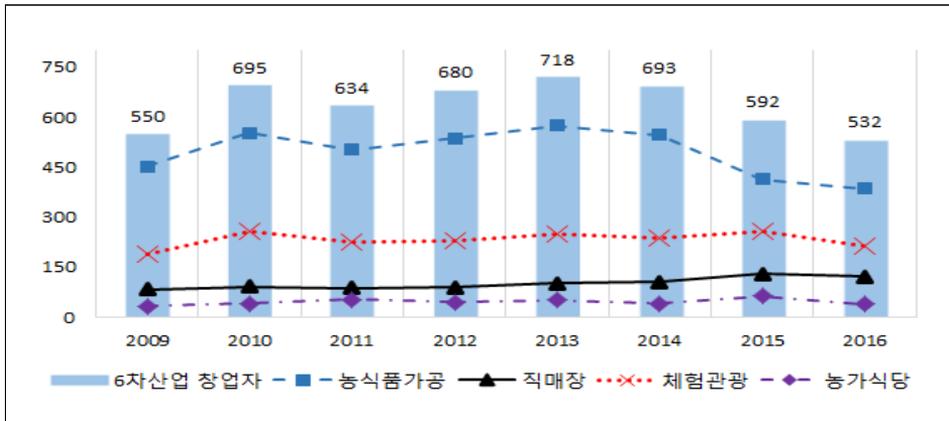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2)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농업, 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을 농식품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부문의 창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림식품분야 6차산업 경영체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5,094개소, 평균 연 630개소가 새롭게 창업하였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농식품 가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험 관광, 직매장, 농가식당의 순이다.³⁾ 창업 경영체는 일반사업자(41.6%)와 농업법인(29.8%)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농업인(18.0%), 마을공동체(4.5%), 농협(3.5%) 순이다.

〈그림 3-3〉 6차산업 창업 경영체 현황(2009~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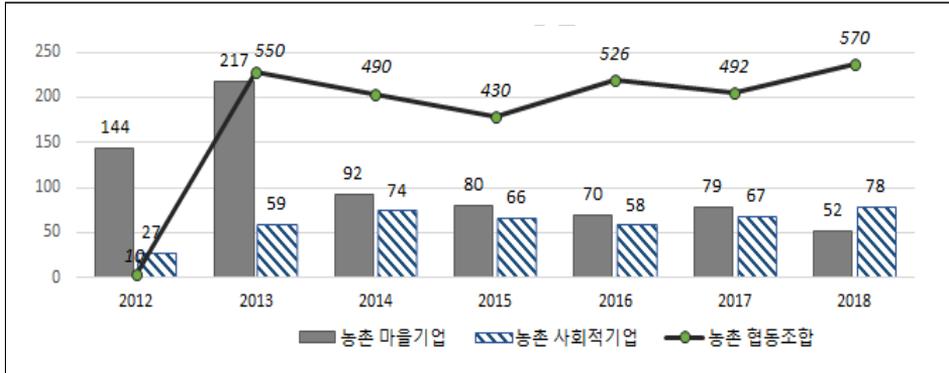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2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창업의 다른 형태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후 농촌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창업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연간 500여 개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연간 약 60여 개소 이상 증가하고 있다.⁴⁾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 중 상법상 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76.7%), 비영리기업은 23.3%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영농(어)조합법인(73.2%)의 형태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상법상 회사 13.7%, 협동조합 3.9%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3)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6차산업 참여 경영체 모수는 각 도 및 시·군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4)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첫 인증 및 지정 연도를 창업 연도로 분석하였다.

〈그림 3-4〉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 농촌 창업 경영체 현황

한국기업데이터⁵⁾의 DB를 이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 및 생멸 실태, 성장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2020년 5월 기준이고, 분석 대상은 농촌(읍, 면)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창업 경영체 중 농촌 창업 산업 부문⁶⁾에 해당하는 총 7만 2,323개의 창업 경영체이다.

2010~2020년 중반까지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 중에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 7만 2,323곳 중 도소매업, 제조업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 비중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한국기업데이터(KED)의 데이터는 일반법인 및 공시 의무가 없는 기업 등 약 480만 기업(누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도 기업 생멸 검증 등에 사용하기도 하며, 기업 개요 및 현황, 재무 정보 등을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전체 사업체수는 통계를 생성하는 기관 및 목적 등에 따라 제각각으로 집계되어 일관된 정보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농촌의 창업 활동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6) 김광선 외(2018), 박지연 외(2016)에서 정의한 농촌 산업의 범위를 준용하였다.

〈표 3-2〉 농촌 창업 기업 산업별 분포(201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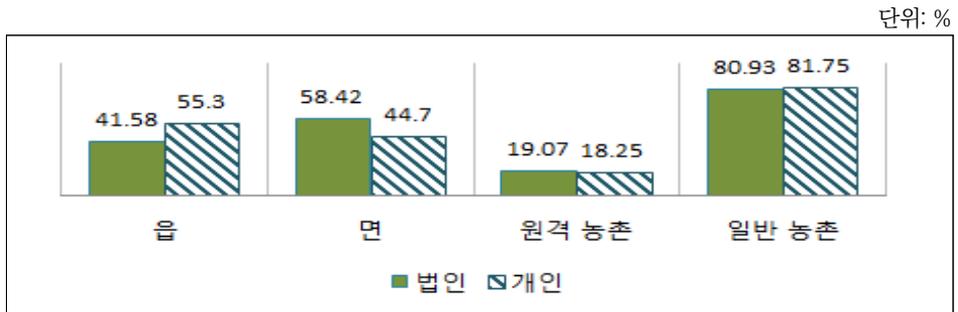
단위: 개소, %

산업분류	전체	비율
농림어업(A)	4,880	6.7
제조업(C)	19,197	26.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118	0.2
도매 및 소매업(G)	20,633	28.5
숙박업 및 음식점업(I)	3,238	4.5
정보통신업(J)	2,116	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7,566	1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7,684	1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6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936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5,949	8.2
합계	72,323	10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0년 이후 창업한 경영체는 농촌 지역 내에서도 원격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도시와 인접한 농촌 지역⁷⁾을 선호하며,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와 경상도, 충청도, 전남도가 창업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다. 법인은 면 지역에 위치하는 비중이 큰 데 반해 개인 경영체는 서비스 대상인 소비자가 몰려있는 읍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경영체 형태별 입지 지역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7) 이 장에서 원격 농촌과 일반 농촌에 대한 구분은 정도채 외(2019)의 지역 구분을 활용하였다.

창업 경영체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어 창업 지역과 기업 유형에 따른 입지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생산 및 서비스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제조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저렴한 면 단위에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 서비스업은 주요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은 읍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 주요 업종별 창업 경영체 입지 지역 및 기업 유형

단위: %

산업분류	읍·면 구분		지역 구분 ⁸⁾		기업 유형	
	읍	면	원격농촌	농촌	개인	법인
제조업(C)	36.3	63.7	18.3	81.7	19.6	8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8.6	51.4	18.7	81.3	20.2	7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62.6	37.4	16.7	83.3	74.0	26.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농촌 창업 경영체 생멸 현황 및 생존 요인

2.1. 농촌 창업 경영체 휴폐업 및 생존 현황

한국기업데이터의 DB를 이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 및 생멸 실태를 파악하였다.⁹⁾ 분석 기간은 앞 절과 동일하게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이고, 총 7

8) 정도채 외(2019)의 지역 구분을 적용하여 접근성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농촌과 원격 농촌을 구분하였다.

9) 특정 연도 기업의 생멸에 대한 공적인 통계 자료는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가 있다. 기업생멸행정 통계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세부 원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공적 통계 자료로는 ‘창업기업실태조사’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MDIS에서 원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나 2019년에 모집단이 변경되어서 2019년의 자료만 획득이 가능하고, 2018년까지의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모집단이 변경되면 시계열로 비교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생존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별로 부여된 코드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 기업이 생존했는지 폐업했는지를 알 수 없다.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 자료는 창업 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만 2,323개의 창업 업체 중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5만 1,325개의 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이후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 중 2020년 5월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71.6%이다. 사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전문·기술 서비스업의 생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고, 여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 및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3-4〉 농촌 창업 경영체 산업 부문별 생존율

단위: 개소, %

산업분류	전체	생존	휴폐업	생존율
전체	51,325	36,754	14,571	71.6
농림어업(A)	3,261	3,146	115	96.5
제조업(C)	12,485	9,384	3,101	75.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76	67	9	88.2
도매 및 소매업(G)	16,623	11,483	5,140	69.1
숙박업 및 음식점업(I)	2,638	1,762	876	66.8
정보통신업(J)	1,197	861	336	7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816	3,740	1,076	77.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4,760	3,311	1,449	69.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5	4	1	8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16	264	152	6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5,048	2,732	2,316	54.1

주: 휴폐업 기준은 2020년 5월 기준, 국세청 휴폐업 신고를 완료한 기업.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동일한 산업 부문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에 차이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농촌 창업 경영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존율도 높은(75.2%) 제조업 창업 경영체의 세부 업종별 휴폐업률을 비교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

조사한 방대한 자료이다. 단, 이 자료에는 창업 업체의 특성과 생존,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대표의 직전 경력 등에 대한 것은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약품제조업(12.9%)과 비료, 농약 제조업(19.5%)의 휴폐업률이 낮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촌산업 부문으로 볼 수 있는 유지제조업(30.2%), 기타식품제조업(28.9%), 낙농제품 및 빙과류 제조업(28.6%) 등의 휴폐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표 3-5〉 제조업 부문별 휴폐업률(세분류 기준)

단위: 개소, %

산업분류	전체	생존	휴폐업	휴폐업률
제조업(C)	12,485	9,384	3,101	24.8
C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51	858	293	25.5
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831	646	185	22.3
C103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56	1,670	486	22.5
C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39	97	42	30.2
C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63	45	18	28.6
C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637	507	130	20.4
C107 기타 식품 제조업	3,908	2,777	1,131	28.9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329	250	79	24.0
C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243	182	61	25.1
C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73	201	72	26.4
C120 담배 제조업	5	3	2	40.0
C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43	194	49	20.2
C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848	651	197	23.2
C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435	330	105	24.1
C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497	400	97	19.5
C212 의약품 제조업	85	74	11	12.9
C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639	496	143	22.4
C303 자동차 부품 부품 제조업	3	3	0	0

주: 휴폐업 기준은 2020년 5월 기준, 국세청 휴폐업 신고를 완료한 기업.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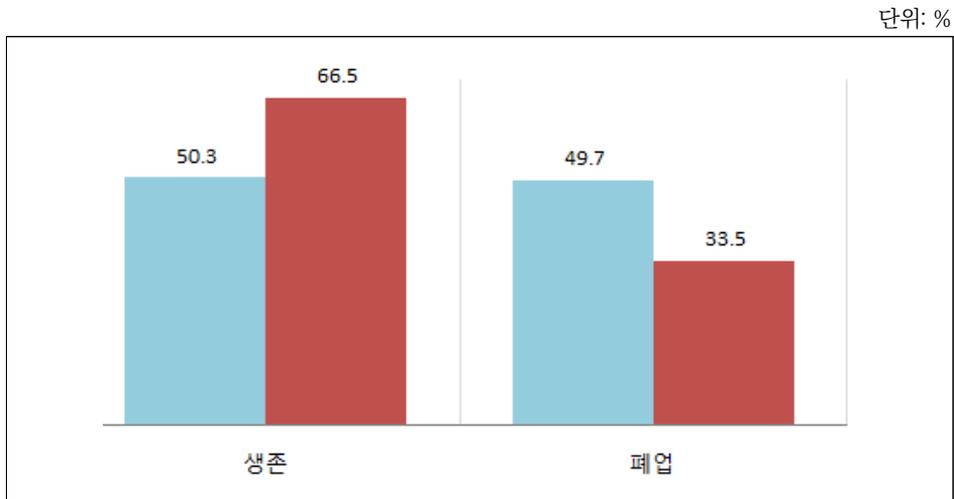
한편 농촌 지역에 창업한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인 양로복지시설과 노인요양 복지시설의 휴폐업률(50.0%, 48.1%)이 평균(36.5%)보다 높다. 하지만 방문과 상담, 아동과 직업재활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생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의 생존율이 도시를 포함한 전

국에서 창업한 경영체의 생존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창업한 경영체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생존율은 50.3%였으나, 같은 시기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은 66.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죽음의 계곡이라 일컬어지는 3년 내 폐업률이 그 이후(4년 이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년 이후 폐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과 전국 창업 경영체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입지한 곳의 지대 등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대표자의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 창업의 동기 등이 도시와 농촌 창업 경영체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에서 창업한 경영체의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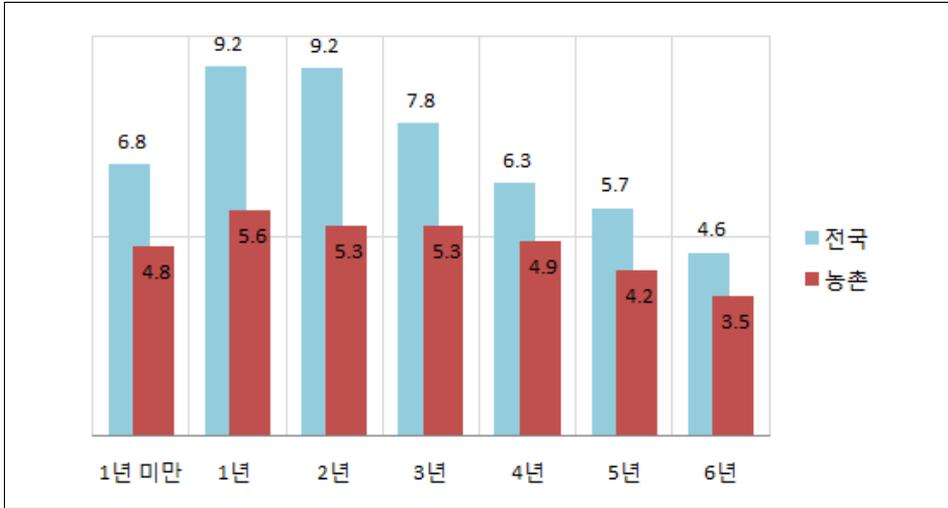
〈그림 3-6〉 농촌과 전국의 창업 경영체 생존율



주: 좌측은 전국 평균, 우측은 농촌 평균임.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창업 후 경과 기간별 농촌과 전국 창업 경영체 폐업률

단위: %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농촌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생산자 서비스업 관련 농촌 창업 경영체의 창업 이후 기간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의 생존률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창업한 농촌 산업 관련 전국 제조업체의 6년 내 누적 폐업률은 41.8%였으나 농촌에 입지한 제조업체의 폐업률은 29.7%에 불과하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회 복지 서비스업 또한 제조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폐업률을 보이며,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에 따라 경향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년 이후 폐업률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표 3-6〉 산업별 전국과 농촌 창업 경영체 휴폐업을 비교

단위: %

산업별 폐업률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미만 누적
		제조업	전국	3.5	6.7	8.3	7.0	5.9	6.0
	농촌	2.7	3.8	5.3	5.3	5.1	4.7	2.8	2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국	6.3	6.8	7.4	6.7	5.7	5.5	4.0	38.4
	농촌	9.4	5.5	3.2	3.4	2.1	3.6	3.4	2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국	5.7	9.4	10.1	13.8	5.5	2.6	3.9	47.1
	농촌	5.6	7.1	8.7	8.7	6.3	2.4	1.6	3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국	8.5	13.6	13.0	10.7	9.7	7.1	5.4	62.6
	농촌	7.0	13.4	8.0	7.5	8.7	6.6	5.2	51.2

주: 휴폐업 기준은 2020년 5월 기준, 국세청 휴폐업 신고를 완료한 기업.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2.2. 농촌 창업 경영체 유형별 생멸 특성

농촌 창업 경영체를 법인과 개인 업체로 나누어서 비교하면 법인의 생존율이 개인 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창업한 법인 경영체 생존율은 62.6%인 반면, 개인 사업체 생존율은 43.8%에 불과하며, 이는 창업 연도와 상관 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3-7〉 창업 경영체 유형별 창업 연도별 생존율

단위: %

구분	창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법인 생존율	62.6	67.4	70.8	77.8	81.6	88.7	90.5	92.3	94.2	98.8
개인 생존율	43.8	50.1	51.7	55.6	58.2	63.8	68.9	76.0	83.9	93.9

주: 생존율은 2020년 5월 기준,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 중 창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10년 창업한 법인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비율이 62.6%이며,

2011년 창업한 법인 중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은 67.41%임.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법인 경영체의 산업 부문별 비중을 보면,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경영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농림어업 부문의 창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2010년과 2015년 농촌에서 창업한 법인 경영체의 특성을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 활동이 활발하며,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 농림어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은 농촌에서 가장 활발히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임에도 타 산업에 비해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3-8〉 2010년, 2015년 농촌 창업 법인의 산업별 비중

단위: %

산업분류	2010년 창업 법인	2015년 창업 법인
농림어업	7.9	11.2
제조업	36.6	3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2	0.2
도매 및 소매업	29.7	28.9
숙박업 및 음식점업	1.1	1.7
정보통신업	2.9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1	1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3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9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	1.9

주: 해당 연도 농촌에서 창업한 기업들의 산업별 비중.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2010년, 2015년 농촌 창업 법인의 산업별 생존율

단위: %

산업분류	2010년 창업 법인 생존율	2015년 창업 법인 생존율
농림어업(A)	98.9	95.9
제조업(C)	73.9	90.7
도매 및 소매업(G)	76.7	88.3
숙박업 및 음식점업(I)	75.0	86.2
정보통신업(J)	78.8	9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84.3	90.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81.1	9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70.6	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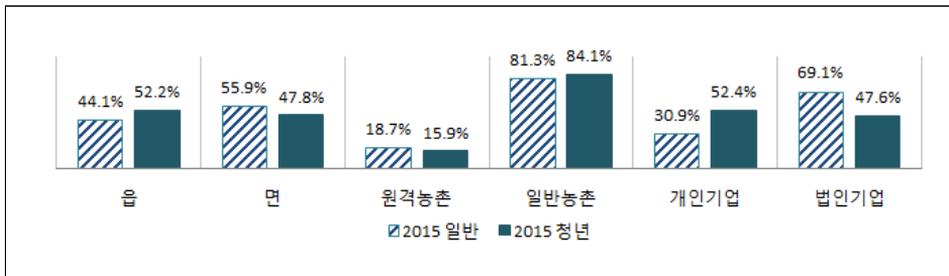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농촌 창업 법인 경영체의 매출 증가는 창업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에 창업한 법인체 모두 창업 2년차 이후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창업 경영체를 보면, 정부 창업 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창업 후 7~8년 시기에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3. 창업주 특성에 따른 농촌 창업 경영체 현황

최근 다수의 정부 창업 정책이 청년 창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의 역량에 기대어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2015년에 창업한 경영체를 청년 창업자와 일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년 창업자는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다양한 읍 지역에서 개인 사업 형태로 창업하는 반면, 일반 창업은 면 지역의 창업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원격 농촌에서 창업을 하는 비중이 일반 농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창업주별 입지 지역과 기업 형태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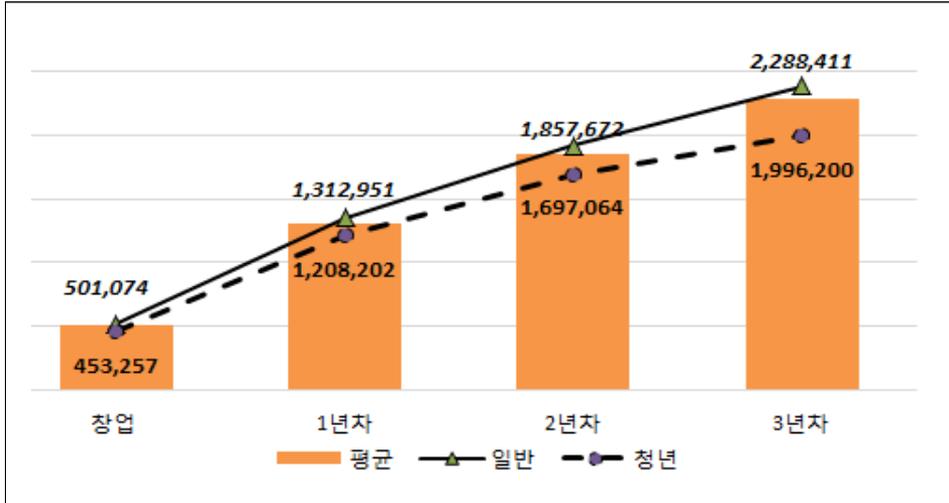
청년 창업 경영체와 일반 창업 업체의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청년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청년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과 일반 창업 업체의 매출액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2015년에 창업한 경영체 중 청년 창업주 경영체의 생존율은 70.8%로 일반 경영체 생존율 78.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청년 창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 대표자들은 창업과 관련된 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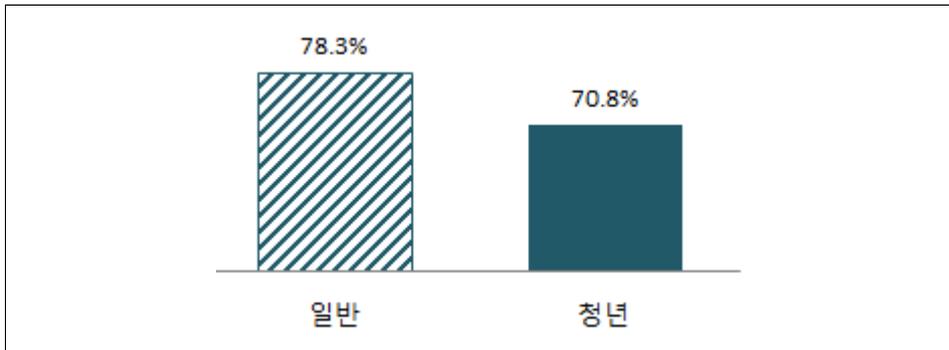
〈그림 3-9〉 창업주별 창업 초기 매출액

단위: 천 원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 창업주별 경영체 생존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창업주의 역량과 기업의 생존을 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015년 창업한 법인 경영체 중 창업주의 창업 전 동종업계 종사 기간을 비교한 결과, 2020년 5월 까지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영체의 경우 창업 전 종사 기간이 7.1년이었으나, 휴폐업한 기업의 경우 4.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생존 및 휴폐업 법인 경영체 창업주 종사 시간 비교

단위: 년

대표자 동종계 종사 기간	생존기업	휴폐업 기업
2015년 창업 기업	7.1	4.1
2010년 창업 기업	9.4	7.5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2.4.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 요인 분석

한국기업데이터의 DB를 이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 여부 분석 대상 기간은 앞과 동일하게 2010~2020년 5월까지이다. 생존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창업 경영체는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창업한 총 7만 2,323개의 경영체에서 휴폐업 여부, 대표자 나이에 대한 자료가 결측되거나 오기입된 관측치와 휴업 경영체를 제외한¹⁰⁾ 총 5만 913개를 추렸다. 두 번째로 2020년에 창업한 경영체는 사업 실적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요인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 대분류에서 농림어업(A)은 1차 산업을 수행하는 경영체이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생존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농촌 창업 경영체는 총 4만 7,567개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4만 7,567개의 농촌 창업 경영체 중 2020년에 생존하고 있는 경영체는 3만 3,344개로 총 70.1%이며, 폐업한 경영체는 1만 4,223개로 29.9%를 차지하고 있다.

10) 휴업 경영체는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을 하지 않는 경영체로 이러한 경영체가 폐업 혹은 경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생존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의학 분야에서 특정 질병을 보유한 환자에게 특정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환자의 생존 확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생존 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생존 분석은 대표자, 시장, 기업 입지 등의 특성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이용된다(임채운 외 2008; 항정태 2011; 류준영 외 2014; 이창효 2017).

생존 분석에서는 특정 시기에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연구에서는 폐업)을 $f(t)$ 로 정의하고, 생존함수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t) = pr(T > t) = 1 - \int_0^t f(t) dt = 1 - F(t)$$

여기서 $F(t)$ 는 $f(t)$ 의 누적분포함수이고, $S(t)$ 는 t 기간후에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기간에 생존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케플란-마이어(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였다.

위의 생존함수를 직접 추정하는 것보다는 특정 이벤트가 생존할 확률 대비 어느 정도 확률로 발생하느냐를 의미하는 위험함수(Hazard function)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위험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t) = \frac{f(t)}{S(t)}$$

위험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콕스 위험 비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h(t|X) = h_0(t)g(X\beta)$$

여기서 $h_0(t)$ 는 비교 대상이 되는 처리가 없을 때(대조군)의 위험확률이고, X 는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행렬이며 β 는 추정 모수이다. 위의 $h(t|X)$ 는 확률이므로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통상 지수분포를 가정한다.¹¹⁾ 위험비례모형은 최우추정법을 사용해서 추정한다.

11) 이 외에도 웨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가정하기도 한다.

각 조건(설명변수)별 위험확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콕스 위험비례모형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각 특정 조건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몇 배인가를 보여준다. 콕스 위험비례모형에서 위험 확률의 비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rac{h(t|X^1)}{h(t|X^0)} = \frac{h_0(t)\exp(X^1\beta)}{h_0(t)\exp(X^0\beta)} = \exp(\beta(X^1 - X^0))$$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는 경영체를 대조군으로 하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경영체를 실험군으로 하였을 때, 위의 위험확률비례가 1보다 크면 창업 경영체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을 때보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을 때 다음 1년 동안 폐업할 확률이 더 크다. 그에 반해, 1보다 작으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창업 경영체가 그렇지 않은 창업 경영체보다 다음 1년 동안 폐업할 확률이 더 작다. 위험확률비례 추정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추정치가 1.2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창업 경영체의 폐업 확률에 비해 농촌에 입지한 창업 경영체의 폐업 확률이 1.2배, 즉 20%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생존 기간은 창업 경영체의 창업 연도에서 폐업 연도까지로 단위는 ‘년’이다. 단, 분석 대상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을 분석 기간의 끝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창업해서 2020년까지 폐업을 하지 않은 창업 경영체의 생존 기간은 8년이다. 이 경우 2020년까지 폐업하지 않은 기업은 폐업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생존 기간에서 오른쪽 중도절단(Right censoring)이 나타나고, 생존 분석을 할 때에는 중도절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창업 경영체가 2020년에 모두 폐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의 생존율이 과소 추정된다. 생존 여부에 대한 변수는 폐업한 경영체 1만 4,223개는 0으로 부여하였고, 계속 경영을 하는 경영체는 1로 하였다.

창업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요인 변수는 경영체의 실적, 창업자의 특성, 혁신과 관련된 기업의 역량, 외부와의 연계 정도, 외부 환경, 벤처캐피탈의 투자 여부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임채운 외(2008)는 기

존 국내외 벤처 기업의 생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생존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벤처 기업의 생존 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는 크게 창업자의 특성(성별, 창업 당시 나이, 창업자 전공, 창업 이전 근무지), 기업의 재무 현황(매출액, 종업원 수, 자본금, 고정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부채총계, 종업원당 부가가치), 기업 역량(산업 평균 대비 경영체의 연구 집약도, 산업 평균 대비 경영체의 연구 인력 집약도, 종업원 수 당 기술혁신건수, 대학/국가기관/민간 연구기관/대기업/타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 여부), 외부 환경(실업률, 실질이자율, 최소효율규모, 시장집중도, 시장진입률), 벤처캐피탈 투자 여부이다. 황정태(2011)는 경영체의 혁신 여부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혁신변수(신제품 여부, 개선된 제품 여부, 서비스 개선 여부, 생산 공정 혁신 여부, 마케팅 혁신 여부, 조직 혁신 여부), 산업특성 변수(저기술, 중저기술, 중고기술, 고기술), 기업 성과(일인당 매출액, 일인당 순이익)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류준영 외(2014)는 서울에 입지한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용한 설명변수는 기업특성(산업유형, 수출입 여부, 벤처여부, 기업규모), 지역 특성(도심지역 여부, 입지계수, 다양성 지수) 변수가 있다. 이창효(2017)는 신생 기업이 입지한 지역의 산업활동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업 속성 변수(근로자 수, 벤처기업 여부, 외국인 투자 여부), 집적 경제와 관련된 변수(전문화, 다양화, 경쟁 정도), 산업 특성 변수, 거시 경제 조건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앞선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 변수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변수,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경영체의 혁신과 관련된 변수,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거시 경제 여건과 관련된 변수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체의 성과와 관련된 설명 변수로는 매출액, 종업원 수, 부채 등 재무 관련 지표가 있고,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창업자의 나이, 학력, 창업 이전 근무지와 경력이 있다. 혁신과 관련된 변수로는 연구개발 집약도, 신제품, 조직 변화 등의 여부가 있다. 그리고 산업 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거시 경제 조건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차로 한국기업데이터 DB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로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창업자 특성, 혁신 관련 자료, 산업 특성, 거시 경제 여건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영체가 받은 보조금액도 변수로 포함하였다.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와 관련된 변수로는 매출액, 종업원 수, 부채 비율을 선정하였다. 매출액과 종업원 수는 경영체의 성과와 밀접한 변수로 선행 연구에서도 이 변수가 높으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변수이다.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 창업자의 나이를 고려하였다. 선행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표의 관련 경험 및 동종업계 종사 기간이 경영체의 생존과 밀접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창업자의 경험 및 동종업계 종사 기간은 창업 초기 단계 실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임채운 외 2008). 따라서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을 설명 변수로 선정하였다. 황정태(2011)는 조사 기간 동안 경영체에서 실제로 혁신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혁신과 관련된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영체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이노비즈 인증 유무, 벤처 인증 유무,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연구개발 투자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추가로 정부의 지원 여부가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영체가 수령한 연도별 보조금액의 합을 설명 변수로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 경영체의 생존은 해당 산업 부문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대리하는 변수로 산업 대분류 기준 경영체의 산업 분류를 더미 변수로 사용하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앞의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연도별로 상이한 경제 여건은 창업 경영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 경영체의 창업 연도에 더미 변수를 사용해서 거시 경제 여건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11〉 생존 분석에 요인으로 고려된 변수(1차)

단위: 년

구분	세부변수	설명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매출액	조사 대상 기간 매출액 합을 log 변환
	종업원수	조사 대상 기간 종업원 수 합을 log 변환
	부채 비율	조사 대상 기간 부채비율의 합
창업자 특성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월 기준
	창업자 나이	조사 시점 창업자의 나이
혁신 관련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0 = 무, 1 = 유
	이노비즈 인증 유무	0 = 무, 1 = 유
	벤처 인증 유무	0 = 무, 1 = 유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0 = 무, 1 = 유
	연구개발 투자비	조사 대상 기간 연구개발비의 합을 log 변환
정부 지원	수령한 보조금	조사 대상 기간 수령한 보조금의 합
산업 특성	산업대분류	농림수산(A)을 제외한 산업 대분류에 더미 변수 부여 제조업(C)은 기본으로 더미 변수를 부여하지 않음.
거시경제 여건	창업 연도	경영체의 창업 연도에 더미 변수 부여 2010년은 기본 연도로 더미 변수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콕스 비례위험모형에서는 각 변수의 단계별로 케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면, 비례성 가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임채윤 외 2008). 따라서 본격적으로 모형을 추정하기에 앞서 1차로 선정된 이산 변수의 비례성에 대해 검정을 해야 한다. 또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면 다른 변수의 추정치와 표준 오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임채윤 외 2008), 1차로 선정된 변수들에 대한 유의성 검정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산 설명 변수에 대해서 케플란-마이어 생존 확률의 그래프를 1차로 확인하고, 2차로 로그랭크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속 변수는 케플란-마이어 생존 확률 그래프의 작성이 어려우므로, 단일 변수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¹²⁾

유의성 검정 결과, 혁신 관련 변수로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이노비즈 인증 유무, 벤처 인증 유무,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는 모두 유의미하고 케플란-마이어 생존

12) 자세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곡선도 교차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수들은 관측치가 각 459건, 235건, 1,558건, 650건으로 전체 표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0.5%, 3.3%, 0.4%이다. 따라서 실제로 추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종합하여 혁신 관련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혁신 관련 더미 변수는 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 인증이 있거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최종적으로 콕스 비례 위험모형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생존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단위: 년

구분	세부변수	설명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매출액	조사 대상 기간 매출액 합을 log 변환
	종업원수	조사 대상 기간 종업원 수 합을 log 변환
	부채 비율	조사 대상 기간 부채비율의 합
창업자 특성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월 기준
	창업자 나이	조사 시점 창업자의 나이
혁신 관련	혁신 변수	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 인증이 있거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을 경우 = 1, 그렇지 않을 경우 = 0
	연구개발 투자비	조사 대상 기간 연구개발비의 합을 log 변환
정부 지원	수령한 보조금	조사 대상 기간 수령한 보조금의 합
산업 특성	산업대분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도매 및 소매업(G), 숙박업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에 더미 변수 부여 제조업(C)은 기본으로 더미 변수를 부여하지 않음.
거시경제 여건	창업 연도	경영체의 창업 연도에 더미 변수 부여 2010년은 기본 연도로 더미 변수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생존 분석에 사용된 피설명변수와 설명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생존 요인 분석 변수 기초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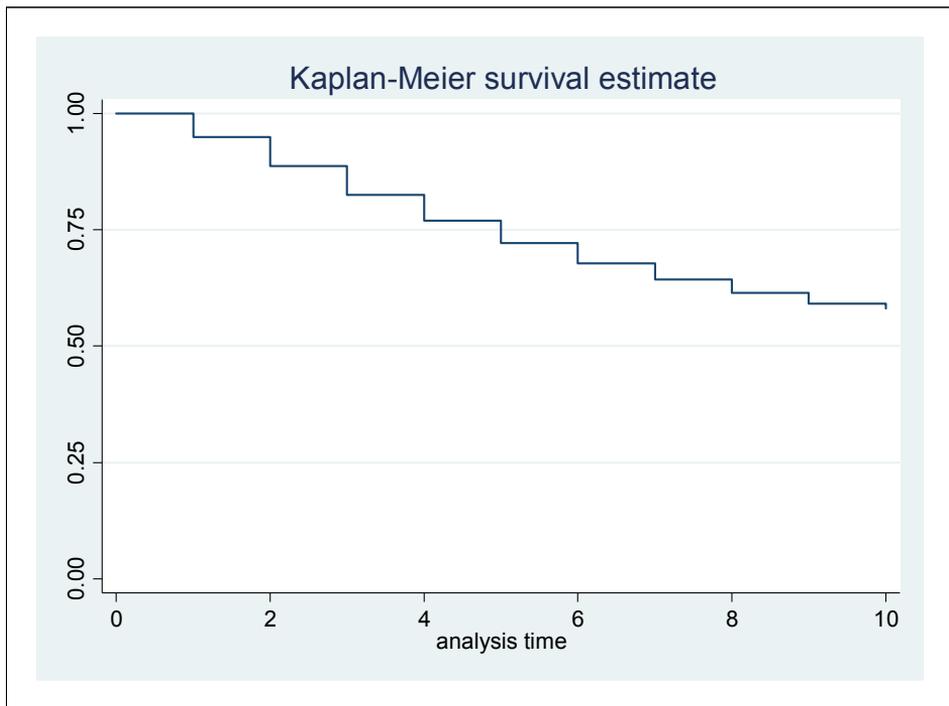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댓값	최솟값
폐업여부	0.701	0.458	1	0
log(매출액)	14.392	2.129	22.696	3.807
log(고용인 수)	1.928	1.533	9.917	0
부채비율	886.014	30,459.68	4,738,894	0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78.877	92.075	732	12
대표자 나이	51.036	10.369	106	22
혁신 변수	0.045	0.208	1	0
연구개발 투자비	40,793.95	5,305,347	1.16×10 ⁹	0
수령한 보조금	587.578	47,091.93	6,454,029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0.002	0.040	1	0
도매 및 소매업(G)	0.346	0.476	1	0
숙박업 및 음식점업(I)	0.055	0.228	1	0
정보통신업(J)	0.025	0.155	1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0.099	0.300	1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0.105	0.307	1	0
2011년	0.104	0.305	1	0
2012년	0.111	0.314	1	0
2013년	0.110	0.313	1	0
2014년	0.116	0.320	1	0
2015년	0.111	0.314	1	0
2016년	0.111	0.315	1	0
2017년	0.105	0.307	1	0
2018년	0.092	0.289	1	0
2019년	0.034	0.182	1	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먼저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 확률은 창업 1년 후 0.95이다. 그 후 2년차에는 0.89, 3년차 0.83, 4년차 0.77, 5년차 0.72, 6년차 0.68, 7년차 0.64, 8년차 0.61, 9년차 0.59, 10년차 0.58이다. <그림 3-7>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생존 분석에서는 휴업 경영체를 제외한 폐업만을 다루었고, <그림 3-7>에서는 휴업까지 포함한 휴폐업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에서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와도 차이가 있다. 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12.4%, 14.0%, 11.5%, 10.8%, 11.5%의 창업 경영체가 소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소멸 경영체 중 법인기업은 6.0%를 차지하고, 개인 경영체는 9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활동하지 않는 경영체 비중은 개인 경영체가 법인 경영체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가 법인 등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생멸행정통계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개인 경영체와 법인 경영체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전체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에는 활동하지 않는 경영체를 소멸로 간주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휴업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폐업한 경영체만을 폐업률로 나타낸 본 연구보다 폐업률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1〉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간별 생존 확률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생존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14>와 같다.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매출액이 1% 증가하면 창업 경영체가 폐업할 확률은 약 1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용인수가 1% 증가하면 농촌 창업 경영체가 폐업할 확률은 약 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채 비율은 1% 상승하면 폐업할 확률이 약 0.0000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부채 비율의 추정치는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표자의 동종업계 경험과 종사 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농촌 창업 경영체가 폐업할 확률이 약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표자의 나이는 증가할수록 폐업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 결과는 유의수준 10%에서 기각된다. 창업 경영체의 혁신 변수(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 인증과 기업 부설 연구소의 유무)가 창업 경영체의 폐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혁신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창업 경영체가 폐업할 확률이 약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비는 폐업 확률을 감소시키며, 정부의 보조금은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둘 다 유의 수준 10%에서 기각되었다.¹³⁾

다음으로 산업별 특성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G),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에 속한 창업 경영체가 제조업(C)에 비해 생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의 네 가지 산업 부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산업 부문은 유의 수준 10%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창업 경영체의 생존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시 경제 여건에 대한 추정 결과는 2017년에 창업한 경영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0년에 창업한 경영체와 통계적으로 폐업 확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018년의 위험확률 비례가 1보다 적게 추정된 것은 새로이 창업한 경영체가 1~3년 사이에 바로 폐업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에 창업한 경영체에 비해 생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13)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 연구개발 투자비와 보조금 수령액이 0보다 큰 것으로 관측되는 경영체의 수가 매우 적어, 이 두 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3-14〉 생존 요인 분석 결과

	변수	위험확률비례 추정치	p 값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log(매출액)	0.875	0.000
	log(고용인 수)	0.842	0.000
	부채비율	1.000	0.165
창업자 특성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0.998	0.000
	대표자 나이	1.003	0.416
혁신 관련	혁신 변수	0.635	0.001
	연구개발 투자비	1.000	0.522
정부 지원	수령한 보조금	1.000	0.665
산업 특성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0.467	0.448
	도매 및 소매업(G)	0.712	0.000
	숙박업 및 음식점업(I)	0.609	0.108
	정보통신업(J)	0.599	0.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0.604	0.0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0.851	0.616
거시경제 여건	2011년	1.065	0.625
	2012년	0.867	0.289
	2013년	0.929	0.594
	2014년	1.067	0.649
	2015년	0.972	0.866
	2016년	0.920	0.697
	2017년	0.413	0.026
	2018년	0.506	0.348
	2019년	0.000	1.00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농촌 창업 경영체 성장 현황 및 요인

3.1.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현황과 특성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기업데이터의 DB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이다.¹⁴⁾ 분석 대상은 앞 절의 생멸 분석대상인 5만 1,325개의 업체 중 창업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오기입된 경우와 2020년 기준 휴폐업한 업체를 제외한 3만 6,593개소이다. 2010년 대비 2019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성장률로 간주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는 9년 동안 연평균 약 7.89%씩 매출액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32.85%, 20.37%, 20.81%). 이에 반해 농림어업과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각 6.61%, 7.56%, 5.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5〉 농촌 창업 경영체 산업 부문별 성장률

단위: %

산업분류	성장률
전체	7.89
농림어업(A)	6.61
제조업(C)	7.56
도매 및 소매업(G)	14.80
숙박업 및 음식점업(I)	20.81
정보통신업(J)	14.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20.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5.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2.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16.80

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은 2010년에 관측된 매출액 자료가 없어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14)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2020년의 매출액은 없으므로,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까지로 하였다.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촌 창업 경영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7.37%로 나타났다. 전국 전체 창업 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7.89%로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표 3-16〉 농촌 창업 경영체 지역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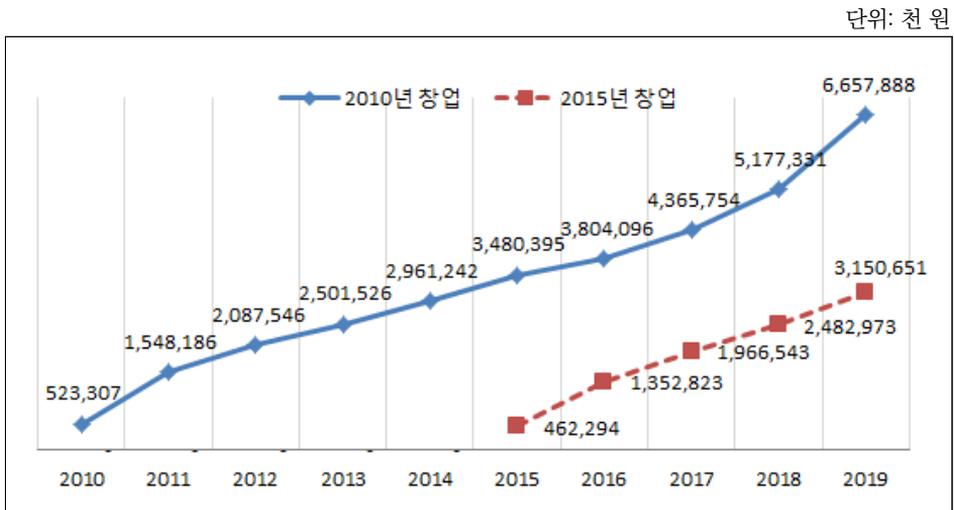
단위: %

지역	성장률
전국	7.89
농촌	7.37

주: 지역에 대한 구분은 정도채 외(2019)를 따름.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농촌 창업 법인 경영체의 매출 증가는 창업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5년에 창업한 법인체 모두 창업 2년차 이후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창업 경영체를 보면, 정부 정책상 창업 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창업 후 7~8년 시기에 매출액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3-12〉 창업 법인의 평균 매출액 비교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회적으로 기업은 고용 창출의 주체이며, <표 3-1>에서와 같이 창업 경영체 역시 고용을 창출한다. 박순홍·신현한(2013)과 이미순 외(2015)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고성장 경영체일수록 고용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농촌 창업 경영체 중에서 고성장 경영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 중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 경기, 충북 지역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 입지 기업이나 충남, 경북은 타지역에 비해 고성장 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7> 시·도별 고성장 창업 경영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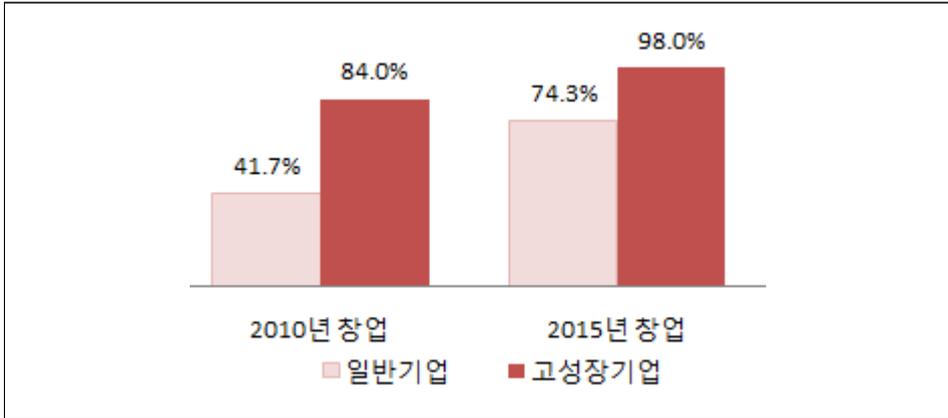
단위: %

고성장 기업	시·도														전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15년 창업	5.6	7.0	6.3	4.9	3.2	3.5	5.0	5.3	1.9	6.2	6.6	5.8	4.2	8.0	6.0
2010년 창업	5.2	7.7	5.6	6.5	4.9	6.8	4.6	4.2	0.0	5.3	8.2	7.7	4.4	6.1	6.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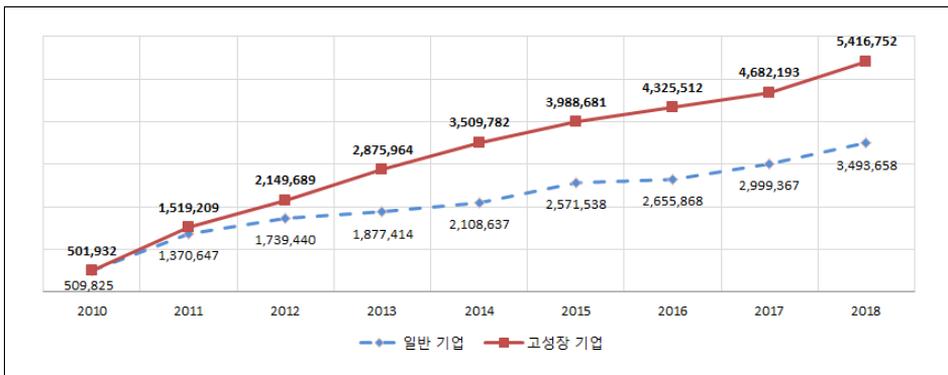
고성장 창업 경영체와 일반 창업 경영체 간 생존율과 매출액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 2015년 창업 경영체 중 고성장 경영체와 일반 경영체의 생존율이 23.7%p가 차이가 났으나, 2010년에 창업한 기업은 42.3%p로 격차가 더 크다. 매출액을 보면, 고성장 경영체는 창업 3년차 이후 일반 경영체와 차별화되는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3〉 고성장 경영체 생존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창업 경영체의 연평균 매출액(일반, 고성장 경영체)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고성장 경영체와 일반 창업 경영체 간에는 혁신 역량 및 창업주의 경력 차이가 존재한다. 고성장 경영체 대표자의 동종 업계 평균 종사기간(11.7년)은 일반 경영체 대표의 평균 종사기간(5.9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성장 경영체 중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6%로 일반 경영체의 비중(0.6%)과 차이를 보인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영체의 비중 또한 고성장 경영체는 8.7%이나 일반 경영체는 0.5%에 불과하다. 대표자의 관련 경력과 경영체의 혁신역량이 경영체의 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8〉 고성장 경영체 성장 특성

단위: 년, %

2010년 창업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벤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일반 경영체	5.9	99.4	0.6	99.5	0.5
고성장 경영체	11.7	86.4	13.6	91.3	8.7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3.2.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요인 분석

이 절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DB를 이용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요인 분석 대상 기간은 2010~2019년이다.¹⁵⁾ 성장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창업 경영체는 첫 번째로 2010~2017년 사이에 창업한 경영체에서¹⁶⁾ 폐업 혹은 휴업을 하지 않은 업체 중 대표자 나이에 대한 자료가 결측되거나 오기입된 관측치를 제외한 총 3만 3,344개 경영체이다. 두 번째로 산업대분류에서 농림어업(A)은 1차 산업을 수행하는 경영체이므로 이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 경력이 누락되어 알 수 없는 관측치와 매출액이 오기입되거나 경영 첫해의 매출액이 매우 작아 기저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500%가 넘게 나오는 경영체(580건, 전체 관측치의 5% 미만)를 제외하여 성장 요인 분석에 사용된 최종 관측치는 총 6,019개의 경영체 자료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성장 요인 분석을 할 때 피설명변수로 기업의 매

15) 기업의 성장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성장률을 매출액을 이용해서 산정하였다(이병기 2002; 정진하 2006; 박순홍·신현한 2013; 이미순 외 2015). 2020년의 매출액 등 창업 경영체의 성과에 대한 자료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9년과 2020년에 창업한 경영체의 성장률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창업한 경영체의 성장률은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요인 분석에서는 2020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6) 2018년에 창업한 경영체의 매출액 자료는 2018년과 2019년의 2개년의 관측치만 있다. 매출액이 오기입된 경우도 있고, 기저 효과에 의해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까지 창업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성장률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로는 기업의 규모, 연구개발 투자비, 혁신과 관련된 변수, 산업 특성, 입지 조건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이병기(2002)는 1997~1999년간 벤처기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피설명변수로 사용했다. 정진하(2005)는 2002년과 2003년 3,082개 벤처기업들의 매출액 변화율을 성장률로 사용하였다. 박순홍·신현한(2013)은 매출액과 고용인원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였고, 이미순 외(2015)는 매출액의 변화를 성장률로 설정하였다. Dodoo et al.(2020)은 총자산순이익률(순수입/총자산)을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창업 기업은 규모가 작고 고용 인원이 매우 작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 인원의 변화율을 성장률로 사용하면 창업 초기의 고용 인원이 매우 작아 기저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 DB에 있는 자료의 가용성과 성장률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고려해 연도별 매출액의 변화를 성장률의 대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도별 매출액의 변화는 매출액 변화의 기하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설명변수로 대표자의 특성이 창업 경영체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과 대표자의 나이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술 개발 등 혁신과 관련된 변수로는 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 인증이 있거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으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혁신 변수와 연구개발 투자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이 창업 경영체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보조금 수령액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산업의 특성별로 성장이 다를 것이므로 산업별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Dodoo et al.(2020)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에는 대표적으로 통상최소자승법(OLS)과 GMM을 사용한다. 박지연 외(2016)는 벤처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도구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병기(2002), 정진하(2005)는 통상최소자승법을 사용해서 기업 성장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Dodoo et al.(2020)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가나의 비금융기업의 재무자료와 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통상최소자승법과 GMM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추정 결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병기(2002), 정진하(2005), Dodoo et al.(2020)을 따라서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성장 요인 추정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률이 창업 기업의 부채 비율,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대표자의 나이, 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의 여부, 연구개발 투자비, 보조금, 산업 부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y = X\beta + \epsilon$$

여기서 y 는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률로 이루어진 벡터이고, X 는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 혁신 변수 등으로 이루어진 행렬이며, β 는 추정의 대상이 되는 모수이다. 마지막으로 ϵ 는 독립적이고 동일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이다.

성장 요인 분석에 사용된 피설명변수인 매출액 성장률과 설명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성장 요인 분석 변수 기초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매출액 성장률	0.56	0.85	4.99	-0.99
부채비율	3,597.25	74,892.88	4,738,894	0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119.61	112.78	711	12
대표자 나이	52.76	9.51	85	24
혁신 변수	0.19	0.39	1	0
연구개발 투자비	269,322.6	14,900,000	1.16×10^9	0
수령한 보조금	4,110.65	131,624.7	6,454,029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0.001	0.04	1	0
도매 및 소매업(G)	0.35	0.48	1	0
숙박업 및 음식점업(I)	0.03	0.17	1	0
정보통신업(J)	0.02	0.15	1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0.07	0.26	1	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0.05	0.22	1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0.002	0.05	1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0.02	0.13	1	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0>과 같다. 먼저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치는 0에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할지라도 부채비율이 창업 경영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0.01%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의 제공항은 0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표자의 나이는 1살이 증가하면 매출액의 성장률이 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 기간은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업 경영체 대표자의 동종 업계 종사 기간이 길다는 것은 대표자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표자의 동종 업계 종사 기간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대표자의 나이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오히려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혁신과 관련된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메인비즈니스, 이노비즈, 벤처인증,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을 경우, 이는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와 수령한 보조금은 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비가 성장률과 양의 관계에 있다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보조금의 수령 금액도 기대한 것과는 다른 추정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에서 연구개발 투자비나 보조금 수령 실적이 있는 창업 경영체가 매우 적어 과소 표본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정치는 0과 매우 근접한 수준이므로 이 표본에서는 창업 경영체의 성장률과 연구개발 투자비, 보조금 지원액은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특성은 제조업(C) 대비 다른 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것이다.¹⁷⁾ 전문, 과학

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O)은 이 산업에 속하는 창업 경영체가 분석 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및 기술 서비스업(M)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이 제조업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G),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조업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은 제조업보다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성장 요인 분석 결과

변수		추정치	표준 편차	p 값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부채비율	-5.84×10^{-8}	2.57×10^{-9}	0.00
창업자 특성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0.0001	2.33×10^{-5}	0.00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의 제곱	-5.27×10^{-7}	4.08×10^{-8}	0.00
	대표자 나이	-0.007	0.0001	0.00
혁신 관련	혁신 변수	0.628	0.002	0.00
	연구개발 투자비	-5.16×10^{-10}	5.40×10^{-12}	0.00
정부 지원	수령한 보조금	-3.39×10^{-8}	7.79×10^{-9}	0.00
산업 특성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0.204	0.155	0.00
	도매 및 소매업(G)	-0.118	0.002	0.00
	숙박업 및 음식점업(I)	-0.181	0.009	0.00
	정보통신업(J)	-0.007	0.007	0.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0.005	0.004	0.1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0.010	0.005	0.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0.172	0.027	0.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0.107	0.010	0.00
상수항		0.948	0.007	0.0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2010년 이후 농촌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에 입지한 창업체 수와 고용 인원은 도시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성장하는 경영체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우 크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먼저, 지역적으로 보면 농촌에 위치한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이 농촌과 도시에 있는 모든 창업 경영체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성장률은 도시에 입지한 창업 경영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렴한 지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이 도시보다 높으나, 농촌 지역의 불리한 여건 등은 창업 이후 경영체의 성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에는 창업주의 경험과 역량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같이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관련 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창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이해도가 높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 대표자의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창업 경영체 대표자의 역량이나 경험은 대표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풍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요인 분석에 따르면 대표자의 나이는 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청년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과 성장률이 일반 창업 경영체에 비해 낮은 것은 관련 분야의 역량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 창업 경영체 대표자의 관련 분야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 경영체의 혁신 역량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비즈 인증, 벤처 인증, 기업 부설연구소 등을 소유한 창업 경영체가 그렇지 않은 경영체에 비해 생존할 확률과 성장률이 모두 높다. 이를 고려하여, 자금 여건이 열악한 창업 경영체에 대해서는 창업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 혁신 전문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 혹은 동종 업계 창업 경영체간의 정보 교류 및 연계를 하는 것도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창업 경영체의 매출액과 고용 인원은 생존율과 양의 상관을 보인다. 이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판로 확보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 경영체에서 시장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시장의 정보가 적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장의 정보를 전달해서 매출액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케팅 지원 외에 창업 경영체 내부에서 마케팅 및 조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고용 인원수도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과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창업 경영체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 시장으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 경영체의 폐업률은 창업 후 기간에 따라 변하기도 해서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창업 후 2~3년 정도에 폐업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창업 경영체별로 발전 단계와 주력 산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4장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과 사례

농촌 창업 경영체의 특성과 사례

1.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산활동 특성

1.1. 조사 개요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산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DB에 있는 2010년 이후 농촌 창업 경영체 중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방문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208개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 입지 요인, 창업 배경, 거래 관계 및 혁신 네트워크,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 농촌 창업 경영체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208	100.0
업력	3년 미만	116	55.8
	3년 이상	92	44.2
업종	제조업	108	51.9
	서비스업	100	48.1
소재지1	국가 일반산업단지	20	9.6
	농공단지	15	7.2
	창업보육시설	2	1.0
	개별입지	171	82.2
소재지 2	읍	116	55.8
	면	92	44.2
창업지역	강원도	28	13.5
	충청권	51	24.5
	전라권	61	29.3
	경상권	63	30.3
	제주도	5	2.4
경영체 형태	농업/어업 회사법인	50	24.0
	영농/영어 조합법인	16	7.7
	주식회사	109	52.4
	유한회사	8	3.8
	생활협동조합	4	1.9
	기타	21	10.1
매출액	10억 원 미만	101	48.6
	10억 원 이상	107	51.4
대표자 성별	남	165	79.3
	여	43	20.7
대표자 연령대	30대 이하	37	17.8
	40~50대	130	62.5
	60대 이상	41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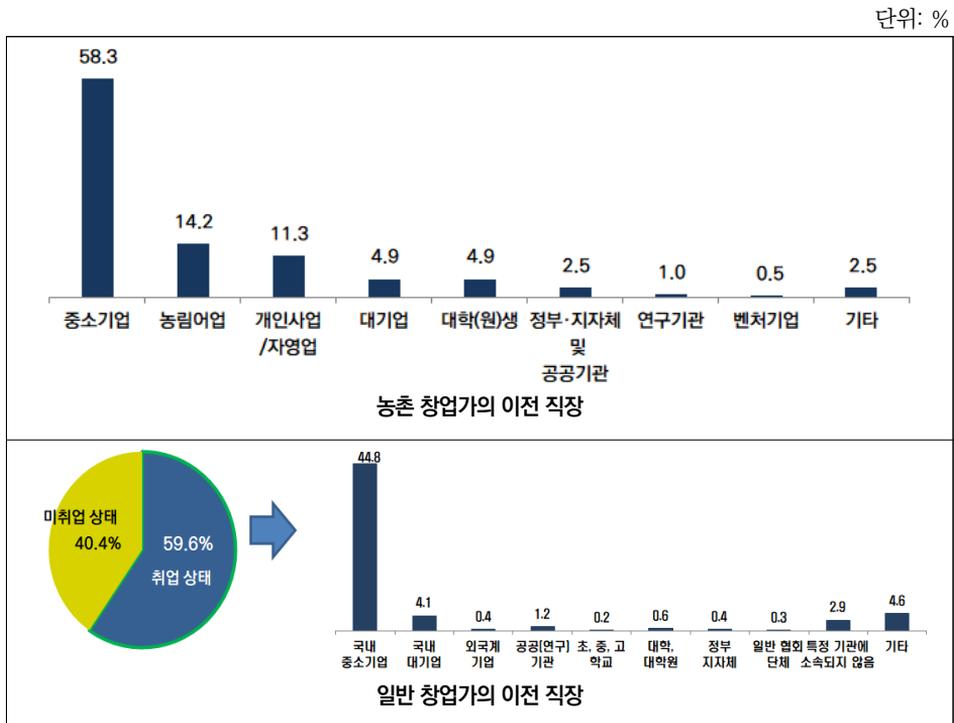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2. 농촌 창업가의 창업 동기 및 배경

농촌에서 창업하는 경영체들의 창업 동기 및 배경을 조사하였다. 농촌 창업가

의 창업 전 취업 여부 및 직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한 후에 농촌에서 창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경영체 중 58.3%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 농촌에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14.2%), 개인사업(11.3%)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창업한 비중이 4.9%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창업기업실태조사의 0.6%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창업가의 경우 대학(원) 졸업 후 바로 창업한 비율이 2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바로 창업에 뛰어드는 비중이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농촌은 창업 이전에 취·창업 상태에서 창업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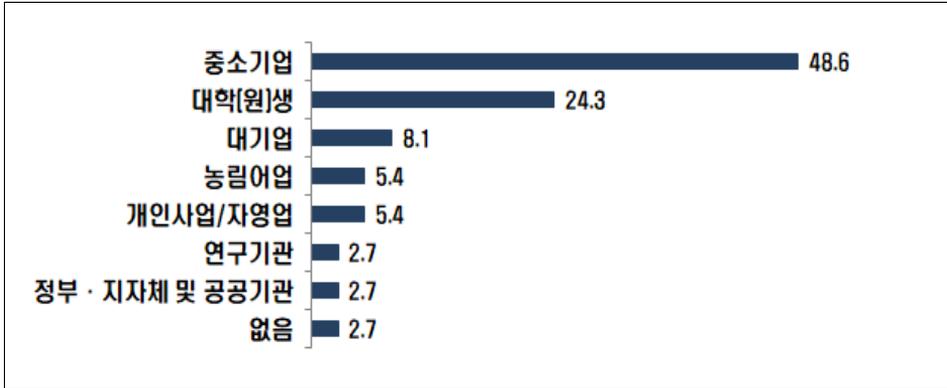
〈그림 4-1〉 창업가의 이전 직장



주: 일반 창업가의 이전 직장 n=8,000.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그림 4-2〉 청년 창업가의 창업 전 직장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창업을 하는 대표자의 주된 창업 동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소득(28.4%)’, ‘독립성과 자율성 추구(17.8%)’, ‘가업 승계’와 ‘농촌 혹은 지역문제 해결(4.8%)’ 순으로 창업 동기가 높았다. 일반 창업 기업의 동기는 경제적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농촌 창업 기업은 자아실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농촌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창업은 특히 최근의 창업 기업들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창업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들 중 56.0%가 자아실현을 위해 농촌에서 창업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해 농촌에서 창업했다는 응답이 13.5%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았다. 생활협동조합은 ‘농촌 혹은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75.0%를 차지하여, 법인, 주식회사에 비해 높았다. 연령 및 경영체 형태별로 창업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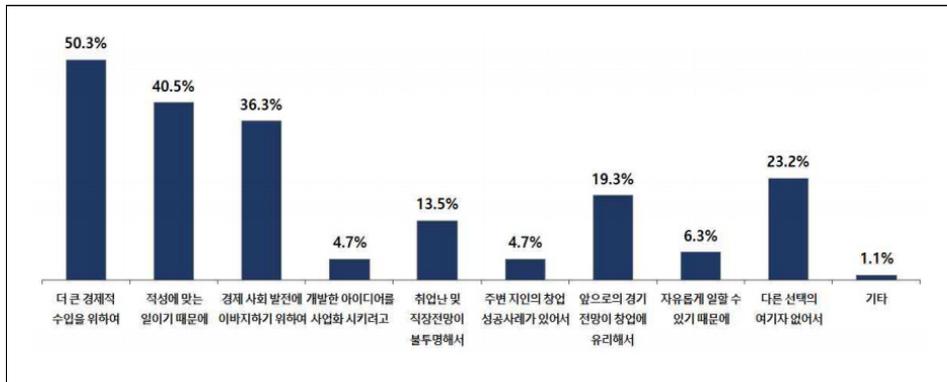
〈표 4-2〉 농촌 창업 기업 유형별 창업 동기

단위: %

구분	자아실현을 위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	기업 승계	농촌 혹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공헌을 위해	
전체	42.3	28.4	17.8	4.8	4.8	1.9	
업력	3년 미만	56.0	25.0	6.9	6.9	3.4	1.7
	3년 이상	25.0	32.6	31.5	2.2	6.5	2.2
대표자 연령대	30대 이하	37.8	27.0	13.5	13.5	5.4	2.7
	40~50대	40.8	31.5	20.0	3.8	3.1	0.8
	60대 이상	51.2	19.5	14.6	0.0	9.8	4.9
대표자 성별	남	38.8	31.5	20.0	3.6	4.2	1.8
	여	55.8	16.3	9.3	9.3	7.0	2.3
경영체 형태	농업회사법인	50.0	20.0	14.0	10.0	6.0	0.0
	영농조합법인	43.8	25.0	18.8	0.0	12.5	0.0
	주식회사	38.5	33.9	20.2	2.8	2.8	1.8
	유한회사	12.5	37.5	25.0	12.5	0.0	12.5
	생활협동조합	25.0	0.0	0.0	0.0	50.0	25.0
	개인사업자	57.1	23.8	14.3	4.8	0.0	0.0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3〉 일반 창업 기업의 창업 동기



주: n=8,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농촌 창업 경영체 대표자들의 창업 전 평균 경력을 보면, 생존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10억 원 이상 매출) 기업일수록 창업 이전에 현 창업 업종과 관련된 평균 경력도 더 긴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60대 이상이 젊은 연령

층의 대표에 비해 관련 경력이 길었다. 이는 농촌에서 창업 경영체의 생존 및 성장은 창업 이전의 충분한 경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창업 전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3〉 대표자의 창업 전 평균 경력

단위: 년

구분		현 창업 업종 관련	현 창업 업종 관련 외 경력
전체		10.3	5.1
업력	3년 미만	9.1	5.6
	3년 이상	11.9	4.6
매출액	10억 원 미만	8.0	6.3
	10억 원 이상	12.5	4.0
업종	제조업	11.6	5.5
	서비스업	8.9	4.8
대표자 연령대	30대 이하	3.4	1.4
	40~50대	10.2	4.4
	60대 이상	16.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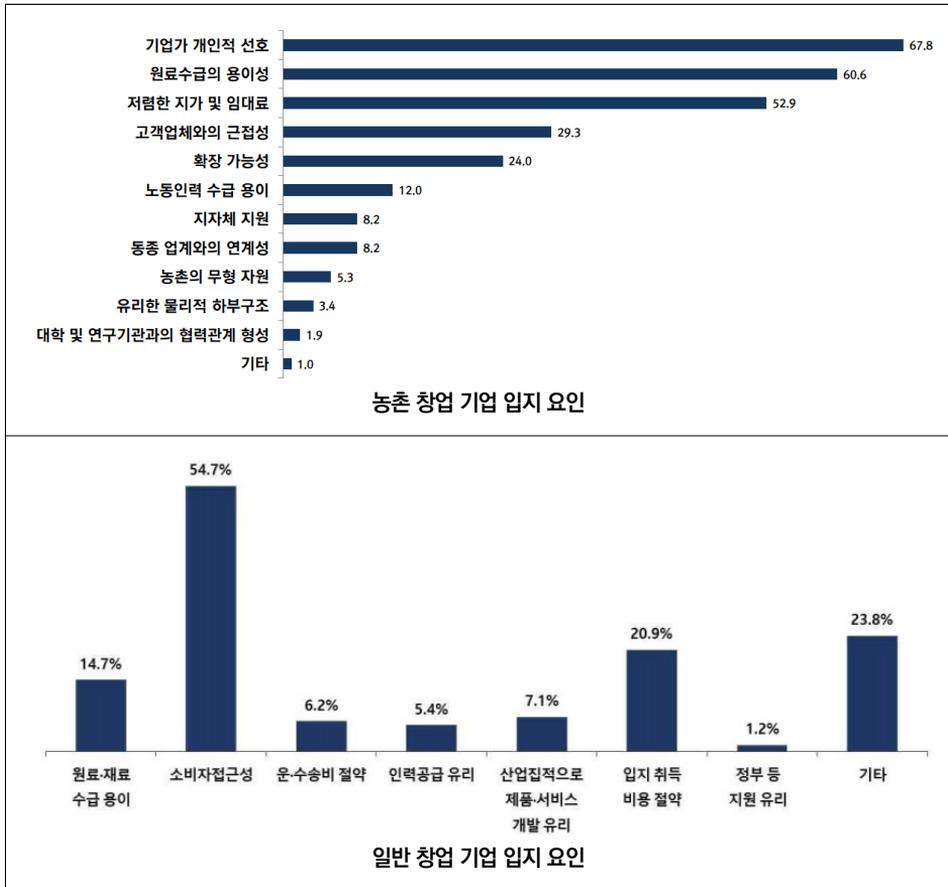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3. 농촌 창업 경영체의 입지 요인

농촌 입지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창업가의 ‘개인적 인 선호(67.8%)’로 인해 농촌에 입지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 입지 요인 중 2~3위로 중요한 요인은 ‘원료 수급의 용이성(60.6%)’과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52.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나타난 일반적인 창업 기업의 입지 요인에 비추어 볼 때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시장 접근성보다 원료 접근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외에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는 공통적인 주요 입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4〉 농촌 창업 기업 입지 요인 비교(복수응답)

단위: %



주: 일반 창업 기업 입지 요인 n=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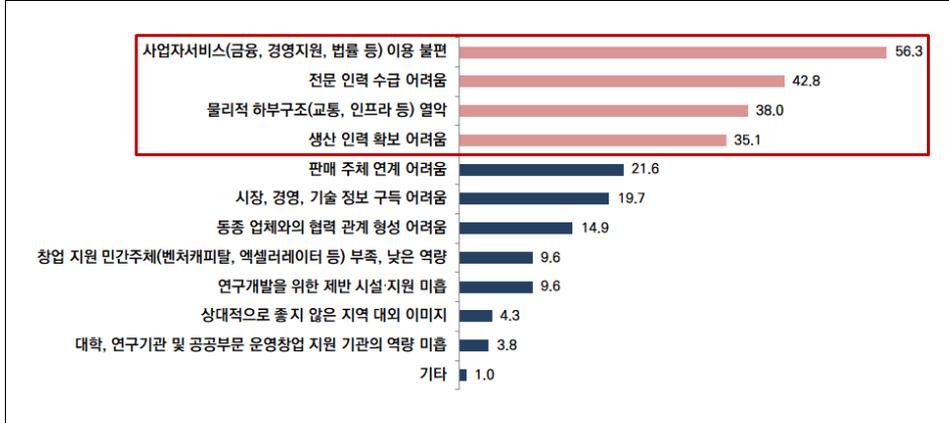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2020).

농촌은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 중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창업 인프라와 관련한 지가 및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측면의 이점이 있다. 반면 창업 경영체를 위한 사업자 서비스 이용이나 전문 인력 수급, 교통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 창업 경영체는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 어려움으로 금융, 경영지원, 법률 분야 등의 ‘사업자 서비스 이용 불편(56.3%)’과 ‘전문인력 부족(42.8%)’, ‘교통 및 인프라 등의 물리적 하부구조 열악(38.0%)’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창업 기업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 및 생산 인력 부족’이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창업한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4. 농촌 창업 경영체의 지역 착근성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 창업 경영체들이 가치사슬 형성과정을 거치며 지역 내 착근되는지 확인하였다. 농촌 창업 정책의 목적이나 창업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농촌 창업 경영체의 착근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은 지역 내 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공식·비공식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착근 과정을 거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고향 및 개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는데(농촌입지 요인 1순위, 67.8%), 이는 지역 내 공식·비공식의 접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 내 비공식 모임 등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주체로는 기업이

22.6%이며, 이 외에도 지자체 창업 지원 공공기관(14.9%)이나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공동 연구 및 장비 이용, 9.13%)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창업 초기 경영체일수록 ‘지역 내 타 경영체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별 초기 창업 경영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한계를 창업 경영체 간 연계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농촌에서 초기 단계의 젊은 창업가들이 이러한 공동의 사업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의 방향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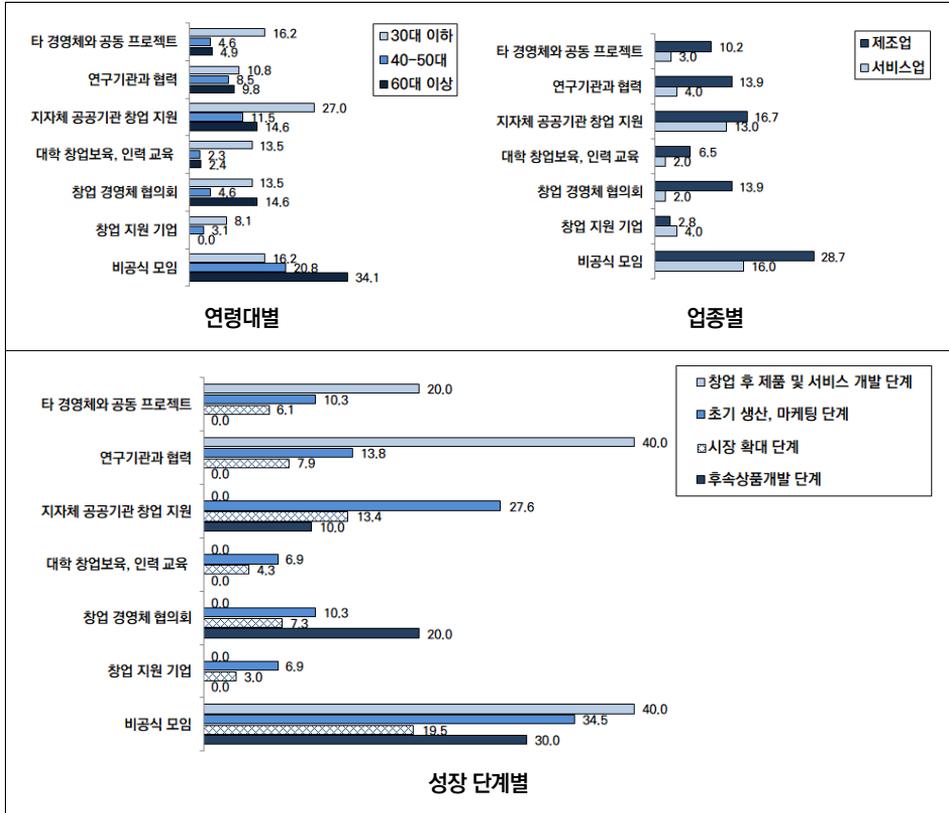
“평창군 미탄면 청년사업가 6명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5개 마을과 농장을 연계하여 농촌 관광, 체험 등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각자의 사업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미탄면의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해요. 도시에 있었다면 이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공동체 단장 인터뷰 발췌

“평창군 내 5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요리사를 초청하거나 청년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지역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테마 10선에 선정되면서 그 해에만 10회 이상 진행했던 거 같아요. 외지에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창업가 인터뷰 발췌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보려고 ‘숲레시피’라는 명칭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음악 치료, 명상, 목공, 숲 다이닝 음식, 식물,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9명이 모여서 숲 축제 등을 기획하고 있어요. 점차 기존 마을 주민들과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창업가 인터뷰 발췌

〈그림 4-6〉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단위: %



주: 지역 내(인접 시·군 포함)에서 협력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임.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창업한 이후, 고객 업체로의 판매 거래 및 원료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 거래와 관련하여 지역 내 거래 관계 비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영체는 각각 38.5%, 31.7%를 차지하였다. 특히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역 내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원료 구매와 판매거래, 민간지원기관과의 협력, 동종·유사업체와의 제휴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공공지원기관과의 협력은 오히려 초기(시제품 생산)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영체 형태별로는 협동조합의 지역 내 활동 증가 정도가 가장 높았다. 창업 경영체의 구매 및 판매 거래가 지역에 착근하는 것은 창업 활동이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4〉 창업 이후 지역(시·군) 내 활동 비중 증가

단위: %

구분		원료공급 업체로부터의 구매 비중	고객 업체로의 판매 거래 비중	동종·유사 업체와의 제휴 횟수	공공지원 기관과의 협력 횟수	민간지원 기관과의 협력 횟수
전체		31.7	38.5	10.1	5.8	4.3
기업 성장 단계	창업 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시제품 생산)	0.0	0.0	0.0	20.0	0.0
	초기생산, 마케팅 단계	37.9	44.8	17.2	6.9	6.9
	시장 확대 단계	31.1	37.8	8.5	5.5	3.0
	후속상품개발 단계	40.0	50.0	20.0	0.0	20.0
경영체 형태	농업회사법인	36.0	40.0	14.0	4.0	2.0
	영농조합법인	18.8	31.3	12.5	0.0	0.0
	주식회사	33.9	39.4	8.3	8.3	5.5
	유한회사	37.5	37.5	25.0	0.0	12.5
	합자회사	0.0	0.0	0.0	0.0	0.0
	생활협동조합	75.0	75.0	25.0	0.0	0.0
	개인사업자	9.5	28.6	0.0	4.8	4.8
업종	제조업	37.0	38.9	13.9	6.5	4.6
	서비스업	26.0	38.0	6.0	5.0	4.0

주: 관련 활동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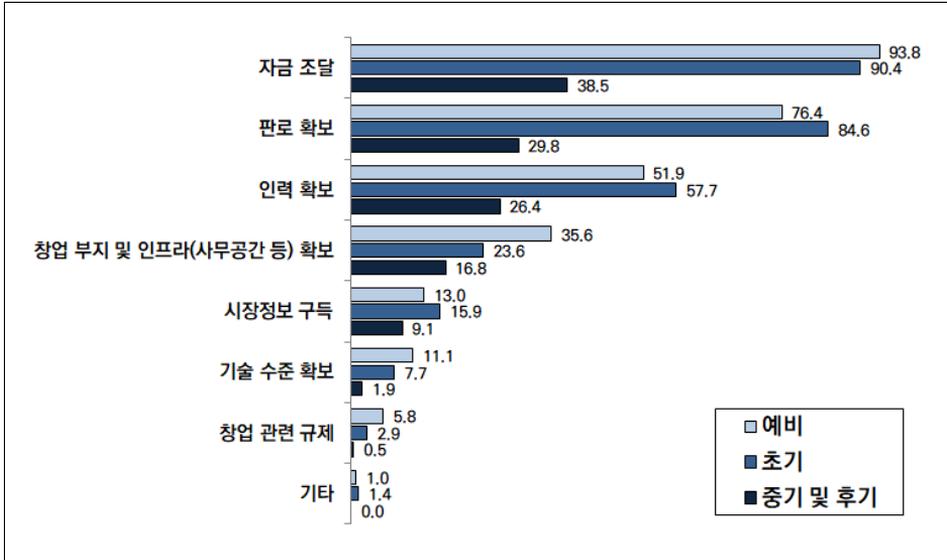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5.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별 애로 사항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은 ‘자금조달’과 ‘판로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예비 및 초기 단계(창업 후 3년 이하)의 경영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농촌 창업 경영체의 창업 단계별 애로 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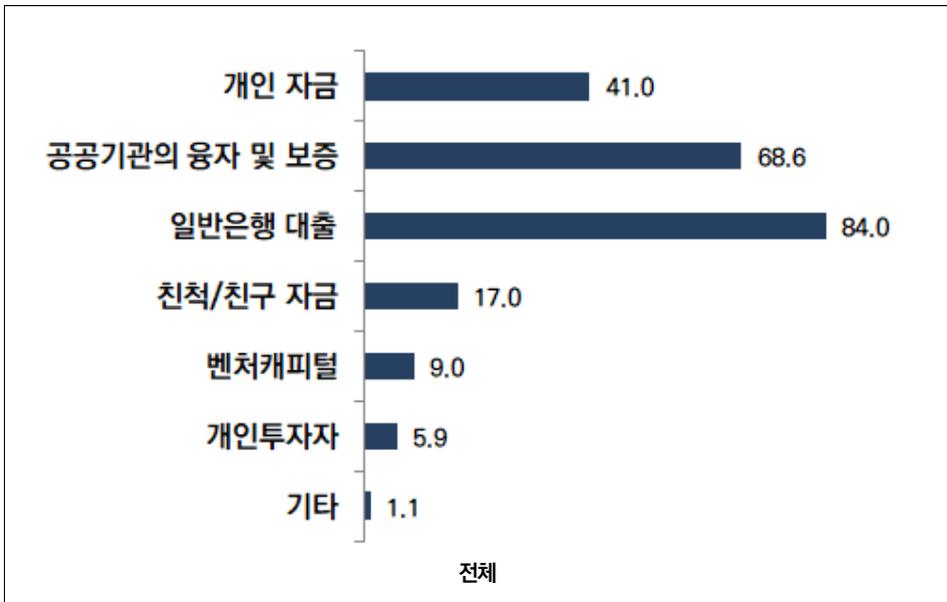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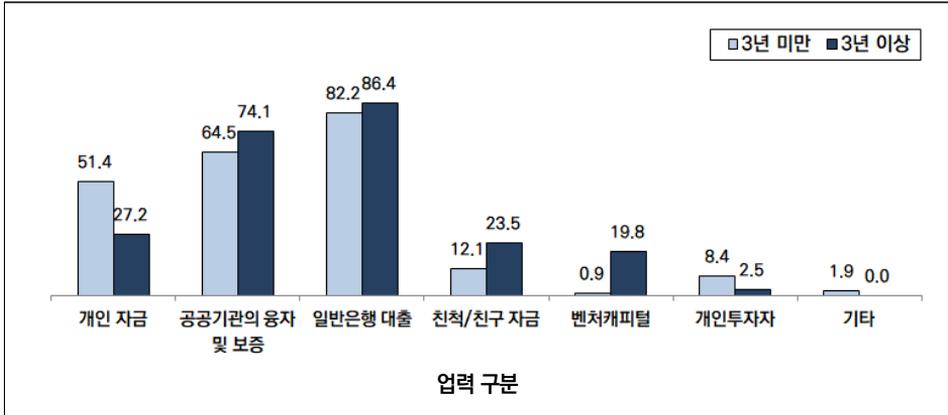


주: 예비단계는 창업 전 단계, 초기단계는 창업 후 3년 이하, 중기 및 후기 단계는 창업 후 4~7년 이하를 의미함.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8〉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금 조달 방법(복수응답)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59.6%의 창업 경영체가 ‘창업 후 1~3년 미만’을 꼽았다. 창업 후 3년이 창업 경영체의 생존 여부가 갈리는 기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많은 경우 일반은행 대출을 이용했으며, 공공기관의 용자 및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3년 미만의 창업 경영체는 창업 후 자금이 가장 어려웠을 시기에 개인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창업 경영체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실제 창업 초기의 소규모 창업 경영체 대상 인터뷰 결과에서도 일반은행 대출도 어려워 농촌에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했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 추구의 성격이 강한 기업에서 그러한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다.

“창업 후 제일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버티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죠. 호텔 아르바이트, 학교 방과 후 수업 등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 제주도 서귀포시 애월읍 예비사회적기업가 인터뷰 발췌

“창업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돈은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매출은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 지금이 그 시점인 거 같아요. 매출이 없다면 일반 은행 대출도 어렵고요. 생계 맞춤형으로 소액 대출일지라도 운영자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죠.”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예비사회적기업가 인터뷰 발췌

〈표 4-5〉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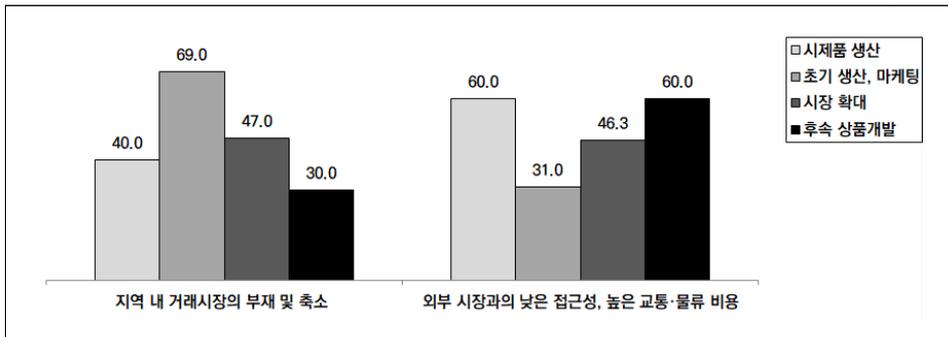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1년 미만	창업 후 1~3년 미만	창업 후 3~5년 미만	창업 후 5~7년	없었음	
전체	1.4	27.4	59.6	1.9	0.0	9.6	
업종	제조업	1.9	28.7	61.1	2.8	0.0	5.6
	서비스업	1.0	26.0	58.0	1.0	0.0	14.0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조달 문제와 함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판로 확보는 특히나 지역 여건과 관련이 큰 것으로 조사되는데, 대부분의 창업 경영체들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지역(시·군) 여건으로 지역 내외부의 거래시장 부재로 인한 애로 사항을 꼽았다. ‘지역 내 거래시장의 부재 및 축소’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단계(초기 생산 및 마케팅 단계)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낀 반면, ‘외부 시장과의 낮은 접근성’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단계(시제품 생산 단계와 후속 상품개발 단계)의 창업 경영체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거래시장 확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또한, 거래시장 확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조사 결과는 시장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9〉 기업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 내외부 시장 여건(복수응답)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6.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생산 공정개선 등 농촌 창업 경영체의 제품혁신에 기여하는 기관들과 그 위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는 주로 고객업체(57.7%)와 기업 내부(56.3%), 동종기업(51.4%), 원료 공급업체(44.7%), 지역기업 협의체(17.8%), 정부·지자체의 기업지원기관(11.1%) 순으로 제품 혁신을 위해 해당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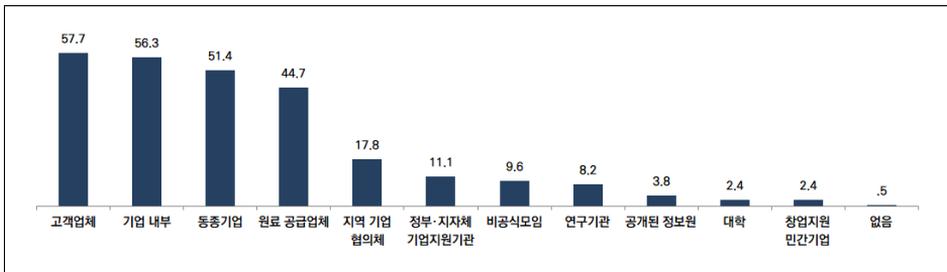
사례조사 결과, 특히 이러한 기관들과 밀착 멘토링·컨설팅 성격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청년이 돕는 청년 창업’이라는 콘셉트의 사업이었다 보니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 인테리어나 디자인 등을 도와줬죠. 지원 내용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밀착 멘토링이었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대표님과 자주 만나면서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 강원도 평창군 창업가 인터뷰 발췌

〈그림 4-10〉 제품혁신 기여 기관(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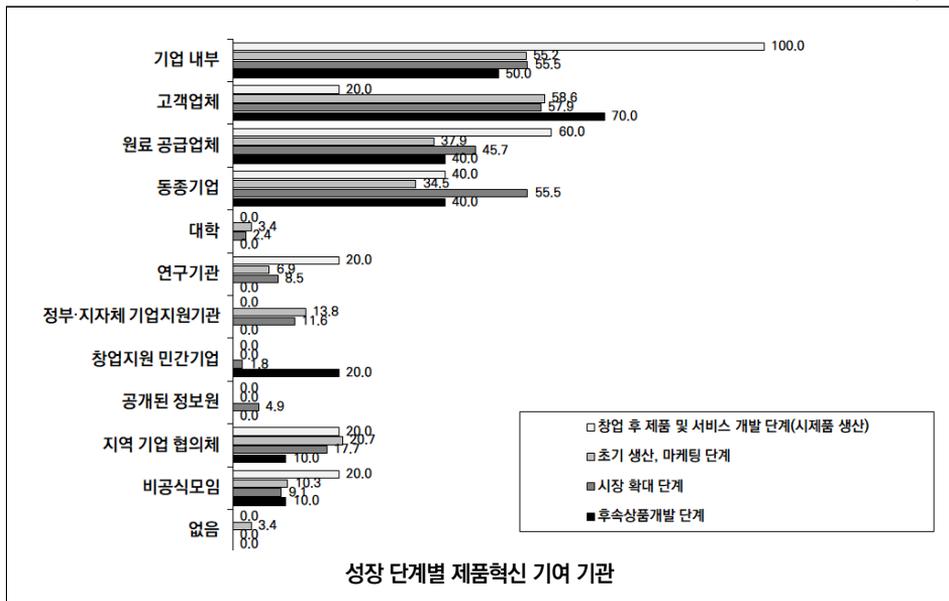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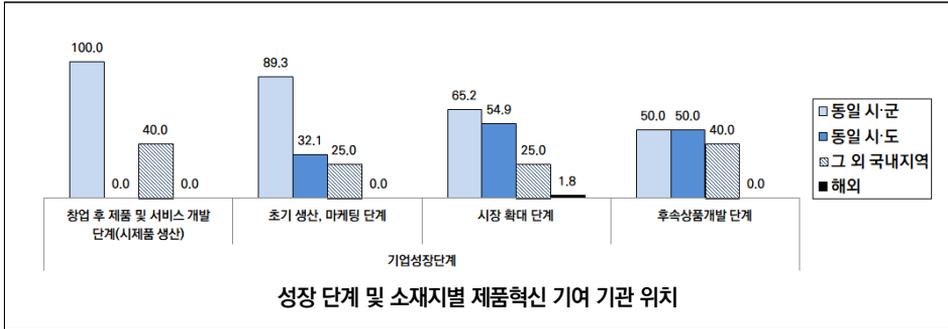
기업 성장 단계별로도 농촌 창업 경영체의 제품혁신에 기여하는 기관에 차이가 존재했다. 창업 초기(시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기업 내부’가 100.0%로 월등히 높은 위치를 점한 반면, 초기 생산 및 마케팅 단계와 시장 확대 단계에서는 이보다 ‘고객업체’ 및 ‘동종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하였다. 후속상품개발 단계에서는 ‘고객업체’와의 협력이 가장 컸으며, 특히 이 단계에서 ‘창업 지원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력 기관들의 위치도 성장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업 초기단계일수록 시·군 내 위치한 기업과의 협력이 큰 반면, 성장할수록 시·도, 그 외 국내 지역 및 해외까지 협력 기관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 기업의 성장에 따라 혁신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농촌만이 아니라 지역 외부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4-11〉 성장 단계별 제품혁신 기여 기관 및 위치(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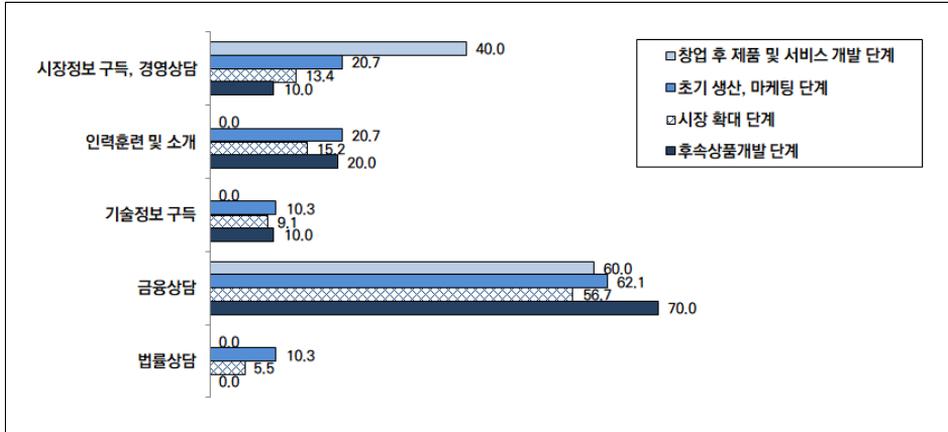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기업 지원 서비스 중 ‘금융 상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기능별로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장 정보 구득 및 경영상담 서비스’는 창업 초기 단계일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반면, ‘금융상담’은 후속상품개발 단계의 기업체에서 이용 빈도가 높았다. 경영체 형태별로는 유한회사와 생활협동조합에서, 업종별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부문 경영체가 기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기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리적 범위는 서비스 내용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시·군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훈련 및 소개와 금융상담 서비스의 시·군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률 상담 서비스는 시·군보다 시·도 내, 그리고 수도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기술정보 구득을 위해서는 시·군과 시·도, 수도권, 기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림 4-12〉 성장 단계별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표 4-6〉 농촌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경영체 형태, 업종, 창업 형태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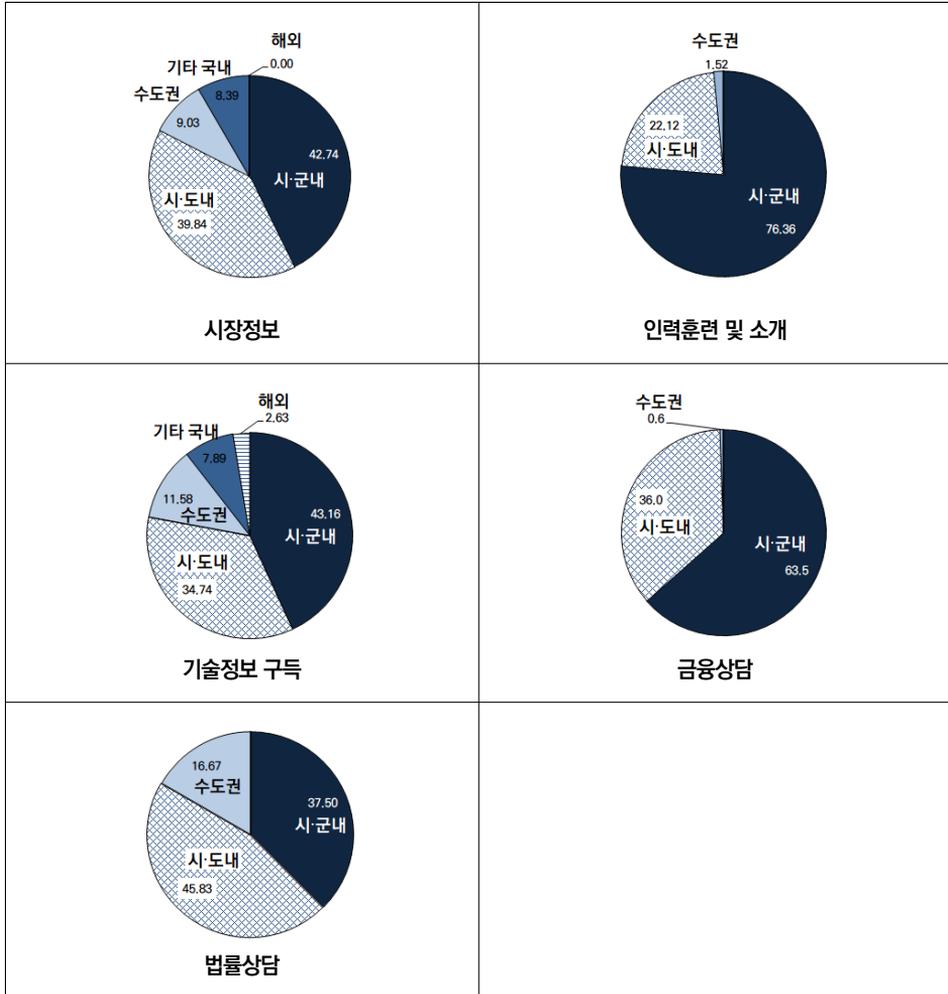
구분		시장정보 구득, 경영상담	인력훈련 및 소개	기술정보 구득	금융 상담	법률 상담
전체		14.9	15.9	9.1	58.2	5.8
경영체 형태	농업회사법인	18.0	18.0	14.0	56.0	4.0
	영농조합법인	6.3	6.3	6.3	68.8	0.0
	주식회사	11.9	14.7	5.5	56.9	7.3
	유한회사	50.0	25.0	12.5	75.0	0.0
	합자회사	0.0	0.0	0.0	0.0	0.0
	생활협동조합	50.0	50.0	25.0	50.0	25.0
업종	기타	9.5	14.3	14.3	57.1	4.8
	제조업	19.4	22.2	14.8	64.8	7.4
	서비스업	10.0	9.0	3.0	51.0	4.0

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기업 비중임.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3〉 창업 경영체의 기업 지원 서비스 이용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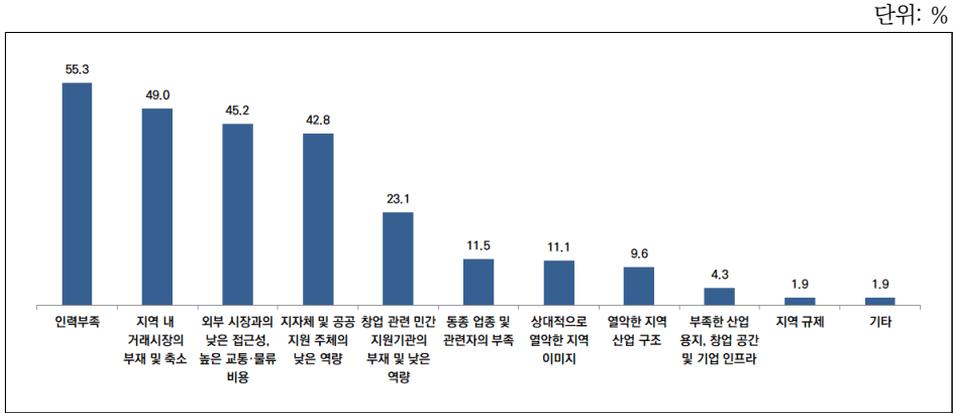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7. 농촌의 입지 제약 요인 및 정책 수요

지역(시·군) 여건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부족(56.3%)’이며, 2위가 ‘지역 내 거래시장의 부재 및 축소 (49.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외부 시장과의 낮은 접근성, 높은 교통

물류 비용(45.2%)’과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낮은 역량(42.8%)’을 제약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4〉 기업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시·군) 여건(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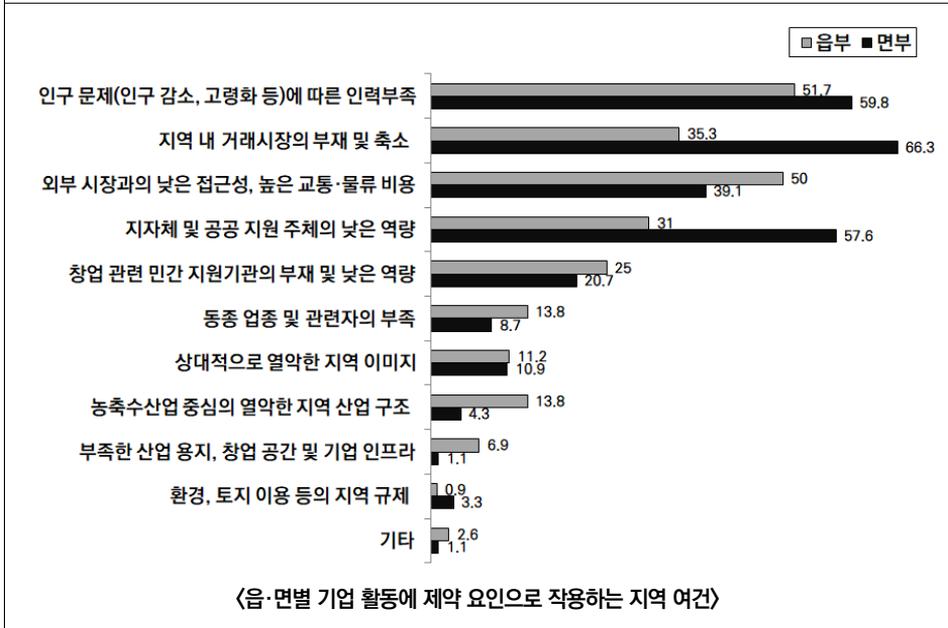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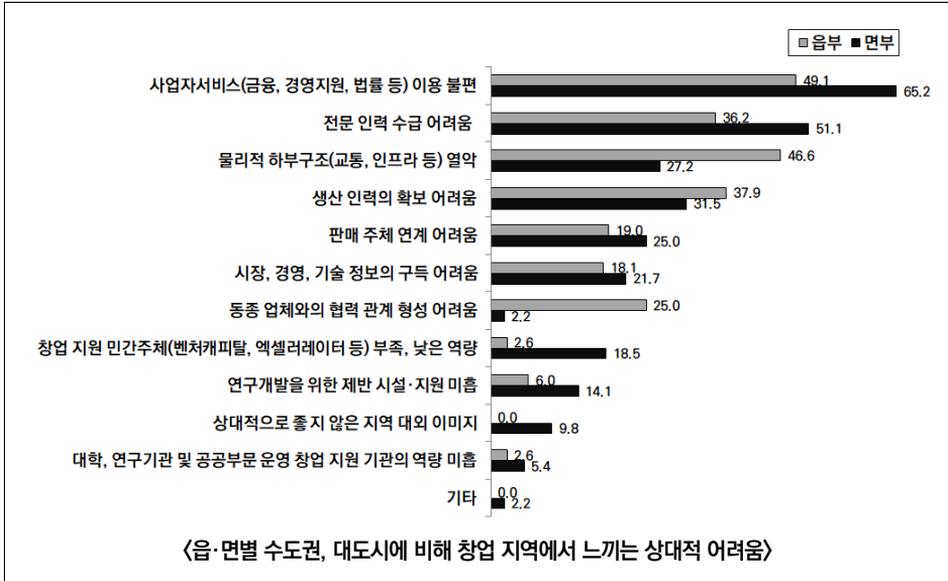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 입지한 창업 기업 중 읍·면별로도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읍부에 입지한 창업 기업은 창업 지역의 교통, 인프라 등 물리적 하부 구조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여, 외부 시장과의 낮은 접근성, 높은 교통 물류 비용이 기업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동종 업종 및 관련자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이에 따른 동종 업체와의 협력 관계 형성 어려움에 대한 애로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면부에 입지한 창업 기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부족과 지역 내 거래시장의 부재 및 축소,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낮은 역량이 기업 활동에 더욱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지역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정보 구득, 지원, 협력 관계 형성 등) 주체는 대부분 동일 시·군 혹은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읍부에 입지한 창업 기업들은 주로 동일 시·도(140.5%) 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반면, 면부에 입지한 창업 기업들은 동일 시·군(194.6%)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였다.

〈그림 4-15〉 읍·면 입지 기업별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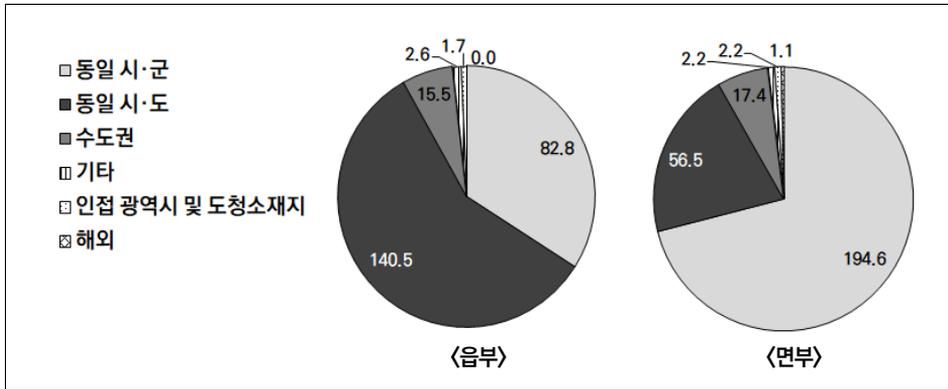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4-16〉 읍·면 입지 기업별 지역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극복을 자원 활용의 지역 범위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창업 경영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 불리함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지역 단위 창업 지원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3%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경영(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확대’와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공공 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 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 역량 강화는 ‘초기 단계’의 기업일수록 수요가 크고, 인력 채용 및 지원은 ‘성장 단계(시장 확대 및 후속상품 개발 단계)’의 기업에서 특히 높은 응답 빈도를 나타냈다. 인터뷰 조사 결과, 인력 지원에 대해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외지 인력의 숙박시설을 마련해주는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수요가 높았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을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많다.

“창업 4년차인데, 현재 제일 큰 고민은 인력 고용이에요. 앞으로 사업 확장을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어렵죠. 외지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했을 때, 숙식만 해결이 된다면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사람을 쓸 의향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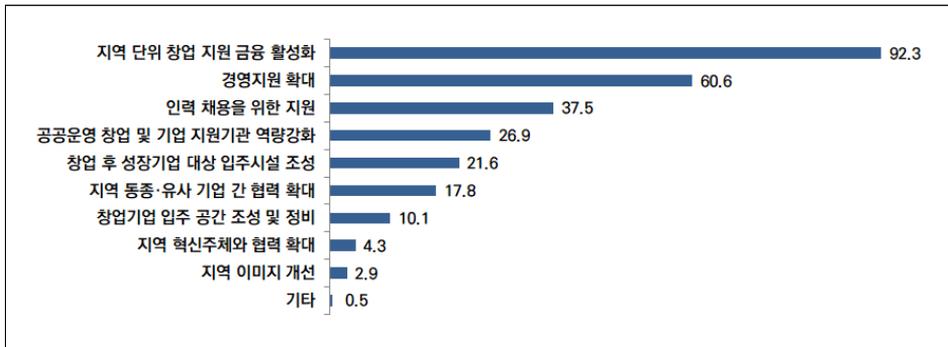
- 강원도 평창군 창업가 인터뷰 발췌

“사회적기업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써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원 해고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 제주도 애월읍 사회적기업가 인터뷰 발췌

〈그림 4-17〉 농촌 창업 경영체의 지역 불리함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수요(복수응답)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표 4-7〉 유형별 농촌 창업 경영체의 지역 불리함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수요(복수응답)

단위: %

구분	전체	기업 성장 단계			
		시제품 생산	초기생산, 마케팅	시장 확대	후속상품 개발
지역 단위 창업 지원 금융 활성화	92.3	60.0	86.2	94.5	90.0
경영지원 확대	60.6	60.0	58.6	60.4	70.0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37.5	20.0	37.9	37.8	40.0
공공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기관 역량강화	26.9	60.0	20.7	28.0	10.0
창업 후 성장기업 대상 입주시설 조성	21.6	20.0	24.1	21.3	20.0
지역 동종·유사 기업 간 협력 확대	17.8	20.0	10.3	20.1	0.0
창업기업 입주 공간 조성 및 정비	10.1	20.0	10.3	10.4	0.0
지역 혁신 주체와 협력 확대	4.3	0.0	17.2	2.4	0.0
지역 이미지 개선	2.9	0.0	0.0	3.0	10.0
기타	0.5	0.0	3.4	0.0	0.0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개선 과제로도 앞단의 지원 수요와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활성화(82.1%)’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서류 간소화나 사업비 사용 등에 사업 운영 효율성 도모(53.1%)’, ‘창업 단계 맞춤형 지원(50.2%)’, ‘창업 이후(7년 이후) 연계/후속 지원(40.1%)’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창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별로 보면 시제품 생산 등 예비 단계에서는 단계 맞춤형 지원과 밀착 멘토링, 심층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초기 생산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이후의 연계/후속지원 필요가 높았으며, 지역단위 창업 금융 지원 활성화는 시장 확대 단계 기업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후속상품개발 단계의 기업은 사업 운영 효율성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었다.

〈그림 4-18〉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개선 과제(복수응답)

단위: %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표 4-8〉 성장 단계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개선 과제(복수응답)

단위: %

구분	지역 단위 창업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 운영 효율성 도모	단계 맞춤형 지원	연계/후속 지원	창업 기업 입주 공간 활성화	밀착 멘토링, 심층 컨설팅	공공운영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전체	82.1	53.1	50.2	40.1	20.3	19.8	15.5
기업 성장 단계	시제품 생산	80.0	40.0	80.0	0.0	20.0	40.0
	초기생산, 마케팅	82.8	37.9	58.6	55.2	13.8	10.3
	시장 확대	83.4	56.4	47.2	38.7	22.1	20.2
	후속상품개발	60.0	50.0	60.0	40.0	10.0	30.0

자료: 본 과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1.8. 농촌 창업 경영체 생산활동 특성 시사점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의 입지 요인과 생산 및 혁신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입지 요인에서 확인되듯이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우선적으로 농촌의 저렴한 입지 조건을 활용하고자 농촌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 비용상의 이점을 활용한 창업이 여전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에서 창업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장비를 갖춘다면 창업 공간으로서 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혁신시스템의 경우 농촌 창업 경영체들이 고객업체나 지원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성장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역량이 낮다는 점이 농촌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지역 내 동종 유사업체 및 지원 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낮고, 창업가 개인의 비공식 모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창업가들의 경우 창업 전 교육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 채용을 위해 정주환경의 정비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창업 후 지역 내 거래 관계가 착근되는 경영체 비중이 그렇지 못한 경영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경영체들은 창업 후 판로개척 및 시

장과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정보 구득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의 경우 대부분의 창업 경영체들이 지역 금융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창업 금융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창업 보육과 연계한 전문적인 지역 단위 창업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창업한 경영체들은 공공 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내 지원 기관의 역량이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역의 한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농촌 창업 경영체의 농촌 창업 생태계에 대한 평가(설문조사 결과)

구분	농촌 창업 경영체 특성 및 인식		농촌에 대한 평가	
	구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인프라	○	• 농촌의 저렴한 입지 비용(강점)	○	• 창업 예비 단계 인프라 부족
혁신 시스템	○	• 지원기관 및 타창업 경영체와의 네트워킹 중요 • 고객업체, 기업 내부, 동종기업, 원료공급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제품혁신 기여 • 시제품 생산 단계 밀착 멘토링, 심층 컨설팅 수요 높음	△	•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낮은 역량 문제 • 동종 유사업체 및 지원 기관과의 협력 10% 이하 • 지역 내 비공식 모임 위주(22.6%)
인적자원	◎	• 창업 전 교육 필요성 84.1% • 인력 채용을 위한 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지원 필요	◎	• 전문인력, 생산인력 수급 어려움
가치사슬	○	• 원료 접근성 중시 • 지원기관 및 타창업 경영체와의 네트워킹 중요	◎	• 모든 창업 단계에서 판로가 어려움 • 지역 내 거래시장의 부재 및 축소 문제 • 외부시장과의 낮은 접근성 문제
금융	◎	• 지역 금융 의존도 높음.	◎	• 모든 창업 단계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 사항 • 창업 후 1~3년 미만 가장 어려움 • 지역 단위 창업 지원 금융 활성화 필요
지원정책	○	• 농업농촌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약 36% 참여 • 평균 만족도 3.94(5점 만점)	○	• 민간 지원 기관의 부재 및 공공지원기관의 낮은 역량 문제

주: 중요도 △ 낮음, ○ 높음, ◎ 매우 높음.

자료: 저자 작성.

2. 농촌 창업 유형별 사례 및 시사점

2.1. 농촌 창업 활동의 유형 및 경로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창업 유형과 그에 따른 성장 경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들은 창업가의 농촌 거주 및 이주 동기, 창업가의 경력과 그에 따른 창업 행태, 주요 생산활동의 특성에 따라 농촌 창업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창업 후 성장하는 경영체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창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창업가들의 동기와 연관하여 농촌을 창업 대상지로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 목적 외에 창업가의 개인적인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 대상지로 농촌을 선택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주민들이 농촌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 경제적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여 창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창업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창업가가 개인 경력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기반 창업과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창업하는 비기반 창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창업 목적과 관련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창업과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과정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등 기존 농업·농촌 자원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식과 활용도가 낮았던 자원을 재해석, 재조합하여 창업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2. 창업가의 농촌 이주 특성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사례

농촌의 창업가 유형은 크게 지역 주민의 창업과 귀촌인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귀촌인 창업은 창업을 목적으로 지역에 등지를 튼 ‘선(先) 창업’과 일정 기간 거주 후 사업을 결심하는 ‘후(後) 창업’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주민 창업이나 후(後) 창업의 경우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먼저 형성한 후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선(先) 창업은 지역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

〈표 4-10〉 창업가의 농촌 이주 특성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주민 창업	창업 목적 귀촌(先 창업)	귀촌 후 창업(後 창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기존 사업체 기반 • 네트워크 형성 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가의 역량 및 외부 네트워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형성 후 창업
주요 사례	아라움, 와우미탄, 통영이랑	돌창고 프로젝트, 해녀의 부엌, 브레드메일, 록야,	파란공장, 이듬해봄 충북로컬크리에이터협동조합 카카오페밀리, 알알이거뚝터

자료: 저자 작성.

2.2.1. 지역주민의 창업 - 강원도 평창군 와우미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서 창업한 와우미탄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들이 면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시도한 사례이다. 와우미탄은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5명의 청년들이 개별 경영체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미탄면의 자원과 청년, 문화를 결합하여 지역을 마케팅하고 미탄면 지역의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고자 창업하였다.

와우미탄은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별 사업체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동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미탄면은 서울과 강릉을 오고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경유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험 및 관광을 하는 개별 업체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각기

다른 사업 영역을 가진 업체들이 와우미탄의 이름으로 연계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5개의 마을과 농장을 2~3개 정도 묶어서 농촌 관광, 체험 등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0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사업에 선정되어 보육 중이며, 2021년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프로그램 구상 등의 초기 창업 단계를 밟고 있다.

2.2.2. 창업 목적의 귀촌 - 경남 남해군 돌창고 프로젝트

서울에서 문화기획자와 도예가로 활동하던 돌창고 프로젝트 대표는 문화적 인프라가 없는 남해에 돌창고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정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역 내 유희시설이었던 돌창고를 매입하며 귀촌하였다.

귀촌 후 지역의 자연환경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시도하였다. 남해군 고유 건축물인 돌창고를 지역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회, 공연장,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여행자를 위한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거점 공간이자 관광객들이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 1회 ‘돌장’ 플리마켓을 기획하여 소규모 생산자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남해와 그 인근 지역인 진주, 삼천포, 하동, 구례, 부산에서도 판매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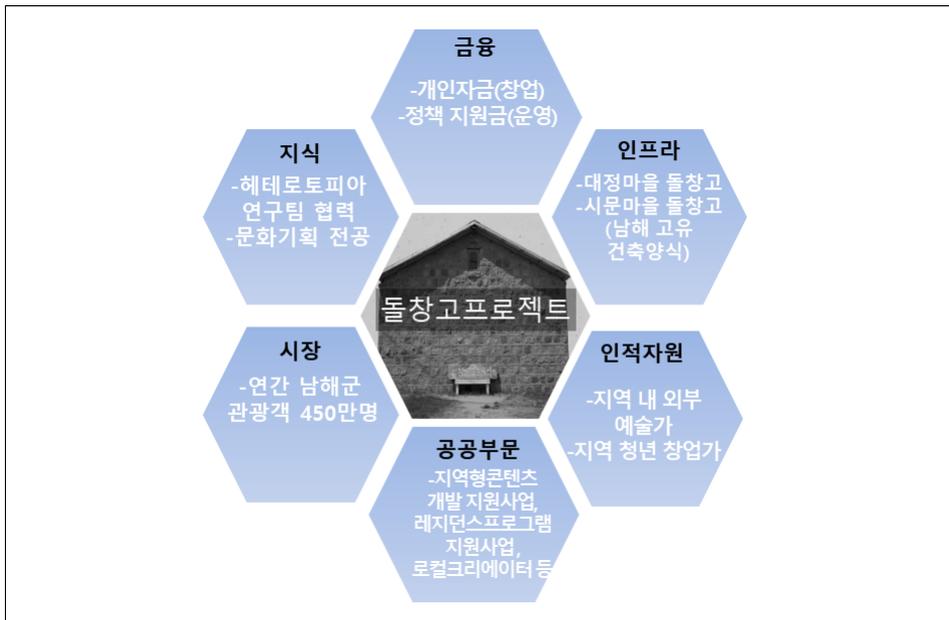
또한 돌창고 프로젝트는 남해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를 스토리텔링하여 전시와 공연, 출판 등의 형식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농촌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일자리·소득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해를 기반으로 지역 이야기를 기록하는 남해 고유의 출판사(쓰리피플)도 운영하며 작가들이 쓴 작업 일지, 학교 문집 등을 출판하였다.

돌창고 프로젝트의 창업과 다양한 활동은 농촌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해석한 것에 매력을 느낀 방문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2019년 3만 1,380명의 유료 관객 수를 기록할 정도로 사업이 성장하였다. 이후 몇몇 젊은 예술가들이 남해에 정착하여 영화제를 열고 잡지를 만들며 독립서점을 운영하거나 카페, 식당 등 청년 창업이 활발해지고, 새롭게 남해군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에

도 기여하였다.

남해군의 기존 관광자원은 자연유산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돌창고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의 관광 인프라를 예술체험형으로 다변화하였으며, 전시공간 제공 등으로 청년 문화예술 그룹들이 지역에서 활동,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사업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 있는 문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4-19〉 경남 남해군 돌창고프로젝트 성장 요인



자료: 저자 작성.

2.2.3. 귀촌 후 창업 - 제주특별자치도 (주)파란공장

철강기업에 근무하던 파란공장 대표는 2012년 제주도로 귀촌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제주살이를 연재하는 기자로 활동하였다. 취재 과정에서 불리한 유통 시스템으로 지역의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온라인몰을 오픈하였다. 지역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사업

을 시작하여 오픈 2년차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기업과의 사업 목표의 차이로 2018년 ‘파란공장’으로 재창업(법인분리)하였다.

파란공장은 제주 기념품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마을 콘텐츠를 활용한 굿즈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청년 창작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사회적기업 제품들의 리브랜딩 및 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4·3 사건과 같은 지역사회 이슈를 연계한 기획전을 개최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단체에 후원하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자원인 전통주와 지역 내 기획가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기획해 제주 양조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파란공장 창업자는 귀촌하였지만 지역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에 창업과 이후 경영체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창업 초기 지역과의 유대관계 구축을 위하여 마을 행사에 인적자본과 기술력, 후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해서 연대와 유대관계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생활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스타트업 협회, 소셜벤처 기업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부족한 정보 및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2.3. 창업가의 창업 행태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사례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은 창업가의 이전 경력 관련성에 따른 기반 창업과 비기반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반 창업의 경우 관련 업종 경력이 있는 창업가로서 기존 역량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통구조, 시장의 흐름,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잘 알고 있어 스타트업 기업을 안정화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 반면 비기반 창업은 기업 경력이 없는 청년 창업가나 외부로부터 이주한 창업가인 경우가 많으며, 농림어업 외 다양한 부문의 농촌 창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11〉 창업가의 창업 행태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기반 창업	비기반 창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승계 혹은 기존 농림어업 기반 • 농촌융복합산업 부문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외부 이주 창업가 • 다양한 산업 부문
주요 사례	아라움, 공장공장, 브레드메밀(평창군)	카카오패밀리

자료: 저자 작성.

2.3.1. 창업가의 동종업 경력 기반 창업 - 전남 여수시 아라움

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아라움 창업자는 동종업계 종사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시장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창업 후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사례이다. 2012년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여수시) 특성을 활용하여 창업하였으며, 수산물 가공 시장의 침체와 특정 제품의 성장세를 파악하고 오징어, 새우 등 각종 수산물에 일본의 튀김요리 방법인 ‘이카텐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창업주는 관련업 종사 경험이 있어 가공식품업계의 트렌드, 단계별 필요 사업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연고지 창업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것을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수산물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시작하여 이사까지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 및 관리, 수산물 산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출신지에서 직장 및 창업 활동이 연계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남A+센터,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테크노파크 등 지역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GS25 편의점, GS슈퍼마켓 등 입점에 성공하는 등 창업 경영체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설립 5년 만에 연 4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R&D 부속연구소를 운영하며 여러 특허제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림 4-20〉 전남 여수시 아라움 성장 요인



자료: 저자 작성.

2.3.2. 비기반창업 - 제주 카카오패밀리

음악 전공자였던 카카오패밀리 대표는 서울에서 과테말라로 이주하여 지내다 제주로 귀촌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지역’, ‘공정무역’,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테마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을 고민하게 되었다.

농업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은 전무했지만, 과테말라에서 관심있던 농산물(카카오)에 관한 기술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주의 지역성을 접목해 농식품 가공 제조업체를 2017년 창업하였다. 농촌 창업이 반드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농장의 카카오 원물과 제주 로컬푸드를 결합하여 상품을 만들고 소셜다이닝·팜투더시티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이끌어내는 농촌융복합산업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현무암을 닮은 카카오닙스, 돌담을 닮은 토피닙스, 뿔소라를 닮은 카카오킨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카카오에 입혀 제주만의 카카오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으며 카카오볼, 카카오 카라멜 등 22종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지역(하도리)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카카오패밀리와 같은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카오패밀리가 창업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지원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보육, 교육, 홍보 등의 지원과 함께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하는 데 필요한 투자 자금을 연계해 주었으며, 한국 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기술보증기금 연계 보증 등 후속 투자도 연계한 것이 창업 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였다.

2.4. 창업의 주목적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사례

일반적으로 창업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기업, 소셜벤처와 같이 최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경영체 창업도 활발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촌의 경우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창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추구형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농촌 창업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사회적 가치 추구형 창업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형태가 많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추구형 창업은 유사한 창업을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나 지자체의 ‘로컬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창업의 주목적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주요 사례

	경제적 가치 추구	사회적 가치 추구
특징	• 일반적 창업 목적과 동일	• 협동조합, 마을기업 • 최근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다 강조되는 추세
주요 사례	알알이거뚝터, 소셜바이오, 록야	이듬해봄, 돌창고 프로젝트, 충북로컬크리에이터협동조합

자료: 저자 작성.

2.4.1. 사회적 가치 추구 - 충북 청주시 충북로컬크리에이터협동조합

충북로컬크리에이터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이자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던 청년들이 창업하여 공동의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청주시 문의면을 중심으로 카페, 책방,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사 등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은 개인 기업의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청년들이 정착하여 지역 내에서 경제적 활동과 생활을 유지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유명 관광지가 있지만 지역으로 관광객의 방문이나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특징을 개선하고자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역 수제맥주 생산, 특산물 판매 등을 한다. 지역에 산재한 가치를 재발견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거주민의 지역 관심을 유도한다.

지역의 지원 기관에서는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기존 창업 지원 방식 대비 적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내 낙후지역의 재생 및 산업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창업 경영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역이나 주요 부문별로 연계하고, 지역 기반 창업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각종 지원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도움 없이 자생적인 창업과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제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4.2. 경제적 가치 추구 - 충북 청주시 알알이거둬터

알알이거둬터는 귀농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판매용 가공식품을 만든 경제적 가치 추구 창업 유형이다. 대전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던 대표는 20여 년간 유기농 채소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귀농하였다. 신선초, 케일, 당근 등 여러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였지만 제값을 받기 어려운 1차 산업의 유통구조를 보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웰빙 문화가 확산되며 채소 주스 시장이 커지고, 농장에서 재배하는 케일 주문이 증가하자 대표는 안정적인 원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채소 소믈리에, 착즙 기술 등을 배워 2018년 유기농 주스 바(Bar)를 창업하였다. 당일 수확한 채소를 바로 착즙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농장 바로 옆에 세웠다. 도시와 인접한 창업 공간은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판매도 증가하며 농촌 창업의 공간 제약은 상쇄되었다.

트렌드에 맞는 사업 아이템과 유기농 채소 및 판로 확보 등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는 창업 지원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각종 지원을 이끌어 내었고, 다양한 멘토링과 크라우드펀딩, 유통망 확대,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 힘입어 사업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사업장을 확장한 탓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정비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림 4-21〉 충북 청주시 알알이거뿔터 성장 요인



자료: 저자 작성.

2.5.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방식에 따른 창업 유형 및 사례

농촌 창업 경영체는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기존 자원의 가치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되지 않았던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산업 부문을 결합시켜 재조합한 유형은 사업 영역 확장성과 피벗팅의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부처 및 지원 기관의 협력을 받아 농촌에서 창업 후 성장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기존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한 창업이 주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창업가의 경험과 역량이 창업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3〉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방식에 따른 창업 유형 특성 및 사례

	기존 특화자원 활용	농업·농촌 자원의 재해석, 재조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 • 창업가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영역의 확장과 창업 후 성장 과정에서 피벗팅(사업 전환)이 빈번함 • 지원정책·사업의 수혜
주요 사례	알알이거둬터, 브레드메밀, 소셜바이오, 아라움, 통영이랑, 룩야, 그린비즈, 와우미탄, 카카오패밀리	충북로컬크리에이터협동조합, 돌창고 프로젝트, 해녀의 부엌, 공장공장

자료: 저자 작성.

2.5.1. 지역 특화자원의 활용 - 강원 평창군 브레드메밀

브레드 메밀은 창업가가 지역 및 작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평창 특산물인 메밀을 주원료로 하는 빵을 만들고, 청정한 지역에서 자라난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지역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을 펼침으로써, 단기간 내에 성장한 사례이다.

창업가는 대도시에서 동종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귀촌 후 마트에서 빵 코너를 운영하며 제빵 연구를 하던 중,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여를 계기로 재창업하였다. 빵집을 운영하면서 친해진 외국인을 통해 평창의 특화자원인 메밀의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빵업체를 시작하였다.

청년, 자연, 지역을 테마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곤드레, 메밀, 팥, 밤호박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 60여 가지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산물 유통망 개선을 목표로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역 내 5명의 청년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요리사를 초청하거나 청년들이 직접 요리사가 되어 지역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5.2. 지역 특화자원의 재해석 - 제주시 해녀의 부업

제주 해녀의 부업은 고향으로 귀촌한 창업가가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공연과 음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례이다. 창업가는 사라지는 지역의 해녀 문화를 유지·복원하고 수산물에 의존하는 지역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해산물을 브랜딩하고, 고령 해녀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창업하였다. 마을에서 방치되어온 어판장과 창업가의 네트워크(한국예술종합학교)를 기반으로 해녀를 테마로 한 공연다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녀의 부업이 선보이는 공연은 해녀의 삶을 보여주는 연극, 해녀가 들려주는 해산물 이야기, 그 해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한 식사 그리고 해녀의 생활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되는 공연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수산물 판매 및 가공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해녀의 부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임팩트 투자를 받아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해산물을 브랜드화한 원물 유통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시의 청년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이 소비되는 지역-도시 연계형 창업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4-22〉 제주 해녀의 부업 성장 요인



자료: 저자 작성.

2.6. 농촌 창업 경영체 성장 사례 시사점

농촌에서 창업 후 성장한 경영체 사례들을 통해 성장 단계별 성과 창출 요인을 살펴보면,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창업자의 역량(동종업 경력, 네트워크 등),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멘토링, 창업 지원 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장 창업 후 3년 이후의 시장 확대 단계에서는 액셀러레이팅을 포함한 전문적인 경영·자금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성장하는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경우, 창업 이후 성장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사업의 전환, 다각화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기관들과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이 특징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파란공장’은 지역에 대한 이해(지역 문제 인식, 자원발굴,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파악, 타깃 분석 등)와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준비하였으며,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나 JDC 등 창업 지원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영 컨설팅을 비롯하여 동종업 멘토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였다. 시장확대 단계에서는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 집행의 제약이 없는 ‘LH 소셜 벤처 창업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등 자금 지원 사업이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에서 열악한 금융(자금) 부문 및 지역 인적 자원은 농촌 창업 기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 창업은 여러 투자자가 활동하며 스타트업 투자,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자금 지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농촌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기반 창업 지원 금융을 조성하고, 농촌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등을 육성하여 지역에 맞는 금융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농촌에서 창업한 기업들은 창업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농촌 입지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여건상 지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자원과 기능에 대해서는 외부 지역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대응하거나 창업 지원 기관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인프라, 인적자원, 지원 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협력 주체 또한 멘토링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제주 해녀의 부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협력으로 공연기획자, 예술가 등 지역에서 부족한 인적자원을 극복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제품의 개발 및 판매 기획은 수도권 내 전문 지원 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했다. 또한 도시 관광객에게 해산물을 소개하고 예약 배송으로 판매하는 등 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입지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이종 업체들이 협의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와 함께 거점별 협의체들이 거미줄형 네트워크(spidernet)를 구축하여 경제적 효과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충북로컬크리에이터 협동조합은 기존 자원의 재조합이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창업가 간 자발적인 연계를 통해 협동조합을 결

성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한 사례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창업과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농촌의 다양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경영체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자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와 연대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성장하는 창업 경영체들은 창업가의 이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관점에서 지역의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외부로부터 이주하여 창업 후 성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창업가의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 농업·농촌 자원을 재해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창업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제5장

농촌 창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농촌 창업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

1. 농촌 창업 지원 정책 현황 및 과제

1.1. 정부 창업 지원 정책 현황

최근 창업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가·지역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창업 정책의 수 및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기준 정부 창업 예산 규모는 2019년 대비 3,336억 원(29.8%)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규모이다. 창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16개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87.9%(1조 2,611억 원)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3.4%), 행정안전부(2.4%), 고용노동부(2.2%) 순으로 창업 지원 규모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창업 관련 예산은 9개 사업, 159억 원이며, 전체 창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나 2019년의 73억 원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한 규모로 농업·농촌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 부처별 2019~2020년도 창업예산

단위: 건, 억 원

부처명	2019년		2020년		증감	
	사업수	예산규모	사업수	예산규모	사업수	예산규모
기획재정부	1	9.6	1	15.15	0	5.55
교육부	2	22	3	47.8	1	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152.4	10	489.6	2	337.2
법무부	0	0	1	8.35	1	8.35
행정안전부	1	362.2	1	355	0	-7.2
문화체육관광부	6	116.6	8	107.2	2	-9.4
농림축산식품부	4	73.7	9	159.9	5	86.2
보건복지부	1	2.4	2	46	1	43.6
환경부	1	0.8	2	6	1	5.2
고용노동부	1	280.6	1	315.9	0	35.3
국토교통부	1	4	3	22.6	2	18.6
해양수산부	2	64	2	62.1	0	-1.9
중소벤처기업부	36	9,975.6	41	12,610.8	5	2635.2
농촌진흥청	0	0	1	116.6	1	116.6
특허청	4	115.5	4	152	0	36.5
기상청	1	1.4	1	1.59	0	0.19
계	69	11,181	90	14,517	21	3335.79

주: 부처는 직제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문.

정부는 2015년에 ‘K-스타트업 통합브랜드’를 출범시켜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의 인지도와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의 8가지 부문으로 범주화하였다. 창업 정책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창업 예산에서 창업 사업화 지원 비중이 50.4%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연구개발(35.3%), 시설·공간(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네트워크(0.4%) 순으로 창업 지원 규모가 크다.

〈표 5-2〉 지원유형별 예산규모(2020년)

단위: 억 원, %

구분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합계
예산	7,315	5,126	1,259	535	217	64	14,517
비중	50.4	35.3	8.7	3.7	1.5	0.4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창업 지원 사업 통합공고문.

1.2. 농촌 창업 정책 현황

농촌 관련 창업 정책은 농정 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과 산업 육성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유관 기관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창업 지원 기관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기업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있다.

〈표 5-3〉 농촌 창업 지원 중앙부처 및 주요 기관

구분	기관	지원 대상	세부 지원 대상
부처	농식품부	농촌, 벤처창업	
	농촌진흥청	농촌 창업	기술
	해양부	농촌 창업	
	중기부	농촌, 벤처, 사회적창업	
	문체부	벤처창업	
	행안부	농촌 창업	
	고용노동부	사회적 창업	
	기재부	사회적 창업	
	보건복지부	벤처창업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	금융, 기술, 보육, 판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벤처창업	기술, 보육
	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	보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 창업	보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 창업	인프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 창업	금융
	농업기술센터(지자체)	농촌 창업	기술, 인프라
	농협	농촌 창업	인프라
	한국관광공사	벤처창업	일반
	창업진흥원	벤처, 농촌 창업	기술, 일반, 인프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벤처창업	기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촌 창업	일반
	기술보증기금	사회적 창업	사업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창업	사업화

자료: 저자 작성.

창업 지원 기관은 지역별로 지원 센터를 두어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A+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있으며, 농촌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다.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있다.

〈표 5-4〉 농촌 창업 지원 센터

창업유형	이름	전국 개수	소관부처	창업 지원 내용
농식품벤처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7개	농식품부	창업 정보 및 사업 연계 컨설팅
농식품벤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7개	중기부	창업 교육 및 거점
농식품벤처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중기부	창업 생태계 조성
농촌산업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6개	해수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투자 지원
농촌산업	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	11개	농식품부	현장 코칭 및 창업 코칭, 판로 개척
농촌산업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48개	중기부	인프라 및 판로 개척
농촌활성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개	고용노동부	창업 인프라, 경영역량 강화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농촌 관련 창업 정책은 창업 대상이 되는 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창업과 유사하게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농식품벤처 창업 지원 정책 부문과 농업·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연관산업 육성을 꾀하는 농촌산업 창업 지원 그리고 농촌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1.2.1.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정책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은 주로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추진된다. 기술 개발 및 평가, 기술 기반 사업화 부문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해당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창업 정책의 지원 내용별로는 교육 및 컨설팅 부문을 지원하는 사업(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A+센터), 농식품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벤처창업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농식품 벤처창업 판로지원), 기술 평가를 통해 투유자를 지원하는 사업(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식품 기술 기반의 (예비) 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컨설팅 등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 기반 농식품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 수출 및 판로 개척, 투자 연계, 홍보를 위한 창업 지원 생태계 구축과 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 기업 및 7년 미만 창업 기업(일반적으로 5년 이하 창업 기업 선정)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도약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센터는 7개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센터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위치하여 센터 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관련 창업 지원 사업들 중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지원 기간이 긴 편으로 창업 이후 창업 성장 단계(7년 이내)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표 5-5〉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정책

정책 지원 유형	사업명	기관	창업 기간	지원 내용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기자재	판로, 행사	네트 워크	연구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투자자	후속 지원 연계	
기술	벤처창업바우처 지원사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예비, 5년 이내	○									
금융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년 미만	○								○	
기술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년 미만	○									
기술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년 이내	○									
기술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기술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비	○	○								○
기술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사) 육성 지원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년 미만	○	○								
보육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특화센터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비		○								
보육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부, 벤처기업협회	예비, 1년 이내	○	○								○
보육	농식품분야 벤처 창업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비		○								
판로	농식품 벤처창업 판로지원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년 미만					○					

자료: 저자 작성.

1.2.2. 농촌산업 육성 관련 창업 지원 정책(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촌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해양부 소관 사업들이 있다. 농촌산업 부문의 농촌 창업을 위한 정책들은 보육과 금융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원대상으로 농업인을 특정하는 사업들이 비교적 많으며, 주로 예비 및 초기 단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5-6〉 농촌산업 창업 지원 정책

정책 지원 유형	사업명	기관	창업 기간	지원 내용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기자재	판로, 행사,	네트 워크	연구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투융자	후속 지원 연계		
보육	농산업 실전 창·취업 캠프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 정보원	예비		○									
보육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예비, 5년 미만	○	○			○	○					
보육	6차산업 현장코칭	농식품부, 6차산업지원 센터	1년 이상		○									
인프라	농식품시설 현대화자금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년 미만										○	
금융	농식품(모태) 펀드-에그로씨드 펀드	농식품부	예비, 1년 미만										○	
금융	농식품(모태) 펀드-창업아이디어펀드	농식품부	예비, 3년 미만										○	
금융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										
금융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7년 미만										○	
기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진흥청	2년 이상 영농 종사		○									
일반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센터	해양수산부	예비		○		○		○					
일반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예비		○		○		○	○	○			

주 1) 6차 산업 현장 코칭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 관련 협동조합·법인, 농촌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산림조합,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지원 대상임.

2)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사업은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 가공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 수 10인 이하, 공정 건물 연면적 500㎡ 미만인 기업이 지원 대상임.

자료: 저자 작성.

농촌산업 부문 관련 중앙 부처 주요 창업 지원 정책을 단계 및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예비 단계에서는 인적자원 부문 지원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는 지식과 시장 부문에 대한 지원이, 성장 단계에서는 정책자금 및 판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금융 및 시장 부문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진다.

지식 부문의 창업 지원은 대부분 농식품 벤처 창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업 육성 부문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시장 부문 지원은 창업 예비 및 초기 단계에 걸쳐 농식품부의 농식품 창업보육지원과 농식품기술창업액셀러레이터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하며, 주로 사업화 단계를 지원한다. 판로 관련 수출 상품화 지원, 해외 판촉행사 지원, 수출 현지화 지원 사업, 해외인증 등록 지원 등 성장 단계 사업들은 창업 기업에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성장 단계의 농산업 부문 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 지원 정책에 포함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은 성장 단계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프로그램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농식품부 지원 사업은 예비,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예비, 초기단계 자금지원으로 농식품부의 농식품모태펀드, 청년농업인스마트팜 대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식품클라우드펀딩활성화지원,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지원사업 등이 존재한다. 성장 단계 지원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등이 있다.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농식품클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 농식품벤처창업인턴제, 6차산업화 현장코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외식기업상담,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컨설팅, 특허전문가현장방문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있다.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로컬푸드 직매장설치지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그림 5-1〉 농식품 벤처 및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창업 지원 정책

지식	농산업 실천 창·취업 캠프	농식품벤처창업 R&D 비우체 사업 농식품 기술 평가 지원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	농식품부 농업기술혁신용역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해양수산부
		농업(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운영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시장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농식품 창업보육지원 청년 식품산업특성화사업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글로벌 K-FOOD 해외원천기술산업화 수출보육지원 수출상품화 지원 해안축대사업 농업(농식품) 수출 현지화 지원사업 해외인출 등록지원 농식품 기술제품의 해외유동 활성화 지원사업 농기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발표지원 농산물 직거래경터 지원	지식재산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마케팅·컨설팅 지원	
금융	청년농업인스마트펀드대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기반사회적모형 발달 지원사업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식품기금연료 매입자금 와식업체 육성자금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자금 유기식품 생산·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 모태 펀드		
인적자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6차산업화 현장모집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농촌현장 창업보육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특허 전문기 원정 원문 지원 식품-약사업 상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청능 펌세어 창업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맞춤형 농가지원사업	
인프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예비	초기	성장	

주: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관련 정책은 빨간 박스 표시.

자료: 저자 작성.

1.2.3.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농촌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중기부의 소셜벤처 육성, 기재부의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행안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등이 농촌의 해당 창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¹⁸⁾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였으나 현재는 지자체로 주체가 변

18)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3년), 전문인력 인건비,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세제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의하여 다소 완화된 요건으로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지방화를 추진하여(2010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행되었고, 지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개발비, 모태펀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창업 비용, 공간, 멘토링, 사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2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 된다. 행안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자금 및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주로 창업 예비, 초기(3년 이내) 단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교육·컨설팅·멘토링, 공간·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개발·디자인, 홍보·마케팅, 판로, 네트워크, 투자자 측면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5-7〉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

부 문	정책 지원 유형	사업명	기관	창업 기간	지원 내용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기자재	판로, 행사,	네트 워크	연구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투자자	후속 지원 연계	
사 회 적 기 업 / 소 셜 벤 처	사업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예비, 2년 미만	○	○	○							○
	사업화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예비, 3년 이내			○	○						○
	사업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농식품부 (지방이양)	-	○	○								
	사업화	마을 기업육성 사업	행안부	-	○	○		○						
	사업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기재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예비, 1년 미만	○	○								
	보육	소셜벤처 경연대회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	○								○
	보육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예비	○	○								○
	보육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		○					○

(계속)

대부	정책 지원 유형	사업명	기관	창업 기간	지원 내용								
					자금	교육, 컨설팅 멘토링	공간, 기자재	판로, 행사	네트 워크	연구 개발 디자인	홍보, 마케팅	투자자	후속 지원 연계
농촌 활성화	기술	지역클러스터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년 이내	○		○						
	인프라	농촌 유희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농식품부, 농협	예비	○								
	인프라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청년키움식당)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비		○	○						
	인프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중기부, 창업진흥원	전체	○								
	인프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기부, 창업진흥원	예비		○	○		○				
	일반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예비, 3년 미만, 7년 미만, 재창업자	○	○	○	○					
	일반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중기부, 창업진흥원	예비		○	○		○				
	일반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기부, 창업진흥원	예비, 3년 미만		○		○	○				
	일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예비	○	○							
	일반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지원	중기부, 창업진흥원	예비	○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벤처나 농산업, 사회적기업 이외 부문의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농식품부와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들이 존재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과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청년키움식당)’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공간 및 자재를 제공하고 직접 매장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을 경험하게 해 주는 유사 사업이다. 중기부에서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 벤처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이 있으며, 성장 단계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예비 단계는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3년 이상 단계는 액셀러레이팅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수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공간 입주 및 임대료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위주로 지원한다. 이 외에 최근 중기부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지원사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업가 개인에게 집중 지원하고 있다. 주로 예비 및 초기 단계의 창업 경영체를 지원한다.

〈그림 5-2〉 농촌 지역 활성화 관련 창업 지원 정책

	예비	초기	성장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약자금지원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스프츠 창업 촉진 기반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연구개발특구육성 창업성장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부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타부서/기관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사업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Global Startup 공모전 창업스타업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생도매망(지/창·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예술품이 창업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육성 프로그램 기성기술산업 청년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 크리에이티브 활성화 지원 창업성장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지역주도형 청년 인턴사업 예술분야 초기인턴사업 기반 구축지원 지역-클러스터 병행 연계 창업 인큐베이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도약패키지 공간정보 창업기업 전략캠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 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마늘기업육성사업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PDI인물 프로그램				
벤처블랙박스 운영 지원 공간보존실험 벤처시대 멘토링프로젝트운영 헤어리뷰마·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컨설팅사업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약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특별보증 여성창업기업 벤처창업기업 온스타업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유명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 투융자특별금융자금 지원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훈련창업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청년비즈니스 실용창업교육 공공기술기반사업 연계 창업보육 지원 확장 창업유망팀 300 대학창업교류체계구축 시군 청년농업기 예비창업지원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향토자원활용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시제품 제작터 운영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기술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창업보육센터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블랙박스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유망사업 활용 창업지원사업 청년 인턴사업 인큐베이션사업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지원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폐공간 공간조성 및 창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주: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 관련 정책은 빨간 박스 표시.
자료: 저자 작성.

1.3. 농촌 창업 활동 정책 및 지원 사업 개선 방안

1.3.1. 조사 개요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지원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의 수혜 경험이 있는 농촌 창업 경영체와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공공 주체 그리고 농촌 창업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 지원 주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창업 지원 기관은 농업·농촌 창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과 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업·농촌 관련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를 대상으로는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았던 농촌 창업 지원 사업이 창업 후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및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 과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공 부문 창업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였던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민간 창업 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농촌 창업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창업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표 5-8>과 같다. 조사 결과는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창업가 발굴 및 인력 양성, 가치사슬 형성, 혁신 활동 지원, 창업 금융 지원, 인프라 지원 그리고 공공 부문 주체들의 역량 및 정책 추진 방식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 제시된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창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따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표 5-8〉 농촌 창업 지원 기관 및 창업 경영체 면담조사 목록

구분		면담조사 기관	면담자	일자
공공 지원 주체	농식품 창업 지원 기관	서울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센터장	2020.01.30.
		전남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센터장	2020.05.19.
		부산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센터장	2020.06.12.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센터장	2020.08.20.
	창업 지원 기관	순천시청(순천청춘창고)	담당 주무관	2020.05.19.
		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장	2020.07.0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팀 차장	2020.07.03.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2020.07.23.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2020.09.18.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2020.10.06.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운영 담당 팀장 외	2020.09.16.
	민간 창업 지원 주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부원장	2020.03.19
		소풍벤처스(강원로컬펀드)	담당 심사역	2020.10.06.
소풍벤처스		교육팀장	2020.08.21.	
바이오믹스		대표	2020.10.23.	
투미코리아		대표	2020.10.23.	
농촌 창업 경영체	(주)아라움	대표	2020.05.20.	
	소셜바이오	이사	2020.05.20.	
	박하향기 협동조합	대표, 사무국장	2020.06.11.	
	수안영농조합법인	이장, 사무장	2020.06.12.	
	농업법인 낭만부자	대표	2020.07.01.	
	술도가제주바당	이사	2020.07.02.	
	파란공장	대표	2020.07.02.	
	해녀의 부엌	대표 외	2020.07.03.	
	제천뱅크크릭브루잉	대표	2020.07.22.	
	이랑협동조합	대표 외	2020.09.10.	
	(유)이듬해봄	대표	2020.09.18.	
	(주)그린비즈	대표	2020.09.18.	
	솔바우 나무방앗간	대표	2020.10.07.	
	있는그대로	대표	2020.10.07.	
	알알이거뭉터	대표 외	2020.10.16.	
	와우미탄	대표 외	2020.10.16.	
	브레드메일	대표	2020.10.16.	

자료: 저자 작성.

1.3.2. 농촌 창업 활동 지원 사업 부문별 현황 및 개선 방안

가. 창업가 발굴 및 교육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가 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자체 농업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농업인 대상의 창업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각 지원 기관 및 민간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창업 후 성장할 수 있는 창업가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벤처활성화지원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창업가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 시작하는 일반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창업 지원을 줄여보기 위해 점차 역량을 갖추거나 기술 기반의 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A권역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발췌

역량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타 산업 부문의 창업 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농촌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창업가를 선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창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창업 교육의 경우 강사나 프로그램의 질이 뛰어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육이 추진되어 예비 창업가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경영체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B권역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발췌

“농업·농촌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보다 허들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사업에 공모해서 떨어지거나 다소 역량이 낮은 창업자들이 초기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예비 창업자 50개사를 뽑고 있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재공고를 내야 했습니다.”

- C권역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발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높지 않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멘토들이 있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창업 경영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 L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원격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는데, 컨설팅 분야를 업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 강원도 평창군 A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귀농·귀촌 창업 교육에 있어서도 심층적 교육과, 멘토를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아울러 농촌을 대상으로 하거나 농업·농촌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이 주로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창업가들의 유입이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은 산업 부문을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연한 지원 사업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업들과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5-9〉 예비 창업가 발굴 및 인력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제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전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원격 농촌 지역은 인력수급이 어려우며, 인력이 고용을 기피함. • 인력 고용 위한 주거지 마련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창업가들이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 • 지자체 주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음. • 농업 및 농식품 관련 창업가 발굴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의 비전과 열의가 있는 외부 인력 매칭 지원 필요 • 부문을 지원하는 대신 다양한 인력이 유입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의 전환 • 주거지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 필요

자료: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판로 지원 및 가치사슬 형성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가치사슬을 형성하려는 특성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농촌 창업 지원 사업에서 판로 지원 수단을 두고 있으며, 조사 결과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저희 제품의 경우 차별화가 쉽지 않아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우체국 쇼핑에 입점을 증개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 전남 여수시 A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하지만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창업 경영체에서 판로 개척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은 것에 비해, 실제 지역의 지원 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판로개척 사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 이러한 창업체가 생기면 시장이랑 이어지게끔 관에서 연결해주거나, 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 제주 서귀포시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창조센터, 실용화재단, 도청, 시청에 판로 개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있으나, 이론 중심으로 다소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통업계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업체들을 호스팅 등에 연계시켜 준 경험이 있습니다. (중략) 대기업 MD들은 신생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는 유통 시스템을 몰라 관련 서류나 작업을 누락하거나 제때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전남 여수시 B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전문가들은 농촌 창업 경영체의 판로 개척이나 가치사슬 지원 사업에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역 내 판로 개척 만을 지원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내 지원 주체들이 제품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그러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현행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내 유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유통 부문의 전문가를 활용한 판로 개척 사업을 제안하거나, 지역 내 경영체 간 협력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창업 경영체와 지원 기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치사슬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이 아닌 창업 경영체 간 혹은 창업 경영체와 기존 업체 간 자발적 거래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지원 사업 중 안테나숍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한 지점이나 지역 마트 내 판매장에서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홍보나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P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화’ 콘셉트를 포함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저희 기관의 사업은 기존 창업 지원 사업과 차별화됩니다. 창업가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면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치사슬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촌의 창업체와 도시의 창업체가 만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H 충청북도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인터뷰 발췌

“저희 기관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창업 기업 간 협력 시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 G 제주도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인터뷰 발췌

〈표 5-10〉 창업 경영체 대상 판로 개척 사업 평가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체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 쇼핑 등 공신력 있는 판매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사업이 효과가 높음. • 판로 지원 사업 부족 • 유통 주체와의 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마케팅) 전략 관점의 창업 지원 방식 부재 • 농촌 지역 내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부재(외부 주체 활용도 낮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외부와의 연계 확대 필요 • 유통, 마케팅 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의 활용 • 지역 내 경영체 간 자발적 가치 사슬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자료: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혁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농촌 창업 지원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경영체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거나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신제품 개발 그 외 시장 동향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 창업 경영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경우 기존 지원 사업에서 비즈니스 관점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존 농촌 창업 정책이나 지원 사업은 공공 부문이 주도로 추진하여서 그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자기 기준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B권역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발췌

“농업·농촌 관련 창업 지원 정책·사업들은 타 부처 사업에 비해 비즈니스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 지표 등이 관행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 O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또한 창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 혹은 지역 내 지원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혁신 활동의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창업 경영체의 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거나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현 농촌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창업 기업들은 심도 있는 멘토링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일부 창업 경영체들은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영체들의 성장이나 사업 전환(피벗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군, 도, 중기부 산하 소진공 등이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모두 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의 성장 과정을 놓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배경이 그것입니다.”

- J 창업 지원 기관 인터뷰 발췌

“창업 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기존 멘토링 전문가들은 일회성이거나 저희 기업과 맞지 않은 역량을 갖춘 분들이 배정되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남 여주시 A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오래 유지 되는 창업가들에게는 후속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강원도 평창군 B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연계된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부문 주체들의 혁신활동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혁신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창업 지원 사업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촌 창업 경영체를 도와 지역의 상품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획가 집단을 육성·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P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민간 주체와 기존 공공 주체의 큰 차이점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기존 창업 지원 사업들은 초기 계획서에 맞는 결과물을 내야 하지만, 민간 창업 주체들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 계획 변화, 피벗하기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 주체들과 구분됩니다.”

-N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저희 지원 사업의 차별성은 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지역의 민간 위탁사를 선정하여 전담 멘토링을 통해 창업 후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관리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탁사들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G 제주도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인터뷰 발췌

〈표 5-11〉 창업 경영체 혁신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체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성장 단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사업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등에 있어 공공 부문 주체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시장과 연계된 혁신활동 지원 방식 결여 • 창업 단계별 분절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주체들의 지원 사업 참여 • 창업 기업의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방식 도입(성장 단계 기업 지원 포함)

자료: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창업 금융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금융지원은 창업 기업들의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부문이며, 지역 내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부분 창업가 개인의 금융 거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금융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면접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농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금융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단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 등 지역 내 창업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점을 창업 생태계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금융 지원 방식은 창업 기업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창업 경영체의 입장에서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 기존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과 맞닿아 있다.

“공공 주체들은 신뢰 자본이 없습니다. (자금 지원 시)서류를 많이 내도록 하고 계속 검증을 합니다. 이러한 불신 구조에서 새로운 창업 기업이 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전 형적, 신뢰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J 창업 지원 기관 인터뷰 발췌

“사실상 투자자나 투자를 받을 만한 업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의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B권역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장 인터뷰 발췌

농촌 지역의 창업 금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금융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지역 단위 창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 경영체와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증개하거나, 공공 부문 주체가 실제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방식 등이 제안되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지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 창업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창업 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됩니다.(중략) 이 외에도 외부로부터 투자자들을 연계해주거나 지역 투자자들과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G 제주도 창업지원 기관 담당자 인터뷰 발췌

〈표 5-12〉 농촌 창업 금융 지원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체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이 나지 않는 초기 자금 확보 어려움 • 일회성 자금 지원 사업이 많음 • 크라우드 펀딩의 대중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비해 투자자 등의 창업 금융 생태계 취약 • 융자 지원 등 기존 금융 지원 방식은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성장 단계 구분하여 농촌 창업 기업 대상 투자 및 펀드 활성화 • 민간 투자자의 농촌 창업 부문 관심 제고 • 공공 주체들의 역할 전환 및 확대(자금집행→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자료: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농촌 창업 인프라

농촌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청춘 공간 사업에 참여한 경영체와 지원 기관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에 참여하였던 창업 경영체는 조성된 공간이나 시설은 양호했으나,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6개의 기업이 입주했는데, 초기에 언론 홍보나 관내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청춘 공간의 운영은 전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입주 기업이 많았던 까닭에 인프라를 관리·개선하는 과정에서 입주 업체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고, 결국에 1년 입주기간을 채우고 모든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청춘 공간 운영 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운영업체가 창업 인프라의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보육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로 개선을 꾀하고 있다.

〈표 5-13〉 농촌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체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조성 후 사후 관리 부족 • 창업 인프라의 목적에 맞는 입지 및 시설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을 갖춘 주체의 인프라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인프라 조성 시 입주 기업 선정·지원 등의 운영·관리 연계 필요

자료: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바. 농촌 창업 지원 기관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사업 추진 방식이나 기관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부문이나 지원 수단(자금)의 활용처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귀농·귀촌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창업 사업의 경우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창업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경영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비 창업가 교육이나 지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턴제와 같은 예비 창업 단계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농업이나 농촌 산업 부문 이외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창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사업 본래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았을 경우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OO기관의 사업들은 기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때 자율성을 주어서 좋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A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지역에서 창업할 때,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기업의 경우도 마을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교육받거나 미리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창업 경영체 인터뷰 발췌

창업 지원 기관들 또한 창업 경영체와 마찬가지로 지원 수단별 분절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창업 경영체들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러 창업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창업 경영체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던 지역 내 지원 기관의 역량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창업 지원 기관 및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내 기관들이 직접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우수한 외부 자원 혹은 내부 주체들 간 네트워크 중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촌 지역에 입지한 창업 경영체들은 민간 창업 지원 주체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정량적 성과지표에 의해 창업 경영체수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수한 창업가를 발굴하는 것과 함께 창업한 경영체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지원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농업·농촌 창업 지원 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창업 이후 성장이 정체되거나 창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업이나 피벗팅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 P 민간 창업 지원 주체 인터뷰 발췌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나 민간 주체와의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G 제주도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인터뷰 발췌

〈표 5-14〉 예비 창업가 발굴 및 인력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농촌 창업 경영체 평가	공공 및 민간 지원 주체 인식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운영의 유연성과 간소화 필요 • 지원 사업을 받을 경우 단기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성과와 일자리 창출 등 어려움. • 기업자와 미창업자, 성장 단계 등 창업 단계별 구분 지원 필요 • 농촌에서는 지역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창업 경영체 간 네트워크 및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원 필요 • 농촌에서 IT, 기술, 농업 분야 등이 아닌 분야(문화 사업 등)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음. • 여러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통합 기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년도로 진행되는 사업보다는 2~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 요구 • 농식품부 창업 지원 사업도 단계별로 구분 필요 • 재창업 특화 프로그램 미흡 • 농식품 가공 이외에 농촌관광,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부문 창업 지원 부족 • 농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관련 중앙정부 창업 지원 사업 부족 • 창업 지원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 주체와 지원 사업이 혼재하는 상황 • 수많은 사업들을 다루는 다양한 지원 기관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기관 및 사업의 로드맵 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처리 간소화 필요 • 농촌 창업 기업 특성 고려하여 중장기적 성과 도출 유도 •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재창업 등) 지원 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차별화 • 농촌 관광, 문화,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 확대 •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 및 창업 지원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및 로드맵 구성

자료: 저자 작성.

사. 창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농촌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별 정책 개선 방안을 창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 수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농촌 창업 지원 정책 및 사업들은 창업의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초기 단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전반적으로 성장 및 도약 단계에 있는 창업 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초기 단계의 창업 경영체에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창업 경영체 대상 멘토링·컨설팅 지원은 오히려 성장 단계에 몰려 있어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초기 창업 기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비 창업에서 초기 창업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농촌 내 창업 경영체 수가 부족한 까닭에 저성과 창업 경영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초기 실패한 창업 경영체들의 사업 전환 등의 피벗팅을 지원하거나 과감하게 지원 정책·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선별 지원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

정에서 시장의 확대나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성장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5-15〉 성장 단계별 창업 생태계 요소별 농촌 창업 정책 문제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단계
정책 및 사업 운영	지원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장벽이 낮음 • 농식품 분야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과 창업 경영체들을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성장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다각화 피벗팅)
	지원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주체의 낮은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마케팅) 전략 관점의 창업 지원 주체 부재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제품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중복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화, 사업 전환 수단 부재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집적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인프라 운영 전략 부재 	
	혁신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지역 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외부와의 연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 중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화, 사업 전환 수단 부재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높은 창업가 유인 방안 부재 • 농식품 산업 부문 중심의 지원방식을 지양 		
	가치 사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마케팅) 전략 관점의 창업 지원 주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외부와의 연계 전략 부재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대비 지역 기반 투자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 벤처투자 네트워크 부족

자료: 창업 지원 기관 및 전문가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국내외 농촌 창업 정책 사례 및 시사점

2.1. 국내 유관 창업 정책 사례

2.1.1. (금융)지역단위 투자 생태계 기반 조성-강원로컬펀드

강원로컬펀드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셜벤처 투자회사 소풍벤처스가 지역 단위 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한 사례이다. 한국모태펀드 3차 출자사업 규제자유특구 부문에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선정, 32억 원 규모의 개인투

자조합을 조성하였다. 투자펀드는 19억 2,000만 원(60%)의 모태펀드 출자금과 7억 2,000만 원(22.5%)의 강원도 출자금, 이외의 기관·개인 투자자의 출자금(17.5%)으로 조성된다.

강원 로컬펀드는 투자 기준으로 지역 소재, 지역 인재, 지역 자본(지역 자본이 더 많이 참여), 지역 맥락(지역적 특성 및 자원 고려), 지역 자산화(지역에 자산이 남아야 함), 지역 혁신(새로운 자극제 및 변화 촉진), 지역 성장(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시하고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 때 강원로컬펀드의 60% 이상을 강원도 내 기업, 초기 창업자(3년 이하)에게 투자하게 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등 창업 금융 생태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업·농촌 관련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역 내 투자자가 부재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창업 경영체들의 자금 조달이나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역 단위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강원도 내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소풍벤처스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지역 내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2.1.2. (지원기관)전문 주체 육성 -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 주도의 창업 육성사업이 고객과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창업 기업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을 기획하여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사업비 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소풍벤처스(임팩트어스 프로그램)와 블루포인트파트너스(B.Grow 프로그램)를 액셀러레이터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가 출신의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사업 단계별로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과 정보 제공 등 밀착 파트너십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기업을 발굴·선정하고 12주, 후속 3개월 기간 동안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창업 경영체들의 초기 제품,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중개 및 직접 투자 등도 지원한다.

동 사업은 민간 부문의 전문 지원 주체를 통해 창업 경영체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주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창업 보육 업체의 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였던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경영체가 제시한 계획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이 특징이라면, 본 사업의 경우 민간 지원 주체에 창업 보육을 위임하고, 성과 지표만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적시성 있게 창업 경영체의 피벗팅(사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창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사업 다각화 등의 피벗팅이 나타나고 있다.

2.1.3. (혁신) 성장 단계별 맞춤형 혁신 지원 - JDC 낭그늘 사업

낭그늘 프로젝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지원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창업가 발굴 및 예비 창업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큐베이팅(검증 단계)-액셀러레이팅의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탐색을 위한 비용을 지원(500만 원)하고 이후 사업화 과정에 대해 별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전문적인 창업 기업 지원과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위탁사로 선정하여 낭그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받은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해 예비 창업 단계의 기업부터 1:1 전담 멘토링을 진행하며, 기업의 특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성장 성과지표를 기업마다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창업 기업 간 협력

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2.1.4. (인프라) 지원 주체와 연계한 인프라 운영- 통영리스타트플랫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통영시 내 폐조선소 부지의 활용 과정에서 설립되었다. 통영시 폐조선소 부지인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LH, 통영시, 경남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기반 창업보육시설로 조성하였다. 문화·예술업 분야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영체들이 저렴하게 창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은 기존 창업 보육 공간과 달리 공간 지원과 함께 특화 부문의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 주체가 공간 운영 주체(인터파크 씨어터, 이화여대산학협력단)로 참여하는 것이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인터파크 씨어터는 공간 기획 및 운영, 입주기업 선정, 창업체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고, 이화여대는 창업 교육 강사 섭외 등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위탁 기관 외에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멘토링,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1.5.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지역 기반 창업가 발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20년부터 시작한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특화형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기능을 넓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비)창업가를 의미한다.

강원도에서 ‘창조원정대’ 이름의 찾아가는 멘토단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 펀딩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확대되어 전국에서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지역생활문화 기반’과 ‘지역 맞춤형 공간재생 기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대 1,500만 원과 5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창업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 창업자들 간의 협업,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의 경우 현재 까지 발굴·보육한 로컬 크리에이터 150여 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협업 비용 일부 지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2. 일본 농촌 창업 정책 사례

2.2.1. 고베시 농촌 스타트업 프로그램(神戸農村スタートアッププログラム)¹⁹⁾

고베시 농촌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고베시 내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가에 대하여 농가, 연구자, 디자이너, 이주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지원 주체들이 플랫폼을 형성하여 예비 창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20명의 수강생을 선발한 후 세 가지 ‘지(地·知·志)’를 지향점으로 6개월 기간 동안 교육 및 예비 창업과정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강생이 궁극적으로 지역(고베시) 내 농촌에서 사업체를 창업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이해(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知), 기업가 정신 고취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志)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기존 창업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점은 단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촌

19) 고베 농촌 스타트업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kobenoson.jp>, 검색일: 2020. 9. 23.) 및 일반재단법인 오고슈쿠혼진아트 보존회 홈페이지(<https://www.ogo-honjin.com>, 검색일: 2020. 9. 23.)를 통해 작성한 원고(위탁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에서 이루어지는 창업활동을 지원하지만, 농업이나 기존의 농촌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행, 문화, IT 등 농촌 산업 관련 다양한 영역의 창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2.2.2.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篠山イノベーターズスクール)²⁰⁾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은 단바사사야마시(丹波篠山市)와 고베대학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서의 창업 및 계업(繼業, 사업 계승·제2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컬 비즈니스 스쿨이다. 지자체(단바사사야마시)가 기획한 사업으로 단바사사야마시 및 고베대학 농촌이노베이션랩(農村イノベーションラボ)이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하고, 일반사단법인 EKILAB에 위탁하여 운영된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19년까지 총 3기에 걸쳐 123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를 통해 25명이 창업하였으며 10명은 기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이 특징적인 것은 단바사사야마시로의 이주 및 정주, 투융자 등 창업가의 이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 지원한다는 점이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역 기반 창업에 필요한 지식 습득과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고베대학을 비롯한 대학교의 연구 인력과 다양한 유형의 기업가들이 참여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최신 시장 정보를 습득하고,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초·전문 지식 및 실용지식을 습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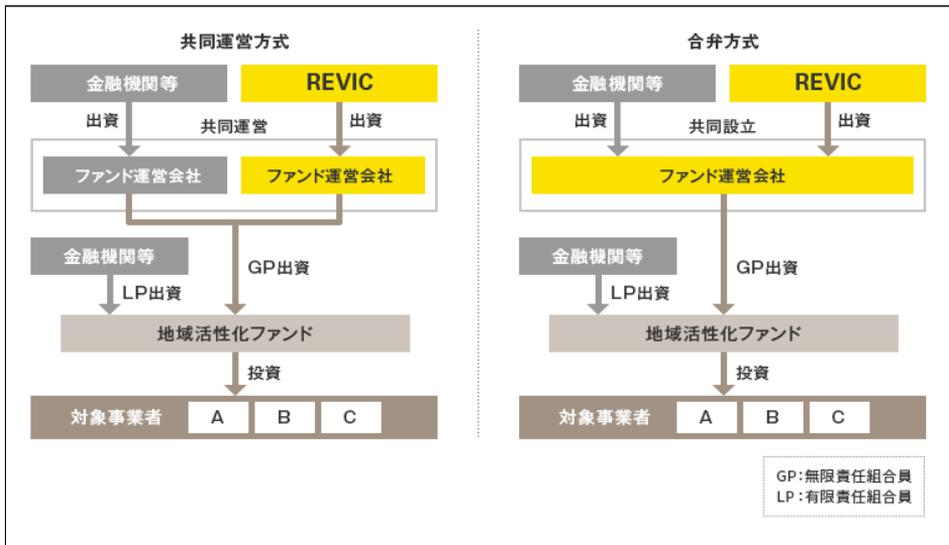
지역 지원 기관 등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여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 기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 내 금융기관, 창업 인프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이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예비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 사업 공간 등의 초기 지원을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20)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홈페이지(<https://school.sasayamalab.jp>, 검색일: 2020. 9. 23.)를 통해 작성한 원고(위탁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2.2.3.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지역 창업 지원 사업²¹⁾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는 일본 예금보험기구(預金保險機構) 및 농림중앙금고(農林中央金庫)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 경영체 지원 펀드를 운영 중인데,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 펀드를 공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가 가진 창업 투자 노하우를 지역 금융기관으로 전수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창업 투자 관행을 개선하여 각 지역별 창업 금융 활성화 효과를 꾀한다.

〈그림 5-3〉 REVIC의 지역 펀드 운영 방식



자료: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홈페이지(<http://www.revic.co.jp>, 검색일: 2020. 9. 23.).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는 본래 지역 재생 관련 다양한 산업 부문의 펀드를 운영해왔다. ‘관광산업 지원’, ‘헬스케어산업 지원’, ‘지역 중핵 기업 지원’, ‘벤처성

21)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홈페이지(<https://school.sasayamalab.jp>, 검색일: 2020. 9. 23.)를 통해 작성한 원고(위탁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장기업 지원’, ‘재해부흥·성장 지원’ 등의 개별 펀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벤처·성장기업 지원 펀드’는 현재 지역경제에 있어 충분하지 못한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창업이나 벤처기업, 성장 기업들과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연결하고, 창업(시드의 사업화) - 벤처(사업의 수익화) - 성장(사업 규모 확대)의 각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와 연계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과 기업 성장의 창출을 통한 지역 고용의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까지 조성된 벤처·성장기업 지원 펀드는 전국 펀드로 1개, 지역 펀드로 22개가 있으며, 전국 펀드 총액은 20.1억 엔, 지역 펀드 총액은 390.25억 엔에 이른다.

2.2.4. 농림수산성 웹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 INACOME²²⁾

INACOME은 2019년 일본 농림수산성이 개설한 웹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농산어촌의 풍부한 자원이나 활력적인 인재, 자금을 연결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플랫폼 내에서는 창업자 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개별 상담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운영은 창업 지원 서비스업의 민간 주체가 수탁 운영 중이다.

INACOME은 농업·농촌 관련 예비 창업가 및 창업 경영체 대상의 정보제공, 커뮤니티 참여, 인력 소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창업가가 희망하는 산업 부문이나 제품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정보 교환 및 교류를 증대하며, 동업자나 지역의 창업자, 지원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웹 기반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성장 기업체 DB를 운영 중이며,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경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2) 본 내용은 INACOME 홈페이지(<https://inacome.jp/>, 검색일: 2020. 9. 23.) 내용 및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anbo/inacome/inacome.html>, 검색일: 2020. 9. 23.)를 통해 작성한 원고(위탁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2.3.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시사점

첫째, 지역 단위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과 창업 경영체의 성장은 지역 창업환경이나 산업 생태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나타나는 금융과 관련하여 강원로컬펀드 제주투자조합, 전략펀드, 일본의 REVIC 지역재생 펀드 등 지역 단위 창업 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 단위의 완결된 창업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창업 경영체들의 수요와 주요 자원·주체의 분포를 고려하여 다층적 공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 단위 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 창업 단계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 경영체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비 창업 단계에서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강원도로컬펀드나 중소기업벤처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민간 주체들이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제주개발공사의 낭그늘 프로젝트 또한 예비 창업가 발굴과 창업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하여 중장기 교육을 통해 창업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창업 관련하여 예비 창업가 발굴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창업가 발굴 및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국내외 유관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시 창업 관련 역량을 갖춘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부문의 주체가 창업 보육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여 창

업 경영체를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농식품 창업 경영체의 보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공 부문 주체가 제공하기 어려운 네트워킹이나 전문 경영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이 운영 중이며, 통영시 리스타트 플랫폼의 경우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임에도 민간 지원 주체가 참여하여 입주 기업 대상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농촌의 경우 지역 내 창업 지원 주체의 수나 역량이 부족한 만큼, 향후 제시한 사례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책 개선 시 민간 주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이나 제품군을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창업가를 육성하는 형태의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 기반 창업 정책과 달리 지역 기반 창업 정책이나 지원 사업은 특정 산업이나 제품군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문의 창업가를 육성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정책이나 지원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창업 경영체 대상으로 자금이나 인프라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창업 경영체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는 형태의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이 최근 창업 정책의 특징이다.

〈표 5-16〉 농촌 창업 생태계 현황 및 국내외 창업 지원 정책 사례 시사점

구분		농촌 창업 생태계 개선 과제	국내외 사례 시사점
창업 단계별	예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장벽이 낮음(무분별한 창업) • 창업교육 주체의 낮은 역량 • 역량 있는 창업가 유인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창업가에 대한 선별 및 집중 교육 (고베시 농촌스타트업프로그램 외)
	초기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과 경영체들을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밀착 지원 및 비즈니스 관점에 입각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벗팅 지원(낭그늘 프로젝트 외)
	성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화, 사업 전환 수단 부족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별	창업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집적 인프라 부족 • 운영·관리 부실(청춘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을 갖춘 운영 주체와 연계한 인프라 운영(통영리스타트업플랫폼 외)
	혁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부족한 역량 • 외부와의 연계수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체를 통한 역량 및 네트워크 보완 (농식품엑셀러레이터 육성사업 외)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있는 창업가 유인책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문을 한정하지 않는 창업가 발굴(로컬크리에이터) • 귀촌과 연계한 창업 지원(사샤야마 이노베이터스쿨)
	가치사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관점의 전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품 개발 지원(강원로컬펀드 외)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투자 기반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금융기관 협력 로컬펀드 조성 (강원로컬펀드, 일본 REVIC 펀드)

자료: 전문가 및 사례 관련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6장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농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1. 농촌 창업 정책 개선 방향

농촌 창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양한 부문의 창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멸과 성장 요인 분석 결과 금융, 창업주의 역량 및 배경, 혁신 역량, 가치사슬의 편입 정도 등 농촌 창업 생태계 관련 요소들이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촌 창업 경영체는 거래관계 등의 생산활동과 혁신 네트워크를 국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의 창업 환경이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농촌 창업이 증가할수록 농촌의 지역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촌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반 환경과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단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농촌의 창업 활동은 생존율이 낮은 산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는 타 창업 지원 정책에 비해 농업·농촌 관련 창업 지원 정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창업의 무분별한 지원과 확대가 창업 실패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농촌 창업 활동 정책의 방향은 창업의 양적인 증가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창업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역량을 갖춘 창업가 발굴 및 예비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정신과 역량을 보유한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 창업 정책은 농가의 소득다각화(농촌융복합산업 육성)나 귀농·귀촌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온 바, 기술 창업 대신 소규모 창업이나 청년들의 창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농촌 이주 등과 연계한 전문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인력의 농촌 유입과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품목이나 산업 중심의 창업가 발굴 방식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부문의 창업가가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창업가 발굴·육성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창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창업 경영체 조사 결과, 창업 이후 창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 수요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초기 창업에서 시장 확대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휴폐업률이 높고 판로 개척이나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농촌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의 양적 증대와 초기 창업 경영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 주체를 육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고려하여 민간 주체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경우 창업 경영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주체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체들이 체감하는 역량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창업 생태계에서 활동을 지속해오던 민간 주체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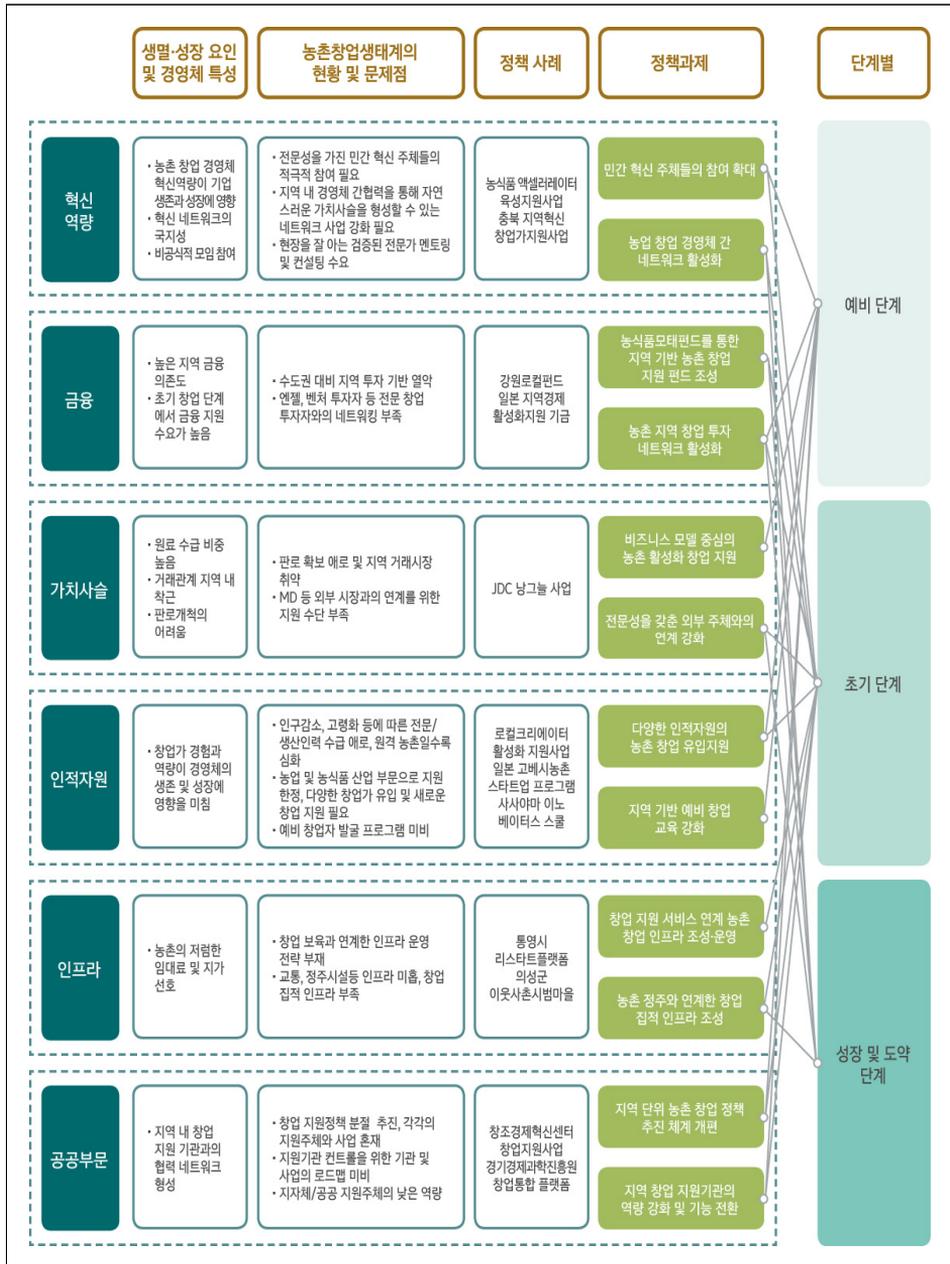
창업가를 선발하고, 창업 보육에 따른 성과가 해당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 보육에 나선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문을 막론하고 민간 주체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기 활동 중인 민간 창업 지원 기관들 대상의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 창업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주체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 지원 내용을 개선하고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 창업 지원 기관 대상의 농촌 창업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해당 기관들의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농촌 창업 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금융 기관과 연계한 지역 단위 창업 금융 확대, 지역 대학 및 전문가와 연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 주체를 활용한 창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인지하고 지역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농촌의 불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자기 완결성을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창업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간 협력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접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창업 주체의 입지 특성 상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체와 연계한 농촌 창업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에 입지하는 농업 및 농촌산업 지원 기관의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사업을 집행·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센터, 농업기술원 등 지자체 입지 기관의 역할 및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 내 창업 지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창업 정책 추진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지역 창업 지원 기관과 농촌산업 육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창업 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하에 농촌 지역에서 역량을 갖춘 창업가에 의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창업 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그림 6-1>과 같이 농촌 창업 생태계의 구성 요소별로 도출하였다.

〈그림 6-1〉 농촌 창업 경영체 및 생태계 특성에 따른 정책 과제



자료: 저자 작성.

2. 농촌 창업 정책 부문별 개선 과제

2.1. 농촌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 강화

2.1.1. 민간 혁신 주체들의 참여 확대 - 농촌 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농촌 창업 경영체의 생존 및 성장에 혁신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실제 창업 후 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농촌 지역에서 혁신활동을 지원하거나 네트워크를 중개해야 하는 공공 부문 주체의 역량이 창업 경영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지원 주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최근 창업 생태계에서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창업 지원 사업 추진 방식에도 반영되는 추세이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사업은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민간 주체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추진 사례로 살펴보았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방식에 착안하여 농촌 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액셀러레이터²³⁾는 예비 창업가나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주체들이다. 창업 기업의 성장이 액셀러레이터의 이해 관계와 일치(투자 수익 회수 등)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가나 초기 창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농촌 창업 경영체는 입지상의 불리함과 사업화에 시간이 걸리는 산업적 특성 등으로 인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관심을 얻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 활동 중인 액셀러레이터들이 농촌 창업 경영체의 발굴과 성장을 지

23)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등록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원할 수 있도록 농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와 창업 보육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비 농촌 창업가를 발굴하고 민간 창업 지원 주체들의 농촌 창업 활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농촌 창업 생태계를 민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장 지향형 창업 생태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부 농식품 벤처 창업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활용 사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한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 입지한 창업 활동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사업 등에서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고 농촌산업 전반에서 민간 주체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 사례 - 소풍벤처스(액셀러레이터) ‘임팩트어스’ 프로그램>

- 소풍벤처스는 2020년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농식품 관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임팩트어스’ 프로그램으로 명명
 - 소풍벤처스는 본래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업기업을 지원(임팩트 투자)하는 것을 주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창업의 경우 소풍벤처스의 사회적 가치 창업 영역에 해당
- 2020년 총 250개 창업팀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임팩트어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13팀을 선정하여 보육 과정을 추진 중임.
 - 창업 경영체 보육 기간은 12주이며, 12주 성과에 따라 후속 3개월의 추가 보육이 이루어짐.
 -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창업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모델의 전환(피벗팅) 등이 이루어짐.
 - 프로그램을 이수한 창업 경영체들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소풍벤처스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2.1.2. 농촌 창업 경영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농촌에서 창업 활동은 경영체의 가치사슬이 지역에 착근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지역 내 거래 관계를 형성하거나 동종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비공식 모임을 통해 주체들과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촌 창업 활동 지원 사업에서 창업 경영체나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회나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증업체 협의체 등 농촌산업 경영체 간 협력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수단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업은 창업 경영체를 선별하여 지원하지는 못했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가들을 모집하여 공동 학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과 대도시에 입지한 농식품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실정이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나 강원도 평창군 와우미탄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최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창업은 창업자들 간 자발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클낭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수혜 창업 기업 간 연계·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기존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과는 달리 창업자 간 네트워크 모임과 공동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창업자 간 연계를 통해 농촌에서 새로운 창업 기업이 출현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 창업 경영체 간 연계, 농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등 공간과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혁신적인 창업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농촌 창업 경영체나 예비 창업가 간 자유로운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농촌산업 부문의 창업 지원 사업 추진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기존 농촌산업 협의체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별 창업 경영체 간 비공식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품목별 연구회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간 협의체 성격으로 다변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혁신창업가 지원 사업(창업가 네트워크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해왔으나, 지역 여건상 기술 기반 창업가 저변이 넓지 않음을 인지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년부터 지역 혁신창업 프로젝트를 시작
 - 2018년 7명의 지역혁신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여 2019년 지역 혁신창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
- 지역 기반 창업가 간 공동학습,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충북 도내, 외부 지역),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
 - 2020년 기준 270개의 창업 및 예비 창업가가 참여하는 지역 혁신창업가 모임이 결성되어 운영 중임.

2.2. 지역 단위 농촌 창업 금융 활성화

2.2.1.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한 지역 기반 농촌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일반 창업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 창업 경영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지역(시·군)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촌 창업 경영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창업가의 개인 금융을 통해 창업 경영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 지원 기관 조사 결과, 수도권 외 지역은 전문적인 창업 투자자들이 부족하며, 특히 농림업 등 농촌 창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농촌산업 부문의 경우 산업의 특성과 경영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창업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소규모 투자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강원 로컬펀드는 한국모태펀드의 자펀드로 2020년 결성되었으며, 투자사와 지자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투자조합이다. 강원로컬펀드는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지역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등) 외에도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운 농촌 관광, 문화 등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창업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결성 규모는 32억 원으로 타 펀드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기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농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펀드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하나로 ‘지역특성화’ 특수목적펀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역특성화 특수목적 펀드는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고 지역 내 입지한 농식품 경영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단위 투자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특성화펀드 운영기준에 따르면 우선투자 대상(펀드 총액 기준 20% 이상)으로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농식품 경영체를 두고 있는데, 지자체 내 ‘농촌(읍·면) 입지 농식품 기업’과 같은 지역 기준을 두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조건을 두어 농촌 창업에 대한 우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보다 소규모의 지역특성화펀드 추진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 대상 로컬펀드 조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모태펀드-지역특성화펀드〉²⁴⁾

- (투자 대상) 출자한 지자체 내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이전 예정), 출자 지자체 내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경영체
- (출자 비율) 모태펀드 46%, 지자체 27%. 투자자 27%
- (우선 투자) 의무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에 투자(우선투자)

2.2.2. 농촌 지역 창업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 지원 기관 면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농식품을 비롯한 농촌산업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하였던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자 네트워크의 확대나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펀드 조성과 더불어 농촌 지역 내 금융기관과 창업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면담조사 결과 지역 창업 생태계가 지속되려면 지역 금융기관의 농촌 산업 및 농촌 창업 경영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자자와 경영체 간 네트워킹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벤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투자자들과 경영체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경영체들이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창업 경영체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나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와 같이 농촌 창업 관련 지역 주체들이 각 지역의 창업 경영체와 지역 내외 투자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0-24호, '농식품모태펀드 2020년 정기 2차 출자사업 계획'

〈관련 사례 - 서귀포시 지역 창업 기업 기업설명회(IR) 데모 데이(넥스트 챌린저스 데이)〉

- 지역(제주)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창업 지원 주체(넥스트챌린저)와 지역 공공 부문(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이 공동으로 창업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경연 방식의 기업 설명회 개최
- 지역에서 창업한 지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에 대한 피드백과 투자자와의 매칭 기회를 제공
- 지역 내 공공 지원 주체, 지역 내외 전문 투자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창업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심사하고, 사업 모델이 우수한 창업 기업에 대하여 투자 협약을 체결
- 지역 내외 투자자들이 지역 창업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활용

2.3. 농촌 창업 경영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2.3.1. 전문성을 갖춘 외부 주체와의 연계 강화: 마켓 코디네이터 지원

창업 후 제품개발 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 경영체들은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 위주로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가진 창업자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욕구 변화 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농촌의 경우 시장과 소비자 수요 변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켓 코디네이터는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며, 유통시장의 변화에도 민감한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여야 한다. 이들이 각 시도 혹은 시·군별로 배치되어 농촌 창업자들이 창업 시부터 시장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켓 코디네이터들은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 활동하는 농촌 창업가들을 모아 협력체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소비시장의 변화, 유통시장에 대한 변화, 정책 금융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켓 코디네이터는 시장과 제품에 대한 전문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간부 출신의 은퇴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상공회의소나 지역 도청의 실무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 선택 시 해당 지역과의 연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2.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농촌 활성화 창업 지원

농촌의 장소성(locality)에 기업가 정신 및 창의력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및 생산활동(콘텐츠, 문화·예술, 생태·환경 서비스 등)은 농촌 창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예비 기업가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수단과 지원 트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농촌 경관, 문화, 생태, 역사 자원을 활용한 휴양, 교육, 치유, 농촌형 MICE 등 지역자원 기반 농촌 창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 ICT 등 첨단기술을 지역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농촌 창업을 육성해야 한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농산물 가공·유통 중심의 생산 다각화로 농촌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케어사업을 농업·농촌과 연계하여 창업을 할 수도 있다. 농촌 고령자 확대 및 농촌사회의 다각화에 대응한 사회 서비스를 경제활동으로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농촌의 사회 서비스를 활용한 농촌 창업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다각화되는 인구 구성에서 자구적 서비스를 공동체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구상이 가능하다. 청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

대하여 소득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농촌 인구구성의 다각화와 새로운 계층의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장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4. 우수 창업가의 발굴·육성을 통한 농촌 창업 저변 확대

2.4.1. 농촌 기반 창업가 유치 및 육성

농촌 창업은 혁신성이 있는 창업가들이 농촌으로 유입하거나 성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창업 경영체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농촌에서의 창업이 도시에서의 창업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경영체의 혁신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과 역량이 있는 대표자와 전문 인력은 창업 경영체의 혁신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창업 경영체에서 생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러나 농촌 창업 경영체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전문 인력과 생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을 제약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업 지원 기관의 전문가들은 농촌으로 역량 있는 창업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보는 실정이다.

역량 있고 창의성 있는 창업주를 농촌으로 유치하고 농촌 창업 업체의 생산과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농촌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창업 경영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 산업군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모두 지원하며, 이때 지원 대상의 초점은 지역과의 연계성이다. 향후 농촌 창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농촌의 자원

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창업가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창업 경영체 대표 등 다양한 인력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유인해야 한다. 농촌 창업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의 자원을 이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혹은 관련 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일본 사사야마 이노베이터 스쿨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으로의 이주와 지역의 창업 지원 플랫폼을 연계한 창업가 유치·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4.2. 지역 기반 예비 창업 교육 강화

창업 이전에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기업가 정신 제고 등을 위해 예비 단계에서의 창업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지원 기관 및 전문가들은 창업 수를 늘리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농촌의 예비 창업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농촌 창업 경영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84.1%가 창업 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²⁵⁾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실제 창업 전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는 경영체는 전체의 22.6%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경우 농촌 창업 지원 사업에서 (예비)창업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위상과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 부문 주체가 중심이 되어 창업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 내 지원 주체들을 연계하고, 지원 플랫폼을 형성하여 지역 창업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대학, 교육기관, 민간 지원 주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비 창업가의 발

25) 그 이유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 습득'과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기업가 마인드 제고' 등을 미리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촌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활력 플러스, 농촌협약 등 농촌 개발 사업에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하거나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단위 농촌 창업가 발굴·육성 및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당 사업의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사례 - 익산시 농촌활력대학(창업아카데미)²⁶⁾ 운영〉

-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와 농촌 내 기 창업한 초기 창업가,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발굴하여 선정된 전문 지원 기관이 창업 경영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2021년부터 운영 예정)
- 예비 창업가 역량에 따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창업 경영체 성장을 위한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역에 입지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창업 공간 등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

2.5. 농촌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플랫폼 구축

2.5.1. 창업 지원 서비스 연계 농촌 창업 인프라 조성·운영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대 및 임대료가 창업가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작용한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 입지 이유 중 저렴한 임대료를 꼽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도 최근 농촌 내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기업을 유치하는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농촌에 있는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농식품부의 청춘공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타 부처에서도 지역 유희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6) 청년 창업 관련 익산시 내부 자료.

최근 창업 인프라 조성 사업의 특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정비하고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 업체의 성장 지원을 병행하는 창업 플랫폼 구축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농식품부의 청춘공간 1호점에 입주했던 업체들은 입주업체나 공간에 대한 사후 관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1년 만에 모두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한 상태이다. 경상북도의 한 지자체에서 조성한 ‘청년창업 LAB’ 시설도 전문적 운영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1개월 만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 사례도 있다. 농촌의 경우 창업 관련 제반 지원 서비스가 열악한 까닭에 물리적 인프라 구축만으로 창업 경영체의 성장과 지역 안착이라는 인프라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창업 인프라 조성 시 입주 업체에 대한 사후지원,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경영 관련 창업 보육 등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창업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을 비롯하여 플랫폼 구축 방식을 참고하여 창업 보육 시설 및 경영체 입주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특화 산업 부문 중심으로 전문화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 부문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및 공간 운영을 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2.5.2. 농촌 정주와 연계한 창업 집적 인프라 조성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농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정주 여건은 창업가의 이주뿐만 아니라, 창업 경영체의 인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와 창업 경영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저밀도 지역이라는 농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창업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 지원 서비스의 최소 임계치 확보를 위해 창업 경영체의 집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거리가 먼 원격 농촌일수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인프라 등과 연계한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 창업과 연계한 도시민 유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시 창업 기업이 입주하기 위한 인프라와 더불어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역의 문화·여가·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사례 -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창업 연계 주거단지 조성 사업
- 농식품, 반려동물, 문화예술창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지원
- 빈집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청년들이 이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의료, 교육 등 필수 정주 인프라와 기초 생활 서비스 여건을 개선

2.6. 정부·지자체 농촌 창업 추진 체계 개선

2.6.1. 지역 단위 농촌 창업 정책 추진 체계 개편-농촌 창업 지원 센터 설립

농촌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내에서도 생산활동의 특성에 따라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영농 창업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정책이 추진 중이며,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촌 개발 관련 정책·사업에서도 농촌 창업 지원을 사업 유형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농식품 벤처, 농업인 소규모 창업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각 주체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면접조사 결과 중앙부처나 기관의 정책과 지원 사업이 실제 지역에서 추진될 때, 경영체들과 지역 내 기관들이 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거나 지역 내 유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지원 사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으로 농촌 창업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층위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촌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총망라하는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농촌 창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농식품 산업을 비롯하여 농촌산업 전반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농촌 창업 지원 센터’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식품가공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기관 간 사업 중복의 문제와 함께 기관 간 연계·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농촌 창업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타 정책 부문 주체들과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 창업 지원 센터의 운영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농촌이라는 지역을 고려하고 여러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단위 기관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 창업 지원 센터의 역할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2. 지역 창업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기능 전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지역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도시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 농촌 창업 경영체들은 지역 내 창업 지원 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내 기관들의 역량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농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중앙부처나 상위기관의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유관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 변화 경향을 참고하여 농촌 창업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 기술 기반 창업

지원 기관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역에서 대행하는 기관에서 발전하여 각 기관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9개 센터가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6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직접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한 기업이 인수·합병되거나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이우진 외 2019).

〈표 6-1〉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및 운영 방식 변화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이후
기능	창업, 중소기업지원, 특화산업 지원	초기 창업+투자기능 집중, 센터 입지 지역에 따른 특화
의사결정	하향식(중앙부처→지역별 센터)	상향식(지역별 센터 중심)
지원체계	대기업·정형화된 매칭(일방 지원)	중견기업·벤처·지역 기반 창업 기업, 대학 등 자율 참여(상생협력, 사회적 가치)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협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농촌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도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및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센터 내 창업 지원 전문가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이해하고 지역 내 창업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전문가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자,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창업 지원 기관 소속 직원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에 관한 전문성이 강한 전문가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단위 지원 조직들이 농촌 창업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창업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투자자, 시장과의 연결도 강화되어서 창업가 애로-지원 기관 해결-시장 진출이라는 선순

환 구조가 구조화되도록 강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지원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 농촌 창업 지원 기관을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 - 경기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경제과학진흥원 협업〉

-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식품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수행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농식품 제조·가공 경영체 및 농식품 기술 기반 (예비)창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 경기도 농식품펀드와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혁신아카데미 ‘변화관리자 양성 과정’〉

- 2019년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 창업 지원 기관 및 유관 기관 지자체 공무원이 교육 대상자로 참여하며, 각 주체들이 단순 사업 관리자가 아닌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

설문조사지

ID -

→ 리스트ID 기록

농촌 창업 경영체 특성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농촌에서 창업하여 경영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농촌 창업 기업의 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 창업 경영체들의 입지 요인과 창업 후 성장 단계별 제약 요인, 농촌 창업 지원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 내용 문의: 정도채 부연구위원(☎ 061-820-2107)/김정승 연구원(☎ 061-820-2160)/서형주 연구원(☎ 061-820-2399)

※ 설문조사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행: 한국기업데이터(문의: 이은숙 팀장, 02-3215-2417)

■ 일반 사항

1. 경영체 일반현황

1) 창업연도	년
2) 주력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기준 업종코드 5자리() / 업종명()
3) 주요 생산품(서비스 포함) *3가지 응답	①
	②
	③
4) 종업원수	2019년 말 기준 명
5) 매출액	2019년 말 기준 약 억
6) 경영체 형태	① 농업회사법인 ② 영농조합법인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⑤ 합자회사 ⑥ 생활협동조합 ⑦ 기타()
7) 경영체 소재지	()시/도 ()시/군
8) 경영체 창업지역	()시/도 ()시/군
9) 경영체 소재지 특성	① 국가·일반산업단지 ② 농공단지 ③ 창업보육시설 ④ 개별입지
10) 대표자	성별 : ① 남 ② 여 나이 : 만 세

2. 귀사는 현재 아래의 기업 성장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 ① 창업 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시제품 생산) ② 초기 생산, 마케팅 단계
- ③ 시장 확대 단계 ④ 후속상품개발 단계
- ⑤ 기타()

3. 귀사의 창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창업자의 독자적인 창업 ②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의 창업
- ③ 공공기관 창업보육 후 창업 ④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관을 통한 창업
- ⑤ 기존 기업으로부터의 분사창업 ⑥ 기타()

4. 귀사가 농촌에서 창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저렴한 자가 및 임대료 ② 유리한 물리적 하부구조(교통, 통신)
 - ③ 고객업체와의 근접성 ④ 원료수급의 용이성
 - 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 ⑥ 노동인력 수급 용이
 - ⑦ 농촌의 무형 자원(관광, 문화, 생태계 등) ⑧ 지자체(시·군/시·도)의 지원
 - ⑨ 기업가 개인적 선호(고향, 네트워크 등) ⑩ 확장 가능성
 - ⑪ 동종 업계와의 연계성 ⑫ 기타()

5. 귀사가 창업한 지역(시·군)에 입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 ② 유리한 물리적 하부구조(교통, 통신)
- ③ 고객업체와의 근접성
- ④ 원료수급의 용이성
- 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
- ⑥ 노동인력 수급 용이
- ⑦ 시·군의 무형 자원(관광, 문화, 생태계 등)
- ⑧ 지자체(시·군/시·도)의 지원
- ⑨ 기업가 개인적 선호(고향, 네트워크 등)
- ⑩ 확장 가능성
- ⑪ 투자기관과의 접근성
- ⑫ 창업 지원 시설 및 기관과의 근접성
- ⑬ 동종 업계와의 연계성
- ⑭ 기타()

6. 대표자의 창업 직전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 ① 대기업
- ② 중소기업
- ③ 벤처기업
- ④ 연구기관
- ⑤ 대학(원)생
- ⑥ 농림어업
- ⑦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 ⑧ 기타()

7. 대표자의 창업 전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현 창업 업종 관련 경력 ()년
- 2) 현 창업 업종 관련 외 경력 ()년
- 3) 창업 당시 대표 창업자의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8. 대표자의 경우 창업 이전 경력과 창업 업종 간 연관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관련 없음
- ② 거의 관련 없음
- ③ 약간 관련 있음
- ④ 매우 밀접한 관련 있음

9. 대표자의 주된 창업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많은 소득을 위해
- ② 직장생활 대비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
- ③ 가업 승계
- ④ 사회 공헌을 위해
- ⑤ 농촌 혹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 ⑥ 자아실현을 위해
- ⑦ 기타()

10. 대표자는 창업 전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독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이전 직장
- ② 창업 지원 기관
- ③ 동종 창업 기업
- ④ 방송·신문 등 미디어
- ⑤ 개인 네트워크
- ⑥ 박람회·세미나
- ⑦ 인터넷, SNS
- ⑧ 기타()

21. 귀사가 이용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비중을 기입해주십시오

기업 지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의 지역별 비중					
		시·군내	시·도내	수도권	기타 국내	해외	합계
1) 시장정보 구독·경영상담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100%
2) 인력훈련 및 소개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100%
3) 기술 정보 구독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100%
4) 금융 상담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100%
5) 법률 상담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	%	%	%	100%

22. 귀사는 일반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고, 응답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어디에 입지해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시장정보 구독처	3순위까지 표시	위치
① 기업 내부 (대표 및 직원의 제안)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② 고객업체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③ 원료 공급업체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④ 동종기업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⑤ 대학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⑥ 연구기관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⑦ 정부·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A+센터, 테크노파크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⑧ 창업 지원 민간기업 (액셀러레이터, 컨설팅, 벤처 캐피탈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⑨ 공개된 정보원 (박람회, 특허, 언론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⑩ 지역 기업 협의체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⑪ 비공식모임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⑫ 기타()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23. 귀사에서 행해지는 기술개발 등의 제품혁신(신제품개발/품질개선/생산 공정개선)에 가장 기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3순위까지 응답해 주시고, 응답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어디에 입지해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시장정보 구득처	3순위까지 응답	위치
① 기업 내부(대표 및 직원의 제언)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② 고객업체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③ 원료 공급업체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④ 동종기업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⑤ 대학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⑥ 연구기관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⑦ 정부·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 A+센터, 테크 노파크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⑧ 창업 지원 민간기업(액셀러레 이터, 컨설팅, 벤처캐피탈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⑨ 공개된 정보원(박람회, 특허, 언론 등)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⑩ 지역 기업 협의회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⑪ 비공식모임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⑫ 기타()	()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그 외 국내지역 ④ 해외

24. 다음 지역 내 주체와의 협력 관계 관련하여 참여한 경험여부를 응답해주시고,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동기와 도움 여부에 대해 해당 보기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내(인접 시·군 포함) 주체와의 협력 관계 경험 유무	참여 여부	참여한 경우 주된 동기	참여한 경우 도움 여부
1) 타 경영체(기업) 간 공동연구·제품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가 있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2) 연구기관(연구소, 대학)과의 공동연구, 장비이용 등의 협력관계가 있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계속)

지역 내(인접 시·군 포함) 주체와의 협력 관계 경험 유무	참여 여부	참여한 경우 주된 동기	참여한 경우 도움 여부
3) 지자체 공공기관(창업보육센터, 진흥원, a+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의 창업 지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4) 대학의 창업보육 프로그램, 인력 교육 등의 협력관계가 있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5) 창업 경영체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기업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6) 지역 내 창업 지원 기업(은행·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컨설팅 기업)으로부터 창업 후 기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7) 지인 혹은 지역 내 비공식 모임(친목 모임, 봉사 단체, 동창회 등)을 통해 취득한다	① 참여 ② 참여한 적 없음	①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② 지역 내 협의회에서 정보를 구득 ③ 지역 내 입지한 공공 지원센터의 지원 ④ 관련 기업의 권유 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보 구득 ⑥ 포럼, 박람회, 세미나에서 정보 구득 ⑦ 학교 및 연구소와의 연계 ⑧ 기타 ()	① 매우 도움이 됨 ② 약간 도움이 됨 ③ 보통 ④ 큰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25. 귀사는 창업 이후 다음의 각 활동에 대하여 지역 내 활동 비중이 증가하였습니까?

※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활동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③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지역(시·군) 내 원료 공급업체로부터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시·군) 내 고객 업체로의 판매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시·군) 내 동종·유사업체와의 제휴 횟수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시·군) 내 공공 지원 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진흥원, a+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과의 협력횟수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시·군) 내 민간 지원 기관(은행·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 액셀러레이터, 컨설팅 기업, 법률 및 기술 지원 기업 등)과의 협력 횟수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창업한 지역에 대한 평가 및 기업의 노력

26.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귀사가 창업한 지역(시·군)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 ② 생산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 ③ 물리적 하부구조(교통, 인프라 등)가 열악함
- ④ 사업자 서비스(금융, 경영지원, 법률 등) 이용이 불편함
- ⑤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 기관의 역량이 미흡함
- ⑥ 창업 지원 민간 주체(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가 부족하거나 역량이 낮음
- ⑦ 연구개발을 위한 제반 시설, 지원이 미흡함
- ⑧ 동종 업체와의 협력 관계 형성이 어려움
- ⑨ 시장, 경영, 기술 정보의 구득이 어려움
- ⑩ 판매 주체와의 연계가 어려움
- ⑪ 수도권·대도시 소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이미지가 좋지 않음
- ⑫ 기타()

26-1. 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귀사가 정보를 구득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은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합니까?

위의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각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26번 1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수도권 ④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⑤ 해외 ⑥ 기타

26번 2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수도권 ④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⑤ 해외 ⑥ 기타

26번 3순위: ① 동일 시·군 ② 동일 시·도 ③ 수도권 ④ 인접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⑤ 해외 ⑥ 기타

27. 귀사가 창업한 지역(시·군) 여건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인구 문제(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부족
- ② 지역 내 거래 시장의 부재 및 축소
- ③ 외부 시장과의 낮은 접근성, 높은 교통·물류 비용
- ④ 농축수산업 중심의 열악한 지역산업 구조
- ⑤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주체의 낮은 역량
- ⑥ 창업 관련 민간 지원 기관의 부재 및 낮은 역량
- ⑦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이미지
- ⑧ 환경, 토지 이용 등의 지역 규제
- ⑨ 부족한 산업 용지, 창업 공간 및 기업 인프라
- ⑩ 동종 업종 및 관련자의 부족
- ⑪ 기타()

■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

2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창업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 ② 창업 기업 입주 공간 조성 및 정비
- ③ 창업 후 성장기업 대상 입주시설 조성
- ④ 지역 동종·유사 기업 간 협력 확대(협업체 등)
- ⑤ 경영(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⑥ 지역 단위 창업 지원 금융 활성화
- ⑦ 혁신 주체(대학, 연구소)와 협력 확대
- ⑧ 공공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 역량강화
- ⑨ 기타()

29. 귀사가 창업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통근, 정주환경 정비 등)
- ② 창업 기업 입주 공간 조성 및 정비
- ③ 창업 후 성장기업 대상 입주시설 조성
- ④ 지역 동종·유사 기업 간 협력 확대(협업체 등)
- ⑤ 경영(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⑥ 지역 단위 창업 지원 금융 활성화
- ⑦ 지역 혁신 주체(대학, 연구소)와 협력 확대
- ⑧ 공공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 역량강화
- ⑨ 지역 이미지 개선(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⑩ 기타()

30. 귀사는 다음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각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창업 지원 사업	참여유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2) 농촌현장창업보육(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벤처기업협회)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4) 벤처창업바우처지원사업(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5)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6)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지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7)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 사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8)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9) 농식품 벤처창업 판로지원사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0) 농식품모태펀드(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1) 농식품크라우드펀딩 활성화지원사업(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2)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농업정책보험금융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3)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창업진흥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5)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6)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지자체)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17)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정안전부)	① 참여 ② 미참여	①	②	③	④	⑤

31. 귀사가 참여하신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창업 예비, 초기, 성장 단계를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창업 기업 입주 공간 활성화가 필요하다
- ③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한 밀착 멘토링, 심층 컨설팅이 필요하다
- ④ 지원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서류 간소화, 사업비 사용 등)

- ⑤ 지역 단위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⑥ 창업 이후(7년 이후) 연계/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⑦ 공공운영 창업 및 기업 지원 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⑧ 기타()

⊙ 설문응답자 연락처

기업명/부서	/	응답자 성명	
E-mail		전화번호(회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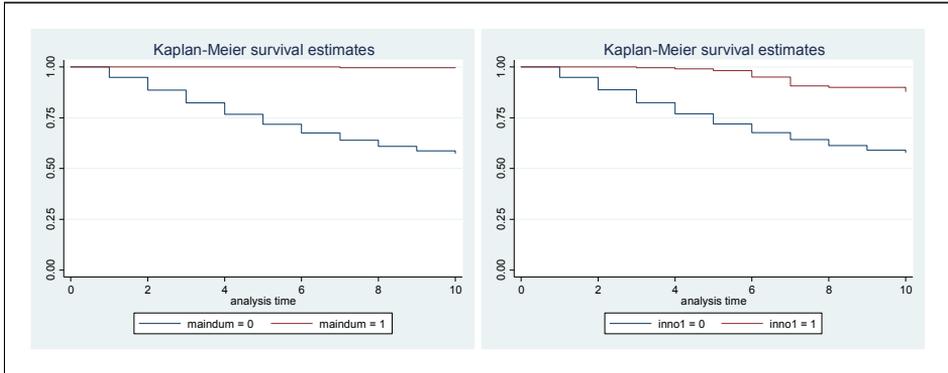
생존 분석 설명 변수 선정

생존 분석에서 각 설명 변수의 수준별로 케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으면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없다(임채윤 외 200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본격적으로 추정하기 앞서 <표 3-11>에서 1차로 선정된 설명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설명 변수 중 이산 변수인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이노비즈 인증 유무, 벤처 인증 유무,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산업대분류 기준 산업 더미 변수, 창업 연도 더미 변수에 대해서 케플란-마이어 생존 확률의 그래프를 1차로 확인하고, 2차로 로그랭크 검정을 하였다. 매출액, 종업원수, 부채 비율,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창업자 나이, 연구개발 투자비, 수령한 보조금 등 연속 변수는 케플란-마이어 생존 확률 그래프의 작성이 어려우므로, 단일 변수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해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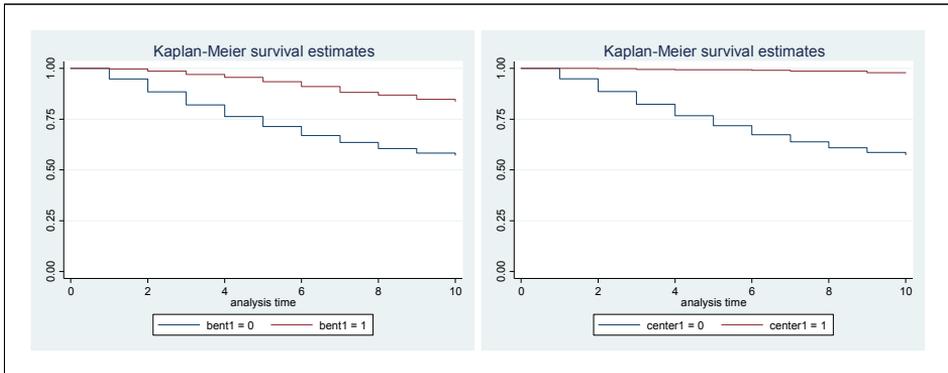
대표적인 이산 설명 변수로 볼 수 있는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이노비즈 인증 유무, 벤처 인증 유무, 기업비설 연구소 유무의 케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은 다음의 <부도 2-1>, <부도 2-2>와 같다. 네 개의 변수 모두에서 각 단계별로 생존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없으므로, 이 변수들은 콕스 위험비례모형에 포함해도 될 것이다.

〈부도 2-1〉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좌측)와 이노비즈 인증 유무(우측)의 생존 곡선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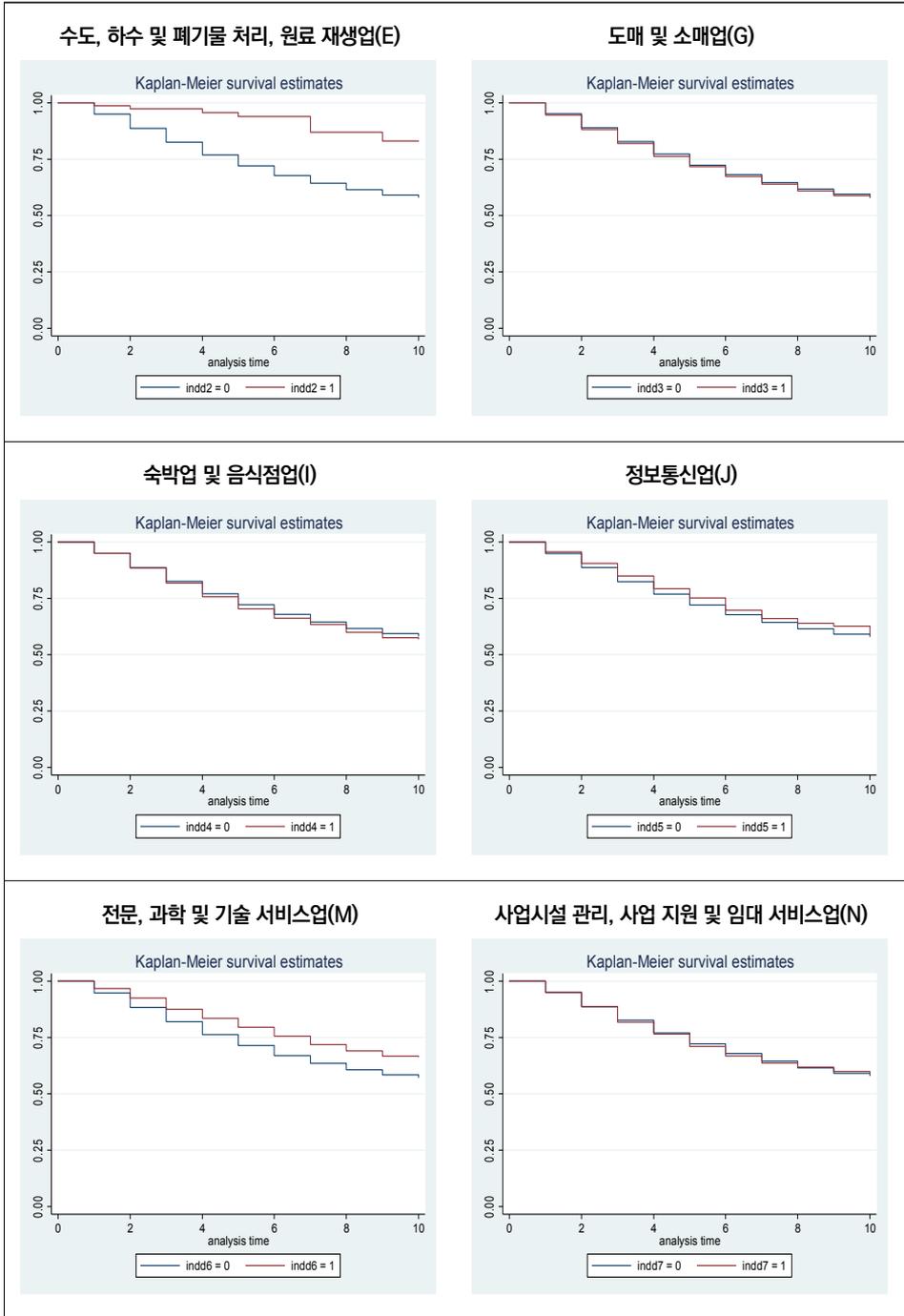
〈부도 2-2〉 벤처 인증 유무(좌측)와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우측)의 생존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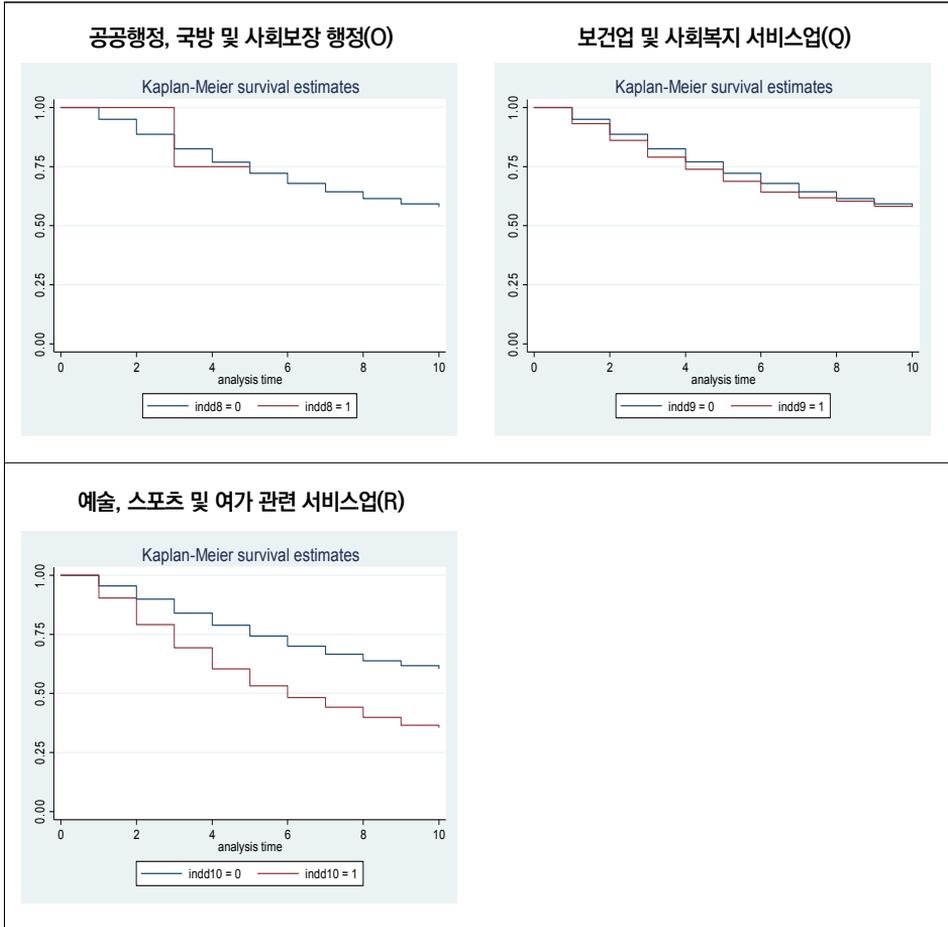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산업별 창업 경영체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조업(C)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산업 부문을 케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이용해서 검증하였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에서는 케플란-마이어 곡선이 교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G), 숙박업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에서는 케플란-마이어 곡선이 교차해서 이들을 설명 변수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도 2-3〉 산업 부문별 생존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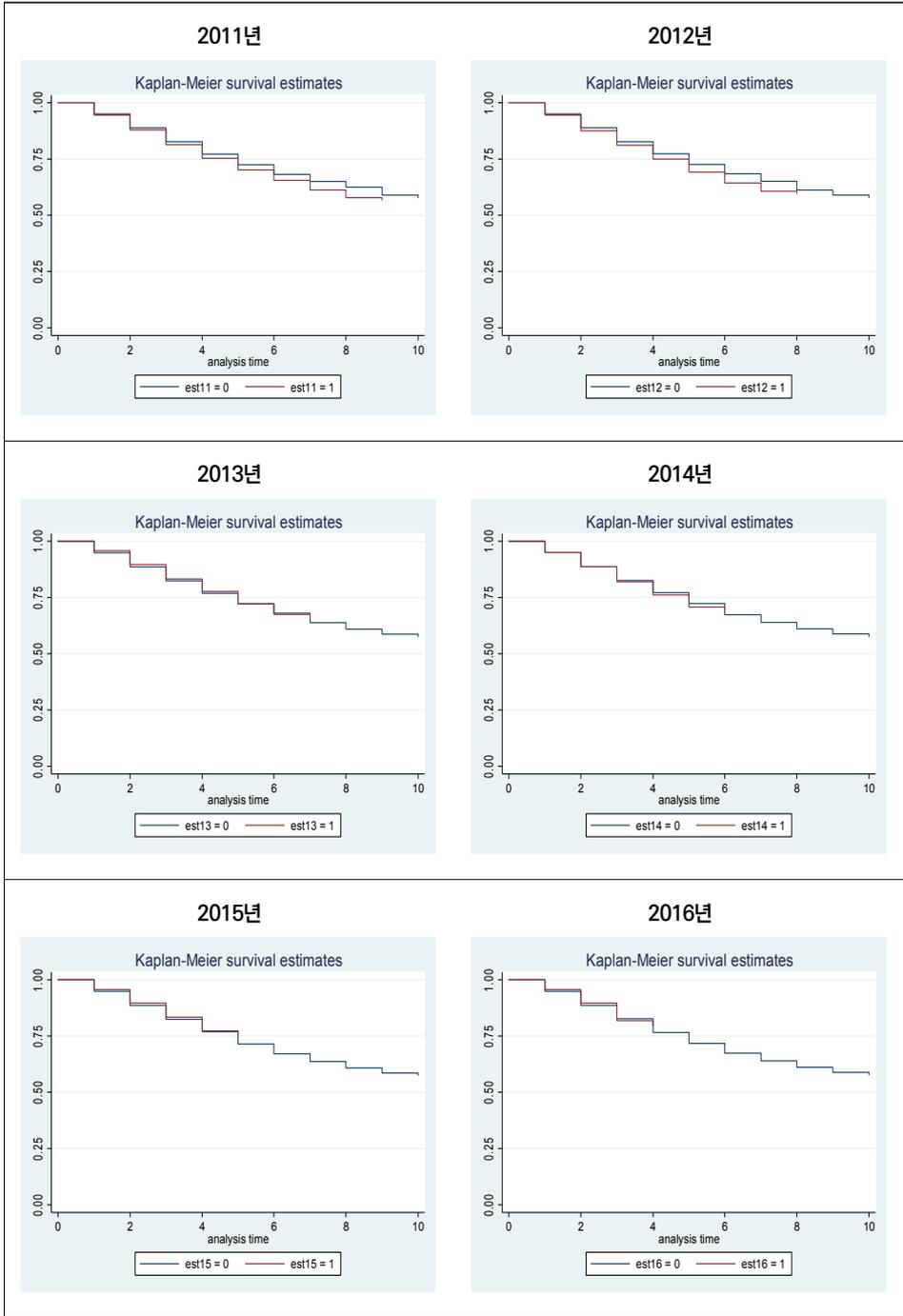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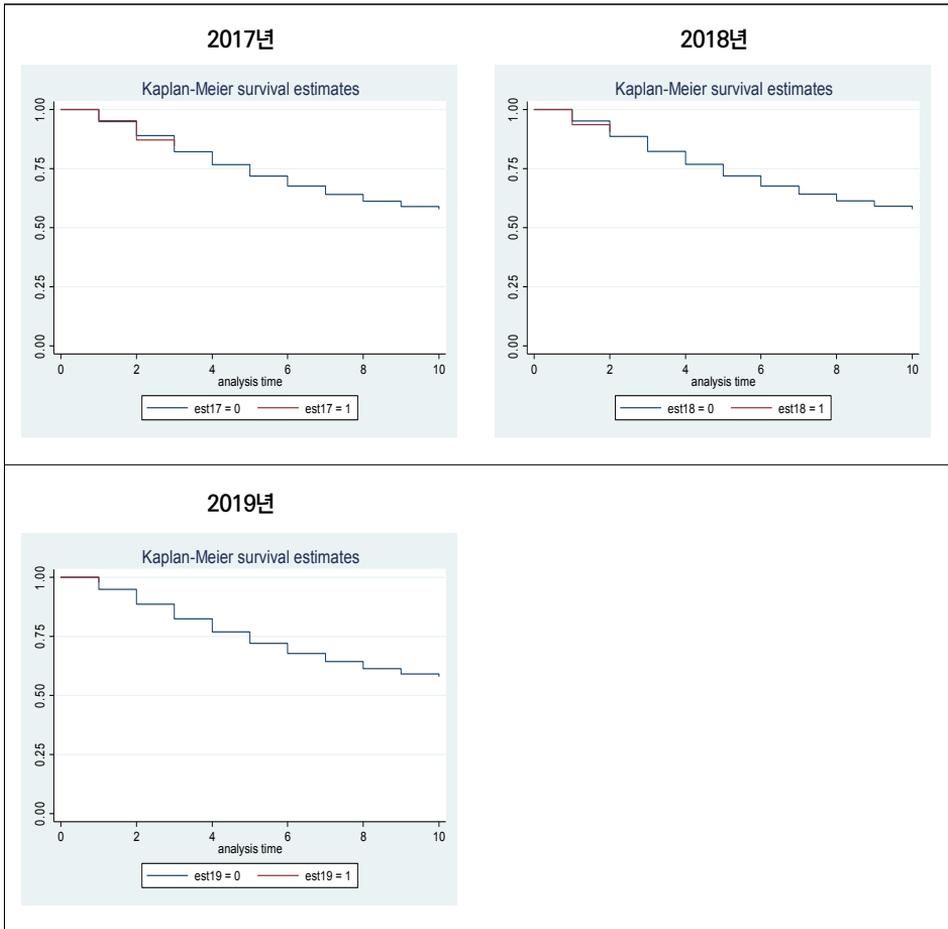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 저자 작성.

마지막 이산 변수인 창업 연도별 더미 변수를 검정하였다. 창업 연도가 2020년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케플란-마이어 곡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로그 랭크 검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부도 2-4〉 창업 연도별 생존 곡선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1차로 선정된 변수들을 단일 변수 모형을 적용해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창업자 특성, 혁신 관련과 정부 지원 변수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산업 대분류별 더미 변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 관련 창업 경영체는 관측치가 5개이므로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거시경제 조건과 관련된 대리 변수인 창업 연도는 모든 창업 연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1〉 단일 변수 모형 유의성 검정 결과

구분	세부변수	x2	p-값
기업 성과 및 재무 지표	매출액	280.82	0.00
	종업원수	2416.12	0.00
	부채 비율	1311.14	0.00
창업자 특성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 기간	141.85	0.00
	창업자 나이	92.20	0.00
혁신 관련	메인비즈니스 인증 유무	205.84	0.00
	이노비즈 인증 유무	68.96	0.00
	벤처 인증 유무	321.07	0.00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234.66	0.00
	연구개발 투자비	463.57	0.00
정부 지원	수령한 보조금	14.80	0.02
산업 대분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15.17	0.00
	도매 및 소매업(G)	3.49	0.06
	숙박업 및 음식점업(I)	2.24	0.13
	정보통신업(J)	3.18	0.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16.46	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0.29	0.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0.01	0.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02	0.31
창업 연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1020.05	0.00
	2011년	16.54	0.00
	2012년	12.85	0.00
	2013년	5.86	0.02
	2014년	2.89	0.09
	2015년	33.32	0.00
	2016년	20.17	0.00
	2017년	14.53	0.00
	2018년	15.69	0.00
2019년	33.16	0.00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관계부처 합동. 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구교영. 2017. 『일자리 창출수단으로서의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이암허브.
- 국승용·임지은·이형용. 2018.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허주녕·유은영. 2018.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도관. 2017. 『지역 차원의 통합형 창업 지원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김상표·반성식·엄태열·장성희. 2013. “농촌창업기업의 내부 및 외부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8(1): 15-32.
- 김선우·이정우·성경모·손준호. 2015.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심층분석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 김소민·정혜진. 2017. “도시재생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창업 분석: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94권. pp. 107-121.
- 김정태. 2016.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별 특징.” 『농촌사회』 26(2): 46-86.
- 김정홍·정운선·박종복·안준기. 2014. 『기술창업기업의 지방입지 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김종용·이우형. 2017. “자치단체 창업관련 일자리예산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 269-281. 한국지방재정학회.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사회적 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7.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0. 『농식품모태펀드 2020년 정기 2차 출자사업 계획』.
- 류준영·남진·이창효. 2014. “서울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도시행정학보』 27(4): 247-271.

- 마상진·허주녕·김경인. 2017.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쓰나가 게이코. 이혁재 옮김. 2017. 『로컬 지향의 시대』. 알에이치코리아.
- 문미성. 2019.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월간국토』 2019년 10월호. pp. 6-11.
- 박남규·김명숙·고종욱. 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성호·양동우. 2015. “벤처기업 창업환경 및 기업 성장 단계가 경영 애로 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291-299.
- 박순홍·신현한. 2013. “가젤기업(Gazelles)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35(1): 1-24.
- 박용린. 2013.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방안: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 23(2): 42-52.
- 박재환·전혜진. 2018.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도구: 소셜벤처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87-198.
- 박지연·김연중·최진용. 2016. 『과학기술 기반 농식품 벤처창업 촉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원·최종인. 2019.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창업경영학적 접근의 필요성.” 『벤처창업연구』 14(3): 111-127.
- 선남이·박능후.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2): 141-164.
- 송미령·김광선·김정섭·구자춘·정도채·서형주. 2020.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통피어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정환·염윤미·현중기·박진현. 2016. 『6차산업 창업 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양현봉·조덕희·박종복. 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윤지훈·박지훈·배종태. 2017. “창업생태계가 소셜 벤처의 기업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1): 91-134.
- 이대기. 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KIF연구동향』 23: 3-9.
- 이동필·김중선·전일송. 2002. 『벤처농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미순·서승원·주섭중. 2015. “가젤형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 간 역량 비교 연구.” 『중소기업연구』 37(3): 201-224.

- 이명중·주영진. 2019.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6):59-76.
- 이병기. 2002. “벤처기업 성장 요인 실증분석.” 『벤처경영연구』 5(2): 93-109.
- 이성봉. 2015.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경상논총』 33(1): 97-114. 한독경상학회.
- 이수행·김태곤·김상규·박정지. 2017. 『농업·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경기연구원.
- 이수창. 2013. “사회적기업의 조직적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모수회분석을 토대로.” 『지역발전연구』 22(2): 95-126.
- 이승규. 2007. 『사회적 기업 평가 도구 개발 보고서』. 실업극복국민재단.
- 이우진·김종철·김가영·엄승권·박경태. 2017.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I) 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우진·김도현·김종성·오혜미·김가영. 2019.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분석 모델·지표 개발 및 지역 창업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이창구·서영옥. 2018.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182-207.
- 이창효. 2017. “신생기업 생존과 설립지역 특성에 대한 관계 실증분석: 신생기업 설립지역의 산업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5): 131-151.
- 익산시청. 2020. 『청년창업(농) 관련 자료』.
- 임길환·정유훈. 2014.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임채윤·이윤준·이광호·김종선·배영임·김성진. 2008. 『벤처기업 생존영향 요인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도채·정유리·김정승·김유나. 2019.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진하. 2005.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27(2): 123-156.
- 정혜진. 2016.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GRI 연구논총』 18(1): 35-62.

- 조성철·남기찬·장철순. 2018.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 육성방안. 『국토정책 Brief』 679: 1-8.
- 조한나·김명진. 2019. “정부 청년창업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1-8.
- 주재욱·조달호·윤종진. 2018.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0.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019.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 _____. 2020. 『창업기업실태조사』.
- 최성안. 2018. 『창업지원정책의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IAD 분석틀의 관점에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정완·허철무. 2018. “농업분야 창업 현황과 지원정책.”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31-134.
- 통계청. 2010. 『전국사업체총조사』.
- _____. 2015. 『전국사업체총조사』.
- _____. 2018. 『전국사업체총조사』.
- _____. 2019.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 행정안전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자료.
- 홍효석·김예경. 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6(1): 1-29.
- 황정태. 2011. “혁신이 중소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 규모와 나이에 따른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6(2): 47-77.
- Dodoo, R. N. A., Appiah, M., and Donkor, D. T. 2020. “Exa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firm performance in Ghana: a GMM and OLS approach.” *National Accounting Review*. 2(3): 309-323.
- Freire-Gibb, L. C. and Kristian N. 2014. “Entrepreneurship within Urban and Rural Areas Individual Creativity and Social Network.” *Regional Studies*. 48(1): 139-153.
- Gauthier, J. F., Penzel, M., Marmar, M.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Startup Genome.

- GEM. 201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8/2019 Global Report.
- Isenberg, D. 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Babson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oject. Babson College.
- Mazzarol, T. 2014. “Growing and sustain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What they are and the role of government policy.” SEAANZ White Paper, Small Enterprise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SEAANZ). WP01-2004.
- Moore, J. F. 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Harper Business.
- OECD. 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8*. OECD Publishing.
- 고베 농촌 스타트업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kobenoson.jp>>. 검색일: 2020. 9. 23.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kanbo/inacome/inacome.html>>. 검색일: 2020. 9. 23.
-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홈페이지. <<https://school.sasayamalab.jp>>. 검색일: 2020. 9. 23.
- 일반재단법인 오고슈쿠혼진아토 보존회 홈페이지. <<https://www.ogo-honjin.com>>. 검색일: 2020. 9. 23.
-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 사사야마 이노베이터스 스쿨 홈페이지. <<http://www.revic.co.jp>>. 검색일: 2020. 9. 23.
- INACOME 홈페이지. <<https://inacome.jp/>>. 검색일: 2020. 9. 23.

KREI

www.krei.re.kr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

Characteristics and Growth Factors of Start-ups
in Rural Area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